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철학·윤리학



PHILOSOPHY AND ETHICS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은 인간과 세계, 사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올바른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PHILOSOPHY AND ETHICS

CONTENTS

INTRO.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안내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활용 안내	06
---------------------	----

Part 1. 종합 요약

전공 종합 요약	12
전공 진출 직업 목록	14

Part 2. 전공 개요

전공 소개	18
전공 주요 영역 및 교과	19
주요 연계전공 분야	20
진출 분야 정보	20
유사학과 비교	21
전공 교수 인터뷰	22

Part 3. 전공기반 진출 직업 정보

가. 경영·행정·사무직

01. 공공갈등조정사	28
02. 노무사	38
03. 인사사무원	48
04. 노무사무원	66
05. 총무사무원	76
06. 준법감시원	86





나.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07. 철학연구원	98
07-01. 인공지능윤리전문가	112
08. 생명윤리연구원	124
09. 법학연구원	134
10. 사회복지정책연구원	140
11. 언론정책연구원	154

라. 예술·디자인·방송직

14. 소설가	188
15. 극작가	202
16. 게임시나리오작가	206
17. 구성작가	216
18. 취재기자	226
19. 연극연출가	240
20. 방송책임프로듀서	254

다. 교육직

12. 철학·윤리학교수	160
13. 인문학강사	174



INTRO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안내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었나요?

-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는 대학생이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 전공과 관련한 주요 직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고학년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특정 직업에 대한 세부 정보와 현장 직업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인 진로 정보 탐색과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전공 대학생 및 대학신입생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전공이 제공하는 학문적 특성과 이를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등단계 청소년 및 대학 진학 준비생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전공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그에 따른 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진로 탐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로지도 실무자

중등단계 및 대학의 진로지도 담당자가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전공과 직업에 대한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는 'Part 1. 종합 요약', 'Part 2. 전공 개요', 'Part 3. 전공기반 진출 직업 정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종합 요약」은 전공과 전공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 「전공 개요」는 전공 소개, 전공별 주요 역량 개발 분야와 교과목(전공 세부 영역별 교과목 명칭 및 역량개발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정보 등), 주요 연계전공 분야, 관련 자격증, 진출분야 정보, 유사학과와의 비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공기반 진출 직업 정보」는 전공을 살려 진출 가능한 직업으로, 「주요 진출 직업」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 「확장 진출직업」은 현재의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직업별 주요 취업처, 하는 일, 필요 역량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각 분야 전공자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해당 직업과 관련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관련 교과목 수강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내용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훈련 및 능력 개발과정, 일경험, 자기 주도적 활동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에 나오는 각 항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공 개요>

전공소개	해당 전공의 학문적 정의, 연구 영역, 전공 목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합니다.
전공 주요 영역	전공의 학문적 범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전공이 다루는 학문적·실천적 영역을 제시하고 각 영역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공 주요 교과	전공 주요 영역별로 대표적인 교과목을 소개합니다.
주요 연계전공 분야	해당 전공과 함께 이수할 경우 전문성을 확장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직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관련 전공들을 소개합니다.
관련 자격증	전공을 기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목록으로, 전공학습을 통해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과 선택적인 학습 및 경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포함하여 소개합니다.
진출 분야 정보	해당 전공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이나 분야를 소개합니다.
유사학과와의 비교	해당 전공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사학과를 비교하여 소개합니다.

<전공기반 진출 직업>

한 줄 요약		해당 직업의 주요 역할이나 핵심 업무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유사 명칭		해당 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직업명을 소개합니다.
관련직업		해당 직업과 업무 성격이 비슷하거나 연계되는 다른 직업들을 소개합니다.
하는 일		해당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업무를 상상해볼 수 있도록 수행하는 주요 업무와 역할을 소개합니다.
필요 역량		해당 직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과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wagework.go.kr) 직업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해당 직업이 없는 경우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기준 상위 분류의 내용을 차용하거나 현직자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
경력 준비 방법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대학에서의 학업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과 연계된 대학 전공과 주요 교과목을 소개합니다.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전공 수업 이외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과정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대학 외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전문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일경험	직업의 실제 환경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소개합니다.
	자격증	해당 직업에 대한 입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직을 위해 필요한 필수 자격증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자기주도적 활동	해당 직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석사/박사	해당 직업에서 석·박사 학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공과 연구 분야를 소개합니다.
	진출 분야	입직 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소개합니다.
관련 정보처		해당 직업의 하는 일, 최신 동향, 관련 자격증 정보 등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해당 직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해당 전공 시 유리한 점 등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했나요?

-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에 사용된 전공 구분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학과 표준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 전공소개 및 주요 영역, 연계전공 등 전공 관련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진로가이드, 고용24 학과정보, 커리어넷, 국내 주요 대학의 전공 가이드북을 참조하였습니다.
 - 주요 연계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후, 전공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보완하였습니다.
 - 관련 자격증은 고용24의 학과정보, 큐넷(Q-net) 자격정보,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자격정보,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민간자격, 취업정보 등을 수집·활용하였습니다.
- 전공기반 진출 직업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사전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공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철학·윤리학

PHILOSOPHY AND ETHICS

01

종합 요약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은 인간과 세계, 사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올바른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주요 영역 및 교과

동양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불교철학, 인도철학, 한국철학사, 동양철학방법론 등

서양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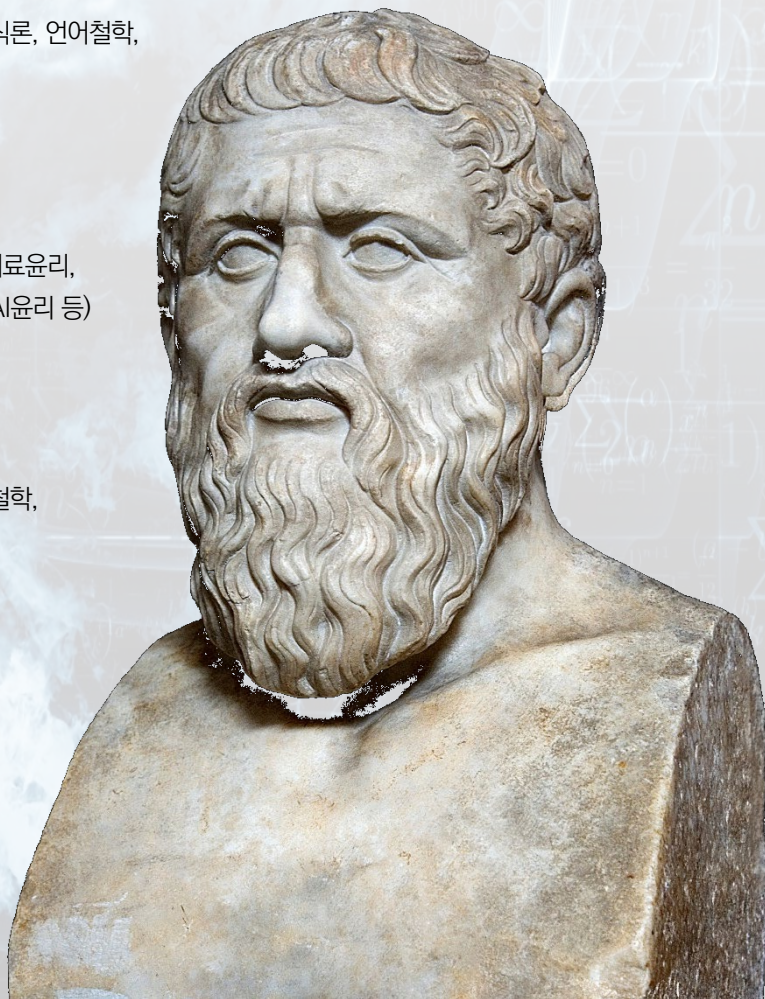
서양고대철학,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언어철학, 해석학, 논리학, 기호논리학 등

윤리학

규범윤리, 메타윤리, 응용윤리(생명의료윤리, 환경생태윤리, 기업윤리, 신경윤리, AI윤리 등)

분야철학

문화철학, 예술철학, 교육철학, 심리철학, 과학철학 등





정치외교학

정의, 인권, 공공선 등 철학·윤리학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이념과 외교정책의 도덕적 정당성을 탐구할 수 있음. 복잡한 국제 현안 속에서 가치 중심의 판단과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외교 전문가로 성장 가능함.



법학

논리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토대로 법의 근본 원리와 도덕적 기반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법 해석과 제도 설계를 이끌 수 있음. 실정법을 넘어 공정성과 인권을 중시하는 법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음.



행정학

공공성과 책임윤리를 강조하는 철학·윤리학적 관점을 통해 정책 결정과 조직 운영에서 도덕적 판단과 공익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문화 구축에 기여함.



사회복지학

인간 존엄과 정의의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실천적 윤리를 확립할 수 있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책임을 토대로 신뢰 기반의 상담과 사회복지 실천 역량을 강화함.



경영학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함. 인간 중심의 의사결정과 가치 기반 리더십을 통해 조직 내 도덕적 판단과 혁신적 사고를 결합할 수 있음.



철학·윤리학 전공 진출 직업 목록

한국고용 직업분류	연번	직업명	한 줄 요약
경영·행정· 사무직	01	공공 갈등조정사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02	노무사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자
	03	인사사무원	조직 인적자원의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배치, 전환, 퇴직, 급여 및 인사고과, 조직문화 등 인사 관련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04	노무사무원	노무사의 지휘 하에 노사를 대리하여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보고, 신청, 진술, 청구에 관한 서류작성 등 노무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05	총무사무원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자산의 매입과 처분, 행사진행, 사무환경개선 등 물적자원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자
	06	준법감시원	준법감시 부서에서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윤리강령 운영과 상시감시·보고 등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문· 사회과학 연구직	07	철학연구원	인간의 행위, 생각, 지식, 가치관, 규범, 종교, 예술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 및 근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
	07-01	인공지능 윤리전문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을 검토하여 책임 있는 인공지능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
	08	생명윤리 연구원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 인공수정, 생물복제 등과 같은 생명과학의 연구결과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
	09	법학연구원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을 위해 법률 실태, 법의식, 사법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해 조사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자

한국고용 직업분류	연번	직업명	한 줄 요약
인문· 사회과학 연구직	10	사회복지 정책연구원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
	11	언론정책 연구원	언론(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현상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언론에 관련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자
교육직	12	철학·윤리학 교수	대학에서 철학·윤리학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강의하고, 동양철학, 서양철학, 윤리학, 응용철학 등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자
	13	인문학강사	철학, 문학, 역사, 예술 등 인문학 지식을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며 교양과 사고력, 비판적 사유 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자
예술· 디자인· 방송직	14	소설가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을 구상하고 주제를 결정하여 일정 형식의 소설을 저술하는 자
	15	극작가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 주제에 맞는 대본(극본, 희곡)을 창작하거나 기존 문학작품을 연극 형식으로 각색하는 자
	16	게임 시나리오 작가	게임 개발을 위하여 게임 세계관과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구상하여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스크립트를 제작하는 자
	17	구성작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오락프로그램, 교양물 등 비드라마용 방송프로그램의 진행 원고를 작성하는 자
	18	취재기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및 정보를 텔레비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하는 자
	19	연극연출가	연극을 연출하기 위해 선정된 작품을 해석하고 연극배우들의 연기와 공연을 지휘하는 자
	20	방송책임 프로듀서	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관련 종사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자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철학·윤리학

PHILOSOPHY AND ETHICS

02

전공 개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은 인간과 세계, 사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올바른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윤리학은 동양철학, 서양철학, 윤리학, 분야철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분야는 철학의 핵심적인 학문적 탐구와 사회적 실천을 포괄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철학의 이론과 실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공 주요 영역 및 교과

영역

교과

동양철학은 유가, 도가, 불교, 인도철학 등 동양 사상의 전개와 철학적 원리를 탐구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철학적 전통과 주요 개념, 방법론을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동양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불교철학, 인도철학, 한국철학사, 동양철학방법론 등

서양철학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서양 사상의 전개와 이론적 체계를 연구하며, 존재, 인식, 언어, 논리 등 철학의 핵심 문제를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서양철학

서양고대철학,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언어철학, 해석학, 논리학, 기호논리학 등

윤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가치 판단을 다루며, 규범윤리와 메타윤리를 비롯해 생명윤리, 환경윤리, AI윤리 등 현대사회의 윤리적 쟁점을 분석하는 영역입니다.

윤리학

규범윤리, 메타윤리, 응용윤리 (생명의료윤리, 환경생태윤리, 기업윤리, 신경윤리, AI윤리 등)

분야철학은 철학의 개념과 방법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 교육, 심리, 과학 등 특정 대상과 영역을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석하는 영역입니다.

분야철학

문화철학, 예술철학, 교육철학, 심리철학, 과학철학 등

철학·윤리학 관련 주요 연계전공 분야



정치외교학

정의, 인권, 공공선 등 철학·윤리학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이념과 외교정책의 도덕적 정당성을 탐구할 수 있음. 복잡한 국제 현안 속에서 가치 중심의 판단과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외교 전문가로 성장 가능함.



법학

논리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토대로 법의 근본 원리와 도덕적 기반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법 해석과 제도 설계를 이끌 수 있음. 실정법을 넘어 공정성과 인권을 중시하는 법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음.



행정학

공공성과 책임윤리를 강조하는 철학·윤리학적 관점을 통해 정책 결정과 조직 운영에서 도덕적 판단과 공익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문화 구축에 기여함.



사회복지학

인간 존엄과 정의의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실천적 윤리를 확립할 수 있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책임을 토대로 신뢰 기반의 상담과 사회복지 실천 역량을 강화함.



경영학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함. 인간 중심의 의사결정과 가치 기반 리더십을 통해 조직 내 도덕적 판단과 혁신적 사고를 결합할 수 있음.



진출 분야 정보



공공

-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교육·문화 관련 부서, 국공립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 교육기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연장·문화재단 등 공공 문화예술기관



민간

- 비영리단체 및 NGO, 기업의 교육·기획·홍보·사회공헌 등 인문 관련 부서, 언론·출판·미디어 기관, 문화예술 및 전시·공연 운영기관, 민간 교육기관, 철학연구소 등 민간 학술 연구기관



유사학과와의 비교

구분	법학과	사회학과	종교학과
교육과정 목적	법의 원리와 제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규범적 사고를 탐구하며,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판단력과 실무 감각을 기름	사회 구조와 제도, 인간 집단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여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함	인류의 종교적 신앙과 의례, 사상 체계를 연구하며 인간의 존재 의미와 초월적 가치에 대해 탐구함
공통점	인간 사회의 도덕·규범·정의 문제를 다루며 '옳음과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중시함	인간과 사회의 관계, 가치와 윤리,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공유함	인간의 내면과 도덕, 삶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철학·윤리학과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짐
차이점	법학은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 규범의 강제성을 중시하지만, 철학·윤리학은 법의 근본적 정당성과 도덕적 기반을 탐구함	사회학은 경험적 자료와 통계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지만, 철학·윤리학은 그 이면의 '가치 원리'와 '도덕적 근거'를 탐구함	종교학은 특정 신앙과 종교 전통에 집중하지만, 철학·윤리학은 종교를 포함한 인간 행위 전반의 보편적 윤리 원리를 다룸
주요 자격	논리적 사고력, 규범 분석력, 정의 실현을 위한 비판적 판단력	사회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가치 판단 능력, 통합적 사고	인간 이해력, 상징 해석력, 윤리적·종교적 세계관의 통합적 이해
진출 분야	공공기관, 법조계, 정책연구기관, NGO 등에서 윤리·정책 자문 및 규범 해석 역할 수행	공공정책, 사회조사, 복지행정,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인간과 사회 문제 분석 및 해결	종교·문화 관련 기관, 교육기관, 상담 윤리·인성교육 분야 등에서 인간 가치와 삶의 의미를 탐구·지도

Interview

전공 교수 인터뷰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양현 교수



Q. 철학·윤리학 전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철학과 윤리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이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철학에서는 인간과 자연 혹은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윤리학은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도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철학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철학과 윤리학에서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참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Q. 철학·윤리학 전공이 다른 전공과 구별되는 강점이나 차별화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과 윤리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을 문제 삼는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메타적 사고력과 개념 분석력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가치 갈등이나 딜레마 상황에서 문제해결력, 판단력, 그리고 창의성의 발휘는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은 다양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질문을 던지는 능력, 가치 판단과 윤리적인 결정 능력, 맥락적 사고와 통합적 개념 구성 능력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철학과 윤리학을 통해서 적절하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산업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철학·윤리학 교육이나 연구 방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으로써 철학과 윤리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혜택과 동시에 수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따른 인간 존엄성 보호와 책임성의 문제, 그리고 공정성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수많은 윤리적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철학과 윤리학은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련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기술 오용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도덕적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와 관련해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학문 분야나 진출 직업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인공지능 윤리와 Data 윤리, 이를테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문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와 편향성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그것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철학 및 윤리학의 전문가가 시급하게 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첨단 기술 기업에서는 CSO (Chief Social/Ethics Officer)의 역할을 담당하는 윤리경영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윤리학의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들은 기술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위험 요소와 윤리적 방향을 예측하여 사회나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Q. AI윤리, 데이터 윤리, 생명윤리 등 새로운 산업에서의 윤리 영역이 커지고 있는데,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이러한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술과 산업 분야의 윤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입니다. 나아가 기술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안목과 함께 융합적 사고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과정 등을 이해해야 하며, 코딩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개발자 및 엔지니어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 문해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법,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이르는 다학제적 이해력과 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철학·윤리학

PHILOSOPHY AND ETHICS

03

전공기반 진출 직업 정보



가.
경영·행정·사무직

01. 공공갈등조정사

02. 노무사

03. 인사사무원

04. 노무사무원

05. 총무사무원

06. 준법감시원

01

확장

공공갈등조정사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유사명칭

공공갈등전문가, 갈등관리전문가



하는 일

- 갈등이 발생한 정책 사업 심의 및 관리가 필요한 정책의 갈등 예방 또는 해결방안 검토
- 갈등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갈등 구조 진단을 통해 잠재 이해관계자 분포 파악
- 갈등 예방과 발생 시 적용할 전략적 방향 제시
- 정책 추진 가능성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정책 수행 비용을 사전에 예방
- 의료, 환경, 소비자 등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전 준비 및 조정 동의 확보
- 갈등관리 과정에서 관련 정보 공개 기준과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 분야별 분쟁 조정 과정 또는 조정 절차 대행을 통한 합의 도출 지원
- 갈등 유형별, 사업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적용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 (조직체계의 분석 및 평가)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가 조직의 체계, 구성,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판단과 의사결정) 이득과 손실을 평가해서 결정을 내린다.

•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경영 및 행정) 사업운영, 기획, 자원배분,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생산기법에 대한 원리 등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식
-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 (상담) 개인의 신상 및 경력 혹은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상담을 하는 절차나 방법 혹은 원리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동양고전강독, 윤리학, 논리학, 응용윤리학(실천윤리학), 정치사회철학, 불교철학, 유기철학, 도가철학 등

행정학

행정학개론, 정책학개론, 조직이론, 행정법총론 등

공공정책학

공공갈등관리, 정책분석평가, 협상과 중재, 갈등영향분석 등

사회학

사회문제론, 지역사회학, 집단행동론, 사회조사방법론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모의 정책갈등조정회의 경연대회 참여
-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갈등해결 조정전문가 과정
-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과정
-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과정 등

● 일경험

- 주민참여 및 민원 관련 부서 인턴
- 정책·사회조사 관련 연구원 조사보조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갈등조정 관련 민간자격 등

- **자기 주도적 활동**

- 주민설명회·공청회·정책토론회 등 공공정책 참여 현장 참관 및 기록
- 지역 이슈에 대한 문제 구조화 연습
- 갈등관리 관련 자료 번역 및 요약 등

- **진출 분야**

- 1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정책 관련 부서
- 2 공공정책 연구기관
- 3 컨설팅사



관련 정보처

(국내)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국내) 한국갈등해결센터

<http://www.adrcenter.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공공갈등조정사는 채용 과정에서 행정 경력보다 갈등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흐름을 읽고, 주민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계를 구조화하는 능력을 더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재학 중에는 주민설명회·공청회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맞서는 현장을 관찰하며, 쟁점별 주장뿐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전제와 경험, 잠재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해 스스로 정리해보는 경험이 실제 업무 이해와 연결됩니다. 또한 사회조사분석사, SPSS·NVivo 등 조사·분석 도구 활용 경험이나 갈등관리·중재 교육 이수도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절차적 정의·공정성·투명성·정보공개와 같은 공공 갈등의 핵심 기준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조정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에서는 갈등 사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했고, 어떤 접근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원자가 돋보이므로, 성과보다 가치 해석의 기준과 논증의 흐름, 절차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Interview

공공갈등조정사/연구소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국내외 공공갈등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정부기관과 주민사회 간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사회와 국가기관의 갈등 현안을 공론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과 자문, 관련 용역,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위원장 활동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공공 인프라(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에너지·환경 시설, 군사·안보 시설, 교통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 조정과 해결에 참여해 왔으며, 도시 개발 및 생활 환경 관련 지역 갈등 사안에도 폭넓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오전에는 각종 연구활동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필 활동을 주로 합니다.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갈등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합니다.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외부 활동이 많아 실제 갈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관계 기관을 직접 만나며 일을 진행합니다. 컨설팅은 대부분 지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장이 잦고, 연구소와 현장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조정과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아무래도 각종 갈등 현장에서 문제가 실제로 해결될 때입니다. 문서 작업이나 연구 단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현장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상황이 움직이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대립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대화가 다시 시작되거나,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정 자체가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힘들었던 일] 현장에서 주민들이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현장 방문과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시행 부서 역시 시기와 목표를 조정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갈등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앞으로 정부는 주민 주도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공론화 관련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초단위는 물론, 광역, 국가단위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법과 제도 마련의 일환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지난 20년간 이 분야 종사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분야에 종사하려는 초년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기본적으로 역사, 사회, 행정, 법률, 정치, 경제, 심리 등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사보다는 석사과정에서 이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대 명제 아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 사이, 정부와 주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교과나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집단도 이중 하나의 중요한 연구테마입니다. 국내는 해외와 달리 오랜 역사, 다양한 경험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결국 인간사회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수/부전공 등] 석사, 박사과정을 지나며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의 공공갈등은 대부분 농촌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는 정부사업의 경우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이라는 타당성조사에서 결국은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철학적 교훈이 뒷받침되며 경제적 인간에 대한 탐구와 왜 반발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기초영역을 다지면 이후 타 분야로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야만 이해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학위 취득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지지 기반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관련 자격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용역 수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결국 공공사업 실무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책이나 자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대학 시절 난공동 재개발과 관련해 토지 문제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설명을 접하면서, 이론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개발을 당연한 변화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면에 다양한 가치와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직접 다루고 해결하고자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곤충이나 생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생태와 인간 사회가 맞닿는 지점에 대한 기존의 관심이 본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학업과 연구 과정을 거치며 공공갈등이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가 응축된 문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가장 중요하게 준비한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민과의 접점, 공직사회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해당 분야 내부에서의 관계를 차근차근 만들어 갔습니다. 분야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근무한 경험과 이전에 정부 연구원으로 일하며 정책 및 개발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입직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5급)에 지원할 때에는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과 실적이 실제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직업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입직하기보다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개발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공공갈등전문가의 경력개발 경로는 현장에서 축적한 갈등조정과 공론화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의 범위와 책임을 확장해 가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쌓이면 갈등관리와 공론화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학위 취득 이후에는 대학에서 강의와 교육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갈등 조정, 공론화, 정책 자문을 더욱 책임 있는 위치에서 수행하는 방향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국내 공공갈등 현장을 중심으로 실무 경험을 축적하면서 조정, 총괄, 연구, 교육 영역으로 전문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진출 경로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다루는 일이 쉽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성과와 해결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책이나 이론에서 제시하는 논리보다는, 현장에서의 판단과 조정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끈질김과 호기심,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경청의 자세,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만큼 인간 사회에 가까운 영역이며, 해결을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움직일 수 있는 태도, 즉 이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적 마인드는 이 분야에 들어오기 전 기본 덕목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갈등조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전공 공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면 이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 개인을 넘어 사회로 범위를 넓히면, 다양한 집단과 관계, 그리고 사회가 가진 생각과 특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은 이러한 집단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며, 갈등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줍니다. 갈등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얽힌 실타래의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출구를 모색하게 됩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는 당장의 결과보다는, 스스로 오래 붙잡고 탐구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길 권합니다. 철학·윤리학에서 다루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질문들은 이후 진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기초를 갖추는 것이 이후 어떤 분야로 나아가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EMO

02

확장

노무사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자

유사명칭

공인노무사, 노무관리사

관련직업

노사관계전문가



하는 일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산업재해 신청, 임금체불 진정, 체당금 신청 관련 대리업무 수행
-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 수행
- 인사관리컨설팅, 조직역량개발, 조직문화개선 등 경영조직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 급여 및 4대 보험 사무대행 및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 수행
-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 자문
-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점검 및 자문 수행
-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중소기업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모성보호관련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신청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말하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한다.
-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 (협상) 사람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혀 합의점을 찾는다.

• 지식

-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 (인사) 채용, 훈련, 급여, 노사관계와 같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지식
- (상담) 개인의 신상 및 경력 혹은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상담을 하는 절차나 방법 혹은 원리에 관한 지식
- (교육 및 훈련)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이론에 관한 지식
- (경영 및 행정) 사업운영, 기획, 자원배분,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생산기법에 대한 원리 등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동양고전강독, 윤리학, 논리학, 응용윤리학(실천윤리학), 정치사회철학, 불교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법철학 등

법학

노동법, 근로기준법, 민법총칙, 행정법총론, 사회보장법 등

경영학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론, 조직행동론, 보상관리, 노동경제론 등

행정학

행정법, 조직이론, 공공관리론, 정책학개론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노동법 연구회 및 인사(HR) 관련 학술 동아리
-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특강 및 세미나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노동법, 행정소송 실무 관련 직업훈련과정 근로기준법, 인사노무관리 실무 사례 직업훈련과정 등

● 일경험

- 노무 법인 및 노무사사무소 인턴 또는 실무 보조 경험
- 기업 인사·노무 부서 근로계약 및 근태·노무 행정 지원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공인노무사
- ✓ 선택: 경영지도사, 직업상담사

- **자기 주도적 활동**

- 노동위원회·법원 판례 조사, 쟁점 요약 및 사례 분석
- 기업 취업규칙, 인사규정 수집·비교·분석 프로젝트 수행
- 노동·인사 정책 세미나·공청회 참석, 주요 이슈 분석 리포트 작성 등

- **진출 분야**

- | | |
|---|-------------------------|
| 1 | 노무법인 |
| 2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노무 관련 부서 |
| 3 |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연구소 |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공인노무사회

<https://www.kcplaa.or.kr/>



(국내) 중앙노동위원회

<https://nlrc.go.kr/nlrc/main/main.do>



(국내) Q-Net 공인노무사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ld=05>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노무사는 법령 암기보다 노동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어떻게 구조화해 해석하는지가 핵심 역량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재학 중에는 부당해고·징계 등 주요 판례를 지속적으로 습득하면서 '사실관계-쟁점-법적 판단'의 흐름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연습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비교·분석해보는 작업 역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리 전개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노동법, 민법과 함께 인사·조직 관련 교과를 수강하거나 인사·노무 행정 경험을 쌓아두면 사건 처리 절차와 현장 관행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노무사무소나 기업 인사팀 인턴 경험은 상담, 문서 작성, 기간별 절차 진행을 실제로 체득하는 데 큰 강점이 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책임·정당성·공정성 같은 판단 기준을 이론적으로 다뤄온 배경 덕분에 의견서 작성이나 사건 정리에서 논리적 깊이가 드러나고, 상담 과정에서도 상대의 감정과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능력이 비교적 돋보입니다. 지원 단계에서는 자격증 취득 여부를 나열하기보다, 어떤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했고 판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는 편이 전문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Interview

노무사/노무법인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는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해 노동자와 노동조합 또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상담, 자문, 교육, 조정 및 협상, 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노무사의 여러 업무 가운데 주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상담, 교육, 사건 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으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건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건의 인정을 위해 서면 작성, 진술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노무사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사건 출석 일정이 있는 경우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심의회위원회 등에 참석하며, 노동법 교육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이나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문 중인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이나 집회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을 위해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출장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서 대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신청 서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사건 일정과 외부 일정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일정한 루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장이 잦은 시기에는 주중에 마치지 못한 서면을 정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서면 작성 외에도 사건의 쟁점과 논리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시로 들어오는 상담 전화에 대응하는 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며 하루를 보내는 편입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등의 이유로 자살하신 분의 산재 사건을 유족들로부터 대리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안의 무게가 큰 만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께서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 어렵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되었고, 그 소식을 전해 드렸을 때 고인의 아버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을 선택한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일] 제가 상대하는 분들 대부분은 임금체불, 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피해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이 다소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연차가 쌓이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노련해졌고,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비교적 줄어드는 편입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노동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계속 개정된다는 것은 노사 양측 모두에서 노무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함께 확대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문가로서 노무사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노조법 개정 등 주요 법률 변화가 이어지면서 노사관계 전반에서 노무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과 고용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법 개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무사의 역할과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저는 철학과 대학원 재학 중 진로를 노무사로 전환했습니다. 노무사 시험 준비를 위해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노사관계론’ 수업을 수강한 적도 있으나, 시험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철학과 학부 시절 공부했던 ‘논리학’이었습니다.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논리학은 큰 도움이 되었고, 현재 업무에서도 이우서 등 서면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법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서면으로 설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 서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고 오류를 드러내는 방식의 글쓰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철학·윤리학 전공을 통해 훈련된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역량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철학과 학부 과정에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시험 과목과 겹치는 노동법·민법·행정소송법, 인사관리론·조직행동론 등의 과목을 타 전공에서 보완적으로 수강하고, 철학과에서는 논리학과 서양철학 과목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대학 시절 노동 투쟁 현장에 연대하며 직접 현장을 경험한 활동들이 이후 진로 선택과 업무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동 현장의 현실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노무사로 활동하며 노동계 쪽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또한 노무사의 시험 과목과 활동 영역이 노동법과 인사·조직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련 학회 활동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며 해당 분야의 흐름을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과 외 활동을 통해 현장 감각과 문제의식을 함께 키운 경험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노무사가 되기 전에는 대학을 졸업한 뒤 보습학원에서 사회나 논술 강사로 활동하며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철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뒤 대학에서 강의하는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동료 강사들이 해고되는 상황도 여러 차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 역시 계약이 종료되는 경험을 하면서, 노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노동과 법의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당시 다니던 대학원 과정은 석사 수료로 마무리한 뒤 노무사 시험 준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간 준비 끝에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역할에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상담과 사건 대리를 수행하는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노무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은 노동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쌓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시험에 대비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면에 구성하는 연습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첫째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뒤, 이후에는 노동법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답안 구성 능력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강점과 보완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 자격 취득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최근에는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노무법인에서 채용 노무사로 2~3년 정도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대기업의 인사·노무팀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로 다른 자격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로스쿨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고, 그 외에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처럼 산업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넓어지는 편입니다.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는 법학과에서 노동법을 전공하거나, 경영학과에서 인사·조직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건대학원에 진학해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노무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형태로 진출하거나, 언론사에서 노동 전문 기자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점,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대리를 주로 하는 노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고충을 듣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상대측과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애정이 있어야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물론 상대측과도 다시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이후에는 또 다른 의뢰인과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처럼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한 노무법인에서 여러 노무사와 함께 근무하더라도, 개별 사건은 한 명의 담당 노무사가 주도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께 갖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논리적 글쓰기 훈련이 되어 있는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글쓰기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업이나 2차 논술형 시험을 치르는 전문자격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부 재학 중에는 논리학이나 서양철학 수업을 충실히 듣고, 다양한 방식으로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해두는 것이 이후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철학과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노무사 시험 준비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서양철학 텍스트에서 익힌 논리 구조가 법학에서 요구하는 논리 전개 방식과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법률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용어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철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대체로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인사·노무관리론이나 경영조직론처럼 사람과 조직을 다루는 과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학부 과정에서 철학·윤리학 전공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시험에 필요한 일부 과목만 타 전공 수업으로 보완한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

확장

인사사무원



조직 인적자원의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배치, 전환, 퇴직, 급여 및
인사고과, 조직문화 등 인사 관련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유사명칭

인사관리사무원

관련직업

복리후생사무원



하는 일

-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채용공고 게시 및 채용절차 진행
- 채용 확정자 근로조건 협의 및 현업부서 배치
-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직무조사 및 직무분석 수행
- 인사기록과 급여·근태 등 기본 인사데이터 관리
- 인사평가 대상 확정 및 시행, 개인별 예정등급 인사위원회 상정
- 조직개편, 전보 등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정리·결재 및 공고·시행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인적자원 관리)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능력을 개발하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
- (사람 파악) 타인의 반응을 파악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말하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지식

- (인사) 채용, 훈련, 급여, 노사관계와 같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지식
- (교육 및 훈련)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이론에 관한 지식
- (사무) 워드 프로세스, 문서처리 및 기타 다른 사무절차에 관한 지식
-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 (경영 및 행정) 사업운영, 기획, 자원배분,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생산기법에 대한 원리 등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동양고전강독, 윤리학, 논리학, 응용윤리학(실천윤리학), 정치사회철학, 불교철학, 유기철학, 도가철학 등

경영학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론, 조직행동론, 인사관리론 등

법학

노동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민법총칙, 행정법총론 등

행정학

조직이론, 인사행정론, 행정법총론, 정책학개론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인적자원관리, 채용 및 평가 등 인사 분야 특강
- 현직자 직무특강 및 멘토링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인사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방법 관련 훈련과정
- 갈등관리 역량과 혁신 관련 훈련과정
- 조직문화와 비즈니스 실무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기업 인사·총무 부서에서 채용·근태 등을 담당하는 인사·총무 인턴
- 기업에서 근로계약·문서 관리 등을 지원하는 HR 운영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전산회계운용사, ERP정보관리사 관련 민간자격 등

- **자기 주도적 활동**

- 채용 공고, 직무기술서 수집, 직무요건 및 채용과정 분석
- 학내·외 프로젝트에서 구성원 근태, 역할 배분, 성과 기록 관리 경험 축적
- 실제 기업의 평가·보상·교육제도 사례 조사, 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안 노트 작성 등

- **진출 분야**

- 1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의 인사·행정 관련 부서(HR, 인사팀, 교육팀 등)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s://www.kefplaza.com/>



(국내)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http://www.kahrm.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인사사무원은 채용과 배치, 평가와 보상 등 사람을 움직이는 제도 전반을 다루는 역할이어서, 단순한 행정 처리 능력보다 제도와 조직을 함께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대학 시기에는 여러 기업의 직무기술서나 평가, 보상 자료를 비교하며 어떤 역량과 기준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지 정리해보거나, 팀 프로젝트에서 역할 분담과 성과 기준을 설계해본 경험이 인사 업무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사팀 인턴십을 통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평가 자료, 근태 데이터가 어떤 절차로 관리되는지 실제 흐름을 경험해두면 실무 적응이 빨라집니다. 또한 기본 전산 역량은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좌우하므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산회계 등 기초 역량을 갖춰두면 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공정성, 정당성 같은 판단 기준을 논리적으로 다뤄온 덕분에 평가 자료 정리나 제도 설명 과정에서 설득력을 드러내기 유리합니다. 채용에서는 의지의 표현보다, 직무 요구를 어떻게 분석했고 인사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의 질이 중요합니다.

Interview

인사사무원/제조기업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제약회사 인사팀에서 인사기획과 인사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인사제도가 회사의 전략과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급·평가·보상 체계를 설계·정비하고, 연간 인사 운영 캘린더를 수립하여 인사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직급 체계 정비,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 성과평가 기획 및 실행, 취업규칙·각종 인사 규정 정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대 수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표와 역할 정의서를 정리하고, 평가·보상과 연계되도록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저는 보통 오전에는 인사운영·관리 중심, 오후에는 기획·제도 개선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후 가장 먼저 전일 업무관련 메일과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슈를 정리합니다. 이후 당일 일정에 맞춰 미팅, 교육 일정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나 양식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또한 구성원 문의에 답변하고, 시스템(전자결재 등)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오후에는 인사기획과 제도 운영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팀장 및 경영진과의 미팅을 통해 최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평가·직급체계·보상체계와 관련된 개선 과제를 정리합니다. 평가 양식이나 가이드 문서를 정비하고, 업무분장표·역할정의서 등의 인사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인사규정이나 프로세스를 현행화하는 일도 이 시간대에 진행합니다. 하루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진행 중인 인사 프로젝트들의 상태를 정리하고, 다음 날 우선순위를 정해두어 인사 업무가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저는 회사에 인사제도를 처음 도입·정비했던 경험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조직 내 역할과 직급이 모호해 직원들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에 대한 갈등이 잦았는데, 직급·직무체계와 평가·보상 연계를 정리하고, 업무분장표와 역할정의서를 함께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팀장과 구성원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명확해졌고, “이제야 내가 뭘 잘하면 인정받는지 알겠다”, “일이 덜 새고,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일이 줄었다”는 피드백을 들었을 때 인사 업무가 조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일]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할 때 일부 구성원의 거센 저항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특히 연차가 많거나 기존 방식에 익숙한 구성원일수록 평가·보상 체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국 우리 보고 더 하라는 거 아니냐”는 불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왜 이 변화가 필요한지,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여러 차례 1:1 및 소그룹 미팅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과정은 길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지만, 시간이 지나 일부 구성원이 “초반엔 불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힘들었던 만큼 인사 업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인사 직무가 인공지능을 끼고 일하는 방식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문 문항 설계, 인사 규정 초안 작성 등은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성과 데이터와 근태, 협업 도구 기록 등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이직 가능성, 번아웃 위험, 교육이 필요한 영역 등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는 분석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와 현장을 함께 해석하는 업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시장 측면에서 보면, 단순 서류 작성, 기계적인 안내, 형식적인 평가 정리 등 단순·반복적인 인사실무는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큼니다. 대신,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수많은 정보 중에서 회사 상황에 맞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제도로 옮길지 결정하는 기획 능력, 그리고 구성원과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는 관계 역량이 인사직무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인사업무를 하면서 인공지능 도구를 적극적으로 익히고, 한편으로는 조직문화, 갈등관리, 리더십 코칭 등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일에 역량을 더욱 키워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 전공은 인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 역량을 많이 담고 있는 전공입니다. 인사제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공정성’과 ‘정당성’인데, 철학·윤리학은 바로 그 공정성과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무엇이 옳은가, 정의로운가를 끝까지 질문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인사와의 접점을 찾으려면, 수업자료와 논문·텍스트를 읽을 때 “이 내용이 실제 조직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보상하고, 징계하고, 보호하는 기준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론’을 배울 때는 평가·보상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지,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배울 때는 조직에서 리더와 인사 상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인권·자유’를 다룰 때는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통제, 감시와 같은 이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철학·윤리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인사담당자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때 “왜 이게 옳은 방식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만들어주는 전공이 될 수 있고, 그 점에서 인사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부전공 등] 저는 호텔관광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이 전공도 겉으로 보기에는 인사기획이나 인사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관광 산업이 사람과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업종이다 보니, 전공에서 자연스럽게 고객 경험, 서비스 품질, 조직 내 역할분담, 팀워크와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지금 인사 업무를 하면서, 구성원을 단순한 ‘인력’이 아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주체로 바라보고, 현장의 경험을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 현재 직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논문과 연구자료를 탐색하면서 사고를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호텔·관광 분야에서 다루는 조직문화, 감정노동, 서비스 조직의 리더십, 이직 의도 등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보며, 이를 인사 제도 설계와 평가, 교육 방향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전공과 직무를 억지로 분리하기보다, 사람이 일하는 환경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관점으로 인사업무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인사담당자로서의 감점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대학 시절, 비교과 활동이나 인턴십, 자격증 취득보다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현장을 배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레스토랑 서빙, 만화방 및 PC방 운영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하면서, 연령대와 배경이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인원구조를 파악하는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일을 움직이는지, 어떤 사람들의 조합에서 갈등이 생기는지를 몸으로 느끼며 배웠고, 이는 지금 조직 내 인사 구조를 볼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고객과 직접 마주하는 최전방 업무였기 때문에, 늘 고객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경험은 현재 인사업무를 하면서, 고객을 외부 고객이 아니라 직원이라는 내부 고객으로 치환해 생각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제도와 공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현장에서 어떤 감정과 불편이 생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시에, 불규칙한 근무 환경과 민원 응대 경험 덕분에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는 내성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인사업무 특성상 다양한 성향의 구성원을 상대하고, 때로는 민감한 이슈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 속에서도 감정을 과하게 소비하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는 힘을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첫 직장에서 인사담당자의 후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막 신입으로 입사한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인사업무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라는 업무가 생소했고, 급여, 근태, 계약서, 입·퇴사 처리 등 하나하나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일을 배우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는 점이 점점 흥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일이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니즈와 이슈를 해결해 주고, 회사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이라는 걸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매했던 평가 기준을 정리해 주거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주고, 갈등이 잦던 팀의 역할과 책임을 정리해 줬을 때 구성원들이 “이제야 좀 납득이 된다”,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다”라고 말해 줄 때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했지만, 지금은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여러 ‘막힘’을 풀어 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인사 업무가 제게 아주 잘 맞는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계속 선택하고, 더 잘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이직 과정에서 주로 취업포털과 지인 소개를 통해 수시 채용 공고를 확인했고, 회사별 절차에 따라 인적성 검사와 면접 전형을 거쳐 입사했습니다. 입직 경로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인사담당자로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자격증 취득보다는 경력기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채용, 평가,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식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수행한 업무를 성과와 함께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명 채용이라고만 적기보다, 핵심 인재와 일반 인재, 성장 가능 인재를 어떻게 구분해 선별하고 관리했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평가·보상, 제도 설계, 조직관리 경험 역시 업무 목록이 아니라 조직에 어떤 변화와 효과를 만들었는지를 중심으로 차별화해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험을 인사업무 관점에서 재해석해 자기소개서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아르바이트 경험 속에서 겪었던 잦은 입·퇴사, 인수인계의 혼란, 갈등 상황을 단순한 에피소드로 남기지 않고, 회사 운영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줄이고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 구성원의 빠른 적응을 돕는 아이디어나, 퇴사 시 정리하면 좋을 내용을 인수인계서 양식으로 정리해 보았고, 이러한 고민과 시도를 문서나 간단한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은 아니었지만, 인사담당자로서 현장을 바라보고 문제를 고민해 온 흔적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었고, 실제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인사기획·인사실무 경험은 향후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 가능한 기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사 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팀장, 조직문화 담당, 평가·보상 전문가(C&B: Compensation and Benefits) 등의 역할로 성장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사·조직을 총괄하는 임원까지 경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 시야를 넓히면, 기업 내부 인사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 컨설팅, 교육·코칭, 채용·헤드헌팅, 노동·노무 관련 전문 영역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결국 조직에서 사람이 일하는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진출 방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현장 경험과 이론·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 내에서 보다 전략적인 인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 조직심리, 경영학 관련 석사 과정을 고려할 수 있고, 노동법·노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공인노무사 자격이나 직무 분석·평가 관련 교육도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기업이나 해외 지사를 염두에 둔다면 외국어 역량과 해외 근무·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인사 분야에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엑셀, 통계, 인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도구 활용 역량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업무의 특성상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량,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성을 설명하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코칭·퍼실리테이션, 리더십·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인사 직무는 단순한 관리 역할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준비하기에 따라 조직과 사람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며, 저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역량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거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제가 느끼는 인사 직무의 가장 큰 장점은 눈에 보이는 변화와 영향력입니다. 인사제도, 평가보상, 채용, 조직문화와 같은 영역은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애매했던 규정이 정리되고, 평가 기준이 명확해지며, 각자의 역할이 정돈되면서 조직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특히 구성원의 불편이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슈를 제도나 프로세스로 정리했을 때, 실제로 업무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반응을 들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인사는 회사 내 핵심 관리 직무 중 하나로, 경영진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조직의 방향과 인력 운영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전략과 재무 구조, 예를 들어 매출 구조나 인건비 구조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며, 경력이 쌓일수록 조직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를 갖게 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구성원과 경영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역할인 만큼,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상 인사 직무는 몇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람이 일하는 구조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사람, 공정성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숫자, 규정, 문서를 다루는 일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이나 불만 제기를 접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구조와 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직무는 지식, 기술, 태도가 함께 요구되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과 인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엑셀과 인사정보시스템(HRIS: 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을 다루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경청하는 태도,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책임감,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를 존중의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용기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사람과 조직 사이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 의미를 느끼는 사람에게 인사 직무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끝까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그것이 정말 옳은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말과 글로 설명하는 훈련이 이 전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나 유행에 휘둘리기보다 개념과 전제, 근거를 차분히 따져보는 사고력이 길러지고, 에세이·발표·토론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판단을 구조화해 설명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무엇이 이익인지뿐 아니라 무엇이 옳고 공정한지까지 함께 고민하게 된다는 점 역시 이 전공의 중요한 강점이며, 이렇게 형성된 사고력과 윤리적 감수성은 이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다만 철학·윤리학은 전공과 직업이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 수업만 따라간다고 자동으로 특정 직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 전공을 통해 기른 사고의 힘을 어떤 분야와 현장에 연결할 것인지를 스스로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인턴·아르바이트,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현실과 맞닿은 경험을 병행하면서 이 전공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직무의 관점에서 보면 철학·윤리학은 생각보다 잘 맞는 전공입니다. 인사업무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조직 안에서 무엇을 공정하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다루는 일인데, 이는 철학과 윤리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채용과 평가에서의 공정성, 보상 기준의 정당성, 징계나 인사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시 문제의 한계,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평가 과정에서의 윤리 문제 등 인사 현장에서 마주치는 많은 상황에는 철학·윤리학에서 다루는 정의, 권리, 책임, 윤리적 딜레마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의론과 분배 정의는 평가·보상·승진 기준을 설계할 때, 의무론·공리주의·덕 윤리는 징계나 이해관계 충돌, 조직 내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고민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권·자유·존엄성에 대한 논의는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통제나 감정노동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윤리적 딜레마 사례는 성과와 복지, 실적과 공정성 사이에서 HR과 리더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갈등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평가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술·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이 내용이 실제 조직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보상하며 보호하고 조정하는 기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한다면, 철학·윤리학은 추상적인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실무적인 언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철학·윤리학은 취업과 거리가 먼 전공이 아니라, 잘 연결하면 인사처럼 사람과 제도를 다루는 직무에서 깊이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선택이 곧 직업을 결정짓지는 않지만, 철학·윤리학을 선택한다면 생각하는 힘과 판단 기준을 최대한 단단히 다져 두고, 이후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 그 힘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워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Interview

인사사무원/정보서비스 기업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정보서비스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의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 함께 일하다가 떠나기까지의 전 과정을 옆에서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조금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용과 온보딩, 즉 입사 초기 적응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와 잘 맞을지 고민하며 채용 계획을 세우고, 채용 공고를 기획·운영합니다. 서류 및 면접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도 인사팀의 역할이며, 최종 합격 이후에는 새로 입사한 직원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문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등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근태·급여·인사 기록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입·퇴사 정보, 보직 변경, 휴가 사용, 근무 시간 등을 시스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달 급여가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일 역시 인사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평가·보상, 즉 성과관리 영역입니다. 연 1회 또는 여러 차례 진행되는 성과평가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평가 결과가 승진, 연봉 조정, 성과급 등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율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또한 교육과 경력개발 지원 업무도 담당합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 리더십 교육, 법정 필수 교육 등을 기획합니다. 회사의 방향성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복리후생과 조직문화 영역도 인사팀의 주요 업무입니다. 휴가 제도, 유연근무, 경조사 지원, 워크숍이나 종무식과 같은 사내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며, 구성원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규정·조직 운영에 대한 자문 역할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회사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고, 경영진이나 현장 리더들이 사람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인사팀은 사람과 조직이 함께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며, 저는 그 안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인사 업무는 회사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흐름은 비슷합니다. 하루를 나눠 보면 보통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전날과 당일에 들어온 인사 관련 요청을 먼저 정리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휴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입사와 퇴사 예정자나 조직 변경 사항이 있는지 메일과 시스템에서 체크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슈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 바로 대응합니다. 급여가 잘못 반영된 오류나 인사 민원 같은 건 그날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 중에는 팀 내 회의나 부서 간 회의가 잡혀 있는 편입니다. 채용이 진행 중인 시기라면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 일정을 조율하며 면접관 브리핑을 준비합니다. 평가 시즌에는 평가 일정 안내와 시스템 사용 안내를 하고, 리더 대상 설명회도 준비합니다.

오후에는 비교적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정산 자료를 정리하거나 평가와 보상 제도 개편안, 교육 기획안, 복리후생 제도 개선안을 작성합니다. 구성원 상담이나 면담이 있는 날에는 그 시간을 비워 두고, 직원들의 고민을 듣고 제도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또 인사 업무는 하루 단위뿐 아니라 월, 분기, 연 단위 리듬도 있습니다. 월말에는 급여 확정, 분기에는 교육과 제도 점검, 연말과 연초에는 평가와 승진, 다음 해 인력과 인건비 계획 같은 큰 흐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팀은 오늘 처리할 일과 몇 달 뒤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일을 항상 함께 보고 일하는 편입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인사 제도가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때입니다. 한 번은 회사 내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유연근무제와 돌봄 상황을 고려한 근무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습다. 그런데 몇 달 뒤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 직원이 “퇴사를 고민했었는데, 이 제도 덕분에 아이 돌봄과 일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보다 훨씬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사라는 일이 단순히 서류나 규정을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다음 선택과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일]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은 누군가에게 불가피하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해야 할 때였습니다. 성과가 장기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승진 보류나 보상 조정과 같은 인사 결정을 안내해야 했던 면담이 기억에 남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당황하거나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 감정을 마주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과 감정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인사 담당자로서 회사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역할과, 한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역할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는 단순히 결과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러한 대화를 통해 구성원이 다시 방향을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인사 업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앞으로 인사 분야는 기록과 행정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사람을 함께 바라보는 기획·전략 업무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의 영향입니다. 과거에는 출퇴근을 수기로 관리하고 엑셀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근태·급여·평가·교육 등 대부분의 인사 업무가 인사시스템과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는 역할보다는, 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를 해석하고 이 데이터가 회사와 구성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읽어내는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동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직장 내 괴롭힘,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강화되면서, 인사는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회사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더 많이 맡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모든 법을 외워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과 제도가 만나는 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조직문화와 구성원 경험, 즉 EX(Employee Experienc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사팀이 규정을 관리하는 부서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일에 몰입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채용 브랜딩, 신규 입사자의 초기 적응 설계, 리더십 교육, 조직문화 진단 등 구성원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일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인사 분야를 목표로 하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몇 가지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태도, 설문 결과나 인건비, 각종 지표처럼 숫자와 데이터를 부담 없이 다뤄보려는 자세, 그리고 법과 제도의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회사가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 시선을 갖고 있다면, 인사 직무와 잘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사 직무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분야이지만, 동시에 어떤 조직에도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경험을 쌓아간다면 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제가 생각하는 이 업무의 본질은 사람과 제도 사이에서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설명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 직업은 철학·윤리학 전공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철학·윤리학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공정한가, 어떤 선택이 정당한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들입니다. 인사·조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성과평가나 보상 기준을 정할 때, 인사이동·채용·징계처럼 민감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혹은 노동법·내부 규정·조직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을 조정할 때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결정이 실제로 공정한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과정 자체가 철학·윤리학에서 익힌 윤리적 사고와 가치 판단 능력이 실무에서 활용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교과에서 배운 내용 역시 입직 단계부터 현재의 업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학, 현대사회윤리, 사회윤리와 인권과 같은 과목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과정에서 공정성, 책임, 인권에 대한 질문에 제 기준과 생각을 분명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현재 업무에서는 평가보상이나 징계, 노사 이슈를 다룰 때 정당성과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논리학과 비판적 사고, 글쓰기 관련 과목들은 입직 과정에서는 에세이형 평가나 발표 면접에서 주장-근거-결론을 구조화해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현재는 제도 개편안, 규정 개정안, 임원 보고서 등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하고 설득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학사나 철학입문과 같은 기초 이론 과목들은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과 인간관을 이해하거나 조직의 미션·비전·핵심가치를 설계할 때 하나의 배경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례를 보아도 전공과 직무의 연계성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공기관에서 인권·윤리 업무를 담당하며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역할, 기업의 윤리·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넘어 조직 문화와 가치에 미치는 메시지까지 고려하는 역할, 리더십이나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분야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기준을 세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역할 등에서 철학·윤리학의 강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윤리학에서 길러지는 질문하는 태도, 논리적 사고,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은 특정 직업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 제도를 다루는 다양한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교과 활동 외에도 사람을 관찰하고 대화하는 경험, 실제 조직을 내부에서 경험해 본 활동,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이 현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학 시절에는 상담·토론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갈등 상황에서 누가 맞는지를 판단하기보다 각자가 어떤 전제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인사·조직 업무에서 면담을 진행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고 피드백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을 통해 실제 회사 운영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채용 서류 정리, 교육 참석자 관리, 회의 자료 준비 등을 보조하며, 하나의 제도나 규정이 구성원의 근로조건과 감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인사 업무를 바라볼 때 제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 역시 실무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준비하며 재무제표 구조와 비용, 특히 인건비가 경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인건비 분석이나 예산 수립 시 숫자를 보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셀과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은 인력 현황, 평가·보상, 근태 등 인사 데이터를 정리·분석하고 HR 지표를 설계하는 데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HRM(Human Resources Management) 전문가' 자격증을 통해 인사제도, 평가·보상, 교육, 노무 전반의 기본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강사 양성과정과 협회 자격증 이수를 통해 교육 기획, 교안 작성,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훈련한 경험은 이후 사내 교육이나 제도 설명회, 경영·인사 관련 발표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아리 활동, 인턴십과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자격증 준비 과정이 서로 연결되면서, 현재의 인사·조직 업무를 사람, 숫자, 제도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맡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언젠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풀어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이후 여러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의 양이나 난이도보다도 불명확한 기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대우, 그리고 소통의 부재로 인해 더 큰 피로를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성향보다는 제도와 문화, 그리고 리더십이 설계되는 방식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인턴십에서 인사 담당자의 업무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채용, 평가, 교육, 조직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직 전체의 방향과 구성원들의 경험을 동시에 바꾸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사라는 직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개인의 고충을 그때그때 들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덜 상처받고 더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해졌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입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온라인 취업 플랫폼과 학교의 경력개발센터를 주요 채널로 활용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인사·조직 관련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각 공고에 평가·보상, 교육, 조직문화, 노무 등 어떤 업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비교하며 지원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는 동아리와 스터디 활동을 통해 함께 진행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제가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서는 단순히 사람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사람과 조직을 바라보고 싶은지를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입직은 수시채용 형태로 인턴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 직무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HRM(Human Resources Management) 전문가' 자격증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취득하며 인사제도, 평가·보상, 교육, 노무 전반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했고, 회계 자격증과 엑셀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며 숫자와 데이터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이후 인건비 분석이나 인사 데이터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사 양성과정과 협회 자격증을 이수하며 발표와 교육 역량을 키웠고, 이는 면접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과제를 수행할 때 내용을 구조적으로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입직 단계에서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앞으로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비교적 일관된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인사·조직 업무는 한 회사 안에서만 머무르는 직업이 아니라, 이후 여러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험을 쌓아가면서 기업 내부에서는 평가·보상, 인력 운영, 조직문화, 교육, 노무 등 특정 영역의 전문가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사 담당 임원(CHRO: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조직문화 책임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윤리경영 담당자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기업 외부로 시야를 넓히면 HR 컨설턴트, 조직·HR 전문 강사, 코치·퍼실리테이터,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인사·조직 관련 연구원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이나 노동대학원 등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인사·조직, 노동, 윤리 분야의 연구자나 교수로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맡고 있는 직무에서 현장 경험을 깊이 있게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채용, 평가, 보상, 조직문화, 노사 이슈를 다루면서 사람과 제도가 만나는 지점을 몸으로 익히는 경험은 이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큰 자산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인사·조직, 노동법, 경영학, 윤리·철학 등을 중심으로 한 석·박사 과정을 통해 연구나 교육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과 역량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회계·재무 이해와 엑셀 등 데이터 처리 능력, 인사 관련 자격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HRM(Human Resources Management) 전문가' 자격과 같은 과정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실제 업무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또한 강사 양성과정이나 관련 협회 자격증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강의,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키워두면 향후 사내 교육, 리더십 과정, 외부 특강 등으로 역할을 확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영어 등 외국어 능력과 해외 근무·연수 경험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거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의미가 큼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일을 함께 다시 들여다보고, 제도나 기준을 조정하거나 리더와의 소통을 돕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일상과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평가·보상, 복지, 조직문화, 교육제도 등을 설계하고 개선하면서 구성원 전체의 경험이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조직을 가장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직무라는 점입니다. 인사·조직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영 전략, 재무 구조, 각 부서의 과제와 어려움을 폭넓게 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 팀의 구성원을 넘어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은 장기적인 커리어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직업은 몇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과 제도 사이의 균형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사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조직의 규정과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공정성·윤리·책임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결정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정이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를 고민하는 성향이 잘 맞습니다. 셋째, 말과 글로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도와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어려운 메시지도 존중을 담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글쓰기, 프레젠테이션, 면담 소통 능력이 모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거리두기 사이에서 스스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기에 적합합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되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기보다는, 구조와 제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옳은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공정한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책임과 자유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 제도,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분야, 예를 들어 인사·조직, 공공정책, 교육, 상담, 윤리·컴플라이언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와 같은 영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우 좋은 기반이 되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학·윤리학은 특정 자격증이나 직무로 곧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정답형 전공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 수업만 충실히 이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업이 정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진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인사, 교육, 상담, 정책, 법, 언론 등 관심 있는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그 위에 비교과 활동, 인턴십, 자격증, 현장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읽고 써야 할 텍스트가 많은 전공인 만큼, 꾸준히 책을 읽고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인사·조직 업무를 기준으로 보자면, 철학·윤리학 전공은 분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정성, 윤리, 인권, 책임과 관련해 배운 내용들은 평가·보상, 채용, 징계, 조직문화 설계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옳은 기준인가를 고민할 때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쓰며, 토론을 통해 다듬어진 역량은 제도와 규정을 설계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 제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 철학·윤리학은 그 다리를 세울 때 필요한 생각의 뼈대를 만들어 주는 전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4

확장

노무사무원



노무사의 지휘 하에 노사를 대리하여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보고, 신청, 진술, 청구에 관한 서류작성 등 노무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유사명칭

노무관리사무원

관련직업

노무사사무장, 노무사



하는 일

- 노무 관련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업무 수행 방향 설정
- 노무 관련 법조문이나 판례 검색 및 조사
- 노무대상자를 면담하고 관련 자료 수집
- 노사를 대리하여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및 변경, 신고
 -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기초 인사데이터 정리 및 산정표 작성
 - 산재, 고용보험 등 신고서류 준비 및 자료 취합 보조
-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사, 노무, 노사관계 등을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산재 등 노무 관련 사항에 대해 노사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노동조합 단체 교섭 및 협약 체결, 임금보상 협상 등 업무 담당 및 지원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판단과 의사결정) 이득과 손실을 평가해서 결정을 내린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전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범주화) 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물이나 행위를 분류한다.

• 지식

- (인사) 채용, 훈련, 급여, 노사관계와 같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지식
- (사무) 워드 프로세스, 문서처리 및 기타 다른 사무절차에 관한 지식
- (경영 및 행정) 사업운영, 기획, 자원배분,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생산기법에 대한 원리 등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식
-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 (상담) 개인의 신상 및 경력 혹은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상담을 하는 절차나 방법 혹은 원리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동양고전강독, 윤리학, 논리학, 응용윤리학(실천윤리학), 정치사회철학, 불교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법철학 등

법학

노동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민법총칙, 행정법총론 등

경영학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론, 조직행동론, 인사관리론 등

사회복지학

사회보험론, 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복지법제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대학생 노동인권 프로그램 참여
- 인권센터 인권서포터즈 활동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노동법 관련 훈련과정
- 조직관리와 인적자원관리 관련 훈련과정
- 경영지원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노무법인 사무원 인턴십 및 실습
- 기업 인사·노무팀 인턴십
- 노동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 보조 업무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공인노무사, ERP정보관리사, 인사노무 관련 민간자격 등

- **자기 주도적 활동**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 법령 사례 조사, 주요 쟁점 정리
- 노동 인권 및 노사관계 관련 행사/봉사활동 참여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행사·설명회 참여 등

- **진출 분야**

- | | |
|---|---------------------------|
| 1 | 노무법인 |
| 2 | 기업 인사/총무팀, HR 부서 |
| 3 |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전문 교육기관 |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공인노무사회

<https://www.kcplaa.or.kr/>



(국내) 한국노동법학회

<http://www.ksll.org/main>



(국내) 한국사회법학회

<http://www.kassl.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노무사무원은 근로조건, 근태, 임금 등 기초 노무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군입니다.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행정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면담 과정에서 상대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핵심을 명료하게 도출하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며, 상담 기록이나 사실관계 정리에서도 사고의 정교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입직을 준비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기본 법령을 사례와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고, 노무사무소나 기업 인사팀 인턴 경험을 통해 4대보험 신고나 자료 취합의 흐름을 익혀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정보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등 기초 전산·회계 역량을 갖추면 실무 적응에 도움이 되며, 지원 시에는 자격 나열보다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이해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Interview

노무사무원/제조기업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LED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노무사무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조건과 근태, 임금 관리 등 인사·노무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과 특근 내역을 확인해 급여 자료를 정리하고, 4대보험 신고와 산재 처리, 근로계약 관리 등 노무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퇴사에 따른 각종 신고와 관련 문서 정리, 노동 강도와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노무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오전에는 직원들의 출퇴근과 특근 내역을 확인해 근태 자료를 정리하고 수당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입·퇴사자 발생 시 4대 보험 신고를 처리하며 근로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또한 전날 작업 중 사고 여부를 점검해 산재 처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정리한 근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여와 수당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4대 보험 신고와 산재 처리, 노동관계 서류 준비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후 입·퇴사와 근로계약, 노무 관련 문서와 기록을 정리하면서 하루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잦은 이직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직원들이 어려운 현장에 적응하도록 돕고, 입사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근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납품 일정에 따라 야간이나 특별 근무가 빈번한 업종이라 매일 근태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부담도 크지만, 직원들이 제대로 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체크하고 누락 없이 진행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힘들었던 일] 현장의 노동 강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직원과 대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잦은 인력 변동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면 근로계약 정리나 4대 보험 신고, 관련 문서 처리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모두 준비해야 해 긴장감과 책임감이 매우 커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업무 전반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힘이 길러졌고, 문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근로시간, 임금과 수당, 휴가, 4대보험, 산재 등 노무 행정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지켜야 할 노동관계 의무와 대응 절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조사와 조치 의무가 강조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개편이 추진되면서 관련 신고와 관리 기준이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직자에게는 근로기준과 사회보험,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태, 임금, 입·퇴사, 신고서류와 같은 노무 행정 실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요구될 것입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이 노무 행정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전공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글을 정리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차분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규정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업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근태나 수당 문제로 문의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정리해 설명하는 데에도 전공에서 배운 사고 방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복수/부전공 등] 영어영문학을 복수전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구조화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규정을 안내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대학교 2학년에 영어 동아리 회장을 맡아 예산과 회비를 관리하고 매주 활동 일정과 행사 준비를 조율하며 50명이 넘는 회원들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의견을 듣고 정리해 방향을 잡는 일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이런 경험이 업무에서 필요 사항을 안내하고 협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대학교 2학년에 영어 동아리 회장을 맡았던 경험이 지금의 일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동아리 회원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조율하면서 좌식 공간을 입식으로 바꾸고, 학교 예산을 받아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환경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구를 듣고 조정하는 과정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구성원의 문제를 듣고 정리해 해결하는 역할에 흥미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조직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입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지원팀 인턴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류 정리와 자료 취합, 요청 자료의 누락 여부 확인, 일정에 맞춘 문서 전달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하면서 문서 처리와 자료 정리의 기초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청받은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정리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무에서는 꼼꼼함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노무 관련 자료와 문서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노무나 총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보다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주변 사례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현장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로조건 문제를 자주 다루다 보니 해당 업무가 잘 맞아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해 노무 분야로 전문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 운영 전반을 오래 담당하다 보면 인사-총무 경험이 쌓이면서 경영관리 역할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경영 전문가로 성장하는 흐름 역시 비교적 흔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을 통해 노무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높이고, 필요에 따라 노무사 자격 준비나 인사-경영 관련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성장과 잘 맞는 분야를 발견하게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직원과 관리자가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 중간에서 내용을 정리해주는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렵지 않은 사람,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면 확실히 수월합니다. 또 노무 업무는 근로계약서나 신고 문서처럼 형식이 정해진 서류를 다루는 일이 많아,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큰 부담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규정이 명확해 절차만 잘 지키면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 편이어서, 불규칙한 업무보다 일정한 리듬으로 일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에게도 잘 맞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무 업무 특성상 개인 사정이나 근로조건 문제로 상담을 요청받는 일이 꽤 있는데, 윤리학에서 다루는 기준과 이유를 생각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규정을 설명할 때도 단순히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아니라 “왜 이 절차가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설명하게 되고, 이러한 접근방식이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은 겉으로 보기에 노무 업무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능력, 공정성을 지키려는 태도, 다양한 관점을 조율하는 경험이 실무에서 꽤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이런 전공의 기반이 있는 후배라면 실무에서 생각보다 큰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MEMO

05

확장

총무사무원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자산의 매입과 처분, 행사진행, 사무환경개선 등 물적자원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자

유사명칭

서무사무원

관련직업

인사 및 노무 사무원, 경리사무원,
회계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하는 일

- 운영예산 수립, 재고 및 예산 관리 등 업무 수행
- 시설·보안·청소·방재 등 사내 인프라 운영 및 외주업체 관리
- 비품, 사무기기, 법인차량 등 고정자산의 구매·관리·폐기 등 자산 관리 전반 수행
-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배치 변경안 실행 및 후속조치 실시
- 월례조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의 기획, 진행, 정산 등의 제반 업무 수행
- 문서의 수발 및 관리, 4대 보험관리, 급여관리, 각종 사내 행사 계획 및 운영 등 관련 업무 수행
- 회사 관련 협회·조합·단체 섭외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 총괄
- 보고서, 공문, 편람 등 각종 문서 작성 및 행정 관련 절차 감독 및 조정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재정 관리)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파악하고 구체적 소요 내역을 산출한다.
- (물적자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시설, 자재 등을 구매하고 관리한다.
- (전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수리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지식

- (사무) 워드 프로세스, 문서처리 및 기타 다른 사무절차에 관한 지식
- (경영 및 행정) 사업운영, 기획, 자원배분,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생산기법에 대한 원리 등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식
- (인사) 채용, 훈련, 급여, 노사관계와 같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지식
- (경제와 회계) 돈의 흐름, 은행업무, 그리고 재무자료의 보고와 분석과 같은 경제 및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
-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동양고전강독, 윤리학, 논리학, 응용윤리학(실천윤리학), 정치사회철학, 불교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등

경영학

경영학원론,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등

행정학

행정학개론, 행정조직론, 지방행정론, 행정법총론 등

회계·세무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법개론, 소득세법, 재무회계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행정 처리, 자산관리, 행사 지원 등 총무 관련 특화 프로그램
- 사무행정능력 향상 워크숍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총무기획과 총무자산관리 관련 훈련과정
- 사무행정 관련 훈련과정
- 총무기획 및 자산관리 관련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 일경험

- 기업 및 공공기관 총무 관련 부서 인턴십
- 비품·자산 관리, 문서 정리, 사무 지원 등 기업 행정 보조 업무
- 행정사무 및 문서관리 실무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ERP정보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전산세무회계 관련 민간자격 등

- **자기 주도적 활동**

- 학생회, 동아리 활동에서 예산 사용 계획 수립 및 관리
- 교내 행사·프로젝트에서 장소 예약, 비품 준비, 운영 일정 관리 역할 수행
- 문서 작성·관리 관련 규정 요약, 회의록·보고서 작성 연습 등

- **진출 분야**

- | | |
|---|------------------------|
| 1 |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의 총무·행정 부서 |
|---|------------------------|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경영정보학회

<https://www.kmis.or.kr/>



(국내) 한국생산성본부

<https://www.kpc.or.kr>



(국내) 한국구매조달학회

<https://kapsm.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총무사무원은 조직의 운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이어서, 단순 행정보조보다 업무 흐름을 읽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대학 시절에는 학생회, 동아리, 행사 운영 등을 통해 예산 집행, 비품 준비, 일정 관리처럼 조직 운영의 기본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며, 경영지원이나 총무 인턴 경험이 있다면 계약 보조, 비용 처리, 자산 관리 등 실제 절차를 이해하는 데 강점이 됩니다. 총무 업무는 계획된 일과 즉각 대응해야 하는 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업무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본 경험이 실무 적응력과 연결됩니다. 또한 비용 관리와 행정 처리가 잦은 직무 특성상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산회계 등 기초 전산, 회계 역량을 갖춰두면 업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규정의 취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데 강점이 있어, 부서 간 요청이 충돌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업무에서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원 시에는 예산, 자산, 운영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했고, 여러 요청을 어떻게 조율했는지가 드러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총무 직무 적합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Interview

총무사무원/법무법인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총무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 업무는 조직의 기본 운영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조직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직이 일상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근태와 복무 관리, 내부 행정 지원, 조직 내규와 업무 프로세스 정비, 외부 기관 및 행정 관련 대외 소통, 비품과 자산 관리로 구분됩니다. 근태와 복무 관리에서는 구성원의 출퇴근, 휴가, 근무 형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행정 지원 업무로는 각종 서무 처리, 계약 관리, 비용 집행과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조직의 운영 기준이 되는 내규와 업무 절차를 정비하고, 법원, 검찰, 행정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업무 소통을 담당하며, 사무 환경 유지를 위한 비품과 자산 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 업무는 조직 내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일상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단순한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리듬과 업무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하루 업무는 당일 일정을 확인하고, 전날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접수된 결재 요청과 업무 문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의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서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출근 직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오전에는 문서 작성, 회계 및 지출 관련 결재 처리, 외부 행정기관이나 거래처와의 연락 업무를 중심으로 일정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하루 계획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오후에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만, 총무 업무의 특성상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청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부서 간 협조 요청이나 긴급 행정 처리 등으로 인해 이미 설정해 둔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총무 업무는 계획된 업무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전반에서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최근에 저의 기획과 제안으로 회사에 새로운 업무 협업 툴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도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 판단에는 우리 조직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직원들에게 그동안 불편했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직접 묻고 이를 정리해 기획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체와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변경된 업무 툴에 대해 구성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실제로 활용도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즘은 하루하루 업무를 수행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 총무에게는 늘 여러 부서와 여러 조직원으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경중을 따져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정도의 일은 일상적이지만, 서로의 입장이 크게 충돌하고 어느 한쪽의 요구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중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꽤 날 선 공방이 오간 뒤에 일이 정리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감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소진된 나 자신을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이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갈등의 조정과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동시에 총무라는 역할의 전문성과 성장을 가장 분명하게 체감하게 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총무 분야의 업무 역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도입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될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나 근태, 문서 관리는 이미 대부분의 현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서면이 오가는 거의 모든 업무 또한 전자화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협업 방식도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다방면의 적응력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OA(Office Automation) 활용 능력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보호와 보안 이슈에 대한 높은 이해도 필요해지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감각 또한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총무사무원의 경우, 업무 전반과 연결되는 기본적인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도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총무의 역할은 조직 운영의 근간이 소통, 규정, 합리적 판단에 있다는 점에서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을 구조화해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을 길러 줍니다. 대학 시절 전공 수업을 통해 체득한 이러한 시각과 태도는 현재 조직 내에서 행정, 규정 관리,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리적 사안의 취지와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철학적 사고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복수/부전공 등] 평생교육을 복수전공하여 갖추게 된 교육 기획력과 자료 제작 능력, 그리고 소통 역량은 총무 부서가 실제 조직 안에서 수행하는 교육적 역할에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다시 말해 조직의 인적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매뉴얼이나 규정을 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철학이 사고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면, 평생교육은 실무 역량의 토대가 되어 총무사무원의 직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행정기관의 평생학습부서에서 약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당시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연간 크고 작은 사업들을 다수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외교류캠프나 성인문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무를 지원하며, 사업비 지출 관련 서류를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학생부터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보조적인 역할이었지만,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는 과정과 조직이 돌아가는 방식을 가까이에서 체감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은 제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 업무를 대할 때 필요한 유연함과 안정적인 태도를 이 시기에 많이 익힐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이후 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대학 졸업 후 몇 군데 직장을 거치며 저에게 더 잘 맞는 자리를 찾고자 계속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이전 직무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직의 전체적인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며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 또한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불균형과 긴장을 완화하고, 업무 환경을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정비하는 역할과 잘 맞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현재의 직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잘 정돈된 활자과 서면을 선호하는 개인적인 성향 역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다양한 취업 플랫폼을 통해 여러 공고를 탐색하며 준비했습니다. 관심이 가는 곳이 있으면 해당 기관의 성격과 조직 특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지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총무 직무의 핵심 역량이 OA(Office Automation) 활용 능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강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별도의 회계 자격증은 없었지만, 연간 회계의 흐름과 국가회계기준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며 면접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지원 서류의 내용뿐 아니라 레이아웃과 문서 구성도 최대한 정갈하게 다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총무사무원은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에 수행했던 다양한 직무 경험들을 총무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경험이라도, 이를 조직 운영 관점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로 풀어내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쳐온 직무들이 서로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기관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러한 경험의 다양성을 총무사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높이 평가해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총무는 조직과 행정 전반을 이해하는 전문가로, 다양한 방향으로 경력을 확장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실제로 행정·사무 직렬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고, 인사관리나 평가·채용 등을 담당하는 인사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평소 부서원들에게 노무사 기초 강의 수강이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관련 자료를 탐색해 보기를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총무 업무 중 재무·회계 영역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에는 전산회계·전산세무 자격증을 취득한 뒤 기업이나 기관의 예산 관리를 전담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시설 및 자산 관리 분야, 조직 내 각종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 분야 역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경력이 쌓이면 기업의 경영지원 부문에서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사무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꾸준히 체득하고 다듬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A(Office Automation) 능력 역시 항상 고도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새로운 업무 툴이 등장하더라도, 총무사무원은 조직 내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문서가 전자화된 환경이지만, 활용 빈도가 높은 서류는 실제 수기 작성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일상적인 관심을 유지한다면, 총무사무원으로서 한층 더 신뢰받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총무사무원은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고 소통하며 조직 전체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보람이 있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일과 삶의 균형을 비교적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제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특성상 법원, 검찰, 기타 행정기관의 업무가 종료되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함께 마무리되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은 편은 아닙니다.

총무는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잘 어울립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대인관계에 강점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내·외부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응대하는 총무사무원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는 갑작스러운 요청이나 곤란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조직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막상 전공 공부를 하던 시절에는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나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이지러진 채로 과연 무언가가 되기는 하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했고, 차라리 정답이 분명한 무언가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조금씩 훈련되고 단단해진 사고방식 자체가 어떤 직무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며 일할 수 있는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전공은 특정 직무에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총무 업무를 포함해 조직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강점을 지닌 학문이라고 느낍니다.

철학은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를 길러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윤리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바라는 실천력 있는 기술과 역량 역시, 깊이 있는 사고라는 뿌리에서 힘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특정 직업이나 자리를 미리 결정해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자신이 어디로든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다만 전공과 직업 선택 사이에 보다 분명한 연결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철학·윤리학을 선택하기 전에 적어도 몇 번은 더 충분히 고민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

확장

준법감시원



준법감시 부서에서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윤리강령 운영과 상시감사·보고 등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유사명칭

준법감시담당자, 컴플라이언스담당자

관련직업

준법지원인, 자금세탁담당자



하는 일

- 정관, 규정 제·개정 및 신규 업무 추진의 법규 준수 사전 검토
-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개정 및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배포
-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조사
- 신용평가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상시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운영
- 법규 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기획 및 실시
- 이사회, 감사 등 주요 회의 참석 및 의견 진술
- 혐의거래보고제도 관련 금융정보분석원(KoFIU) 보고 업무
- 금융 관련 법무·준법 지원 업무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판단과 의사결정) 이득과 손실을 평가해서 결정을 내린다.
- (모니터링(Monitoring)) 타인 혹은 조직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 (논리적 분석)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 (범주화) 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물이나 행위를 분류한다.

• 지식

-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 (경영 및 행정) 사업운영, 기획, 자원배분,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생산기법에 대한 원리 등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식
- (경제와 회계) 돈의 흐름, 은행업무, 그리고 재무자료의 보고와 분석과 같은 경제 및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
- (사무) 워드 프로세스, 문서처리 및 기타 다른 사무절차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동양고전강독, 윤리학, 논리학, 응용윤리학(실천윤리학), 정치사회철학, 불교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등

법학

금융법, 상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등

경영학

경영전략,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론, 회계원리, 재무관리 등

회계·세무학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법개론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ESG 리더 양성 프로그램 참여
- 범죄예방위원 활동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정보 보안 관련 훈련과정
- 내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금융회사, 기업에서 내부통제 준법 점검 등을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인턴 경험
- 기업 법무·경영지원 부서에서 계약서·규정 검토를 돕는 법무·내부통제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공인회계사(CPA),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관련 민간자격 등

• 자기 주도적 활동

- 금융·기업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 조사, 위반 유형·원인·재발 방지책 분석
- 공개된 내부통제·윤리경영 규정 수집,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석
- 학내 프로젝트나 동아리 운영에서 역할·절차·규정 준수 모니터링 역할 수행 등

• 진출 분야

- 1 정부 및 공공기관 준법감시 관련 부서
- 2 금융 및 보험 관련 기업의 준법감시 관련 부서



관련 정보처

(국내)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국내) 시장감시위원회

<https://surveillance.krx.co.kr/main/main.jsp>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준법감시원은 조직 내 업무가 법과 내부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통제 체계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는 위험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문서와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대학에서는 금융회사나 기업의 내부통제, 윤리경영 규정을 비교하거나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으며, 컴플라이언스나 내부통제 인턴 경험이 있다면 점검, 보고, 증빙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준법 업무는 전산 기반의 모니터링과 보고가 많아 정보 보안, 내부감사 등 기초 전산 역량을 갖추두면 업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윤리와 책임, 행위 기준을 논리적으로 다뤄온 덕분에 규정의 취지와 판단 기준을 구조화하는 데 강점이 있어 리스크 요인을 설명하고 내부 기준을 정리하는 업무에 유리합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관심 표현보다, 특정 위반 사례를 어떤 기준으로 분석했고 위험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이 핵심입니다.

Interview

준법감시원/보험회사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부문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회사의 모든 경영 및 업무 활동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위법이나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의미합니다.

회사 전체 차원에서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산운용 부문은 고객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특히 큼니다. 이에 저는 자산운용 과정 전반에서 법규 위반 소지가 없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임직원 대상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거나 보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현행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규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오전에는 전일 자산운용결과에 대한 결과 중 특이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또는 영업점에 대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본사 부서별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각 부서 또는 업무 단위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규 또는 규정을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금융당국에 질의하거나 규제 개선 건의를 진행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고객에게 정보 제공의 신속화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서면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던 법 조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여,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던 일과, 사전적 예방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여 현재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입니다.

[힘들었던 일] 사후적인 점검 체계를 사전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여 예방 활동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예하 부서들을 설득하며 시스템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던 일련의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체계가 모두 정착되어 타 회사에까지 전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기법들이 발전하고 투자대상 또한 확대되면서, 관련 법규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없었던 금융사고의 유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는 그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투자자, 계약자 등의 고객의 손실과도 직결되고 그 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역할과 역량이 회사내부에서도 그 중요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금융회사에서는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학·윤리학은 행위의 정당성, 책임, 공공성, 이해충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학문으로, 금융 분야에서 요구되는 윤리의식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특히 준법감시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규정 준수 여부를 넘어, 법과 윤리의 경계 영역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철학·윤리학을 통해 형성된 윤리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은 기본적 자질이자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부전공 등] 경영학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적 맥락과 실무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였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대학교 재학 중 주식·펀드 투자 관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모의투자를 경험한 것이 금융시장과 자산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FRM(Financial Risk Manager) 등 해외 자격증과 자산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실무 자격증을 준비·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금융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한 기본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국내에서 준법감시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역사는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후 자산운용 부문으로 직무 전환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7년 자본시장법 도입과 관련한 검토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본시장법과 연계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많지 않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습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현재는 자본시장법과 컴플라이언스 업무 전반에 대해 제도 형성 단계부터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업계 내에서는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금융업에 진로를 두게 된 것은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학 중에는 보험학, 상법, 투자론 등 금융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였으며, 당시 선물시장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미국 선물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파생상품과 금융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입사 이후에는 인사팀에서 근무하였으나, 이후 자회사인 선물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자산운용 분야의 실무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자산운용 부문으로 직무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제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며 금융 관련 용어, 투자 대상, 자산운용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접해 온 경험은 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의 운용역으로 직무를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경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경우 금융회사 내에서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면 외국계 자산운용사나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회사로 스카우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업계 내에서 자산운용 분야로 진출할 것인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진로 방향을 이른 시점에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준비하여 주식·채권·펀드 운용역으로 나아가거나, 컴플라이언스 전문 인력으로 경력을 확장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역량을 갖출 경우 해외 근무 기회 또한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업무는 관련 법령과 실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다 보니,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직무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많아지며, 그에 따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계열에 비해 월등한 보수 수준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규와 실무에 모두 능통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법령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여러 사람과의 소통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법령을 다루는 업무인 만큼, 숫자와 법령을 함께 다루는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아야 하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직업관과 행위의 정당성, 도덕적 책임, 윤리적 판단에 대한 사고력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을 지닌 전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다른 전공자에 비해 쉽게 갖추기 어려운 자질로, 사회 전반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문 연구자가 아닌 직장인으로서의 진로, 특히 금융업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학과 생활과 병행하여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의식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준법감시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목표로 한다면, 법령 해석과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법학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본인이 관심 있는 산업이나 직무 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실무 경험을 사전에 학습·경험해 보면서 진로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것 역시, 전공의 강점을 실제 직업 세계와 연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07. 철학연구원

07-01. 인공지능윤리전문가

08. 생명윤리연구원

09. 법학연구원

10. 사회복지정책연구원

11. 언론정책연구원

07

주요

철학연구원



인간의 행위, 생각, 지식, 가치관, 규범, 종교, 예술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 및 근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

유사명칭

윤리학연구원



하는 일

- 인간, 사회, 세계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설정하고 관련 연구 주제 기획
- 고전 문헌, 철학 원전, 선행연구, 사상 자료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수행
- 존재, 인식, 윤리, 가치,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리
- 전통사상과 현대사상을 비교·검토하고 현대적 의미를 도출
- 사회적·윤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모색
- 연구보고서, 논문, 학술자료, 발표문 등 작성
- 학술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문적 의견 교류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말하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한다.
-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 지식

-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 (심리)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
- (교육 및 훈련)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이론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형이상학, 논리학, 인식론, 윤리학 등
서양철학, 불교철학, 한국철학, 중국철학 등

사회학

사회이론, 사회문제론, 사회철학, 지식사회학, 현대사회이론 등

정치학

정치사상사, 정의론, 민주주의 이론, 현대정치철학 등

심리학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고전 기반 에세이 경연대회 참여
- 고전 읽기 토론대회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프로젝트 관리 관련 훈련과정
- 사회조사분석 및 통계 관련 훈련과정
- 데이터 정리 등 디지털 도구 활용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철학 학회 및 학술대회 참여
- 연구기관에서 문헌조사·연구 보조 경험
- 연구기관에서 자료 분석·이슈 리서치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

• 자기 주도적 활동

- 주요 철학 이론·사상을 검토하여 핵심 개념과 논점 정리
- 철학 관련 원서 및 논문을 비교 분석해 해석 차이와 쟁점 도출
- 사회·기술 현안을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논증 구조 정리 등

• 석사/박사

주전공	타전공	
 철학·윤리학	 사회복지학	 국제지역학
철학 이론, 응용윤리 기반의 심층 분석 연구 등	지역·사회 문제의 윤리적 실천 연구 등	글로벌 규범·국제 윤리 쟁점 연구 등

• 진출 분야

- 1 연구기관
- 2 에듀테크, 교재개발, 교육기업, 컨설팅 회사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철학회

<https://hanchul.org/>



(국내) 한국윤리학회

<https://www.kethics.com/>



(국내)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철학연구원은 철학적 개념과 사유 체계를 분석하고, 사상사적 맥락이나 사회적 쟁점을 철학적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철학연구원을 준비할 때는 먼저 자신이 어떤 질문을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사상가의 핵심 개념 변화를 추적하거나 사회적 쟁점을 철학적 개념틀로 재구성한 짧은 연구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두면 사고의 방향성과 분석 방식이 드러납니다. 연구 인턴이나 보조 연구 경험을 통해 문헌 조사와 연구사 정리, 쟁점 구조화 과정에 참여해 실제 연구 흐름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의 강점은 개념을 세밀하게 분해하고 논점 간 관계를 조직하며 가치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는 발제문 작성이나 연구보고서 초안 구성에서 분명한 차별성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어떤 텍스트를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해석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소규모 연구 사례를 포트폴리오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가능성과 깊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Interview

철학연구원/연구소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주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철학 분야의 학술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전공은 칸트의 윤리학이며, 실천철학 문헌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칸트 이전의 독일 계몽철학과 서유럽 계몽사상 전반을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대 철학에서 윤리와 규범 개념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하루 업무 루틴은 정해진 바 없이 자율적인 계획과 수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약 6시간 내외의 대학 강의를 있는 학기 중에는 강의 준비와 강의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연구는 강의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서유럽 근대 철학 고전에 대한 독해와 번역, 연구사 정리 등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방학 기간에는 연구 결과물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을 집중적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첫 단독 연구서 번역물을 인문사회 분야 1급 출판사에서 출판한 경험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원전을 독해하고 번역한 결과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되면서,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출판 경험은 이후에도 번역 작업과 출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습니다.

[힘들었던 일] 서유럽 근대 철학 고전들, 특히 17~18세기 문헌들은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집필되어 있어 독해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연구 전반의 진행 속도가 더뎠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언어는 현대어와 달리 문법 구조와 용례가 크게 달라, 단순한 번역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와 개념을 보다 정밀하게 다루는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역사적 맥락과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기초 체력이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의 발전이 급속화됨에 따라, 기존 연구자들에게는 단기간에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고 활용함으로써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일반화될 경우, 연구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연구의 질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연구량의 인플레이션은 인문학 및 철학 연구의 품질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학술적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과 수련 과정에서 인공지능 언어모델은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지하게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지적 역량을 비약적으로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가성비 학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몇 차례의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외형상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학생이나 예비 연구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질 경우, 문해력과 외국어 독해 능력, 그리고 개성 있는 논술 역량이 충분히 성장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에는 읽고, 쓰고, 배우고, 익히고, 사유하는 과정 자체에서 정신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이 직업과의 친연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적성이 텍스트에 친화적인지 여부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 전공은 순수 또는 기초학문에 해당하는 전공으로, 바르게 사유하는 방법과 규범적 원리의 옳고 그름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훈련은 철학연구원이 수행하는 텍스트 해석, 개념 분석, 논증 구성의 기초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전공의 학문적 성격을 충실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수련이 필요합니다.

[복수/부전공 등] 학부과정에서 사회학을 복수전공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연구자로 성장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철학이 영원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학문이라면, 사회학은 현재적 관점의 학문, 즉 사회변동에 민감한 학문입니다. 이러한 사회학적 관점은 철학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동시대성을 놓치지 않고 사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철학적 관점을 더욱 입체적으로 다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철학교육이나 윤리교육과 관련된 실습 경험은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원 과정 중 청소년 철학교실과 지역 인문학 기관에서 철학 강의를 진행하며, 복잡한 철학적 논의와 개념을 보다 명확한 언어로 구조화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철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논지를 정리하는 연구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연구 주제와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다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연구 성과를 학술 공동체뿐 아니라 다양한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철학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 왔습니다. 대학에서 철학과에 진학한 이후에는 기존에 주로 읽던 문학 작품들이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데 비해, 철학은 역사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추상적인 개념을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밝힌다는 점에 점차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작업 방식에 흥미를 느끼면서, 연구를 지속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진로로 구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와 같은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수하며 학위논문을 집필한 과정 자체가 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수련하는 동시에, 스스로 교육 방법론을 구상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성도 높은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가 이후의 연구 커리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연구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학위논문의 우수성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저의 경우 학위논문 집필에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졸업 직후 한국연구재단의 장기 연구과제를 수주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현재 연구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철학·윤리학은 순수 기초학문에 해당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전공을 엄밀하게 살릴 수 있는 직종은 대체로 석·박사 학위 취득이 요구됩니다. 연구원으로 취업하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그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석·박사 학위입니다.

나아가 연구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 성과를 논문, 저서, 번역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성과가 축적될수록 더 나은 조건으로의 이직이나 정교수 임용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의 범위 역시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로움은 항상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을 동반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유함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유행에 편승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라면 이 직업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정신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적합성을 지닌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적 모험가 혹은 탐구자적 기질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 직업은 삶의 의미와 만족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텍스트에 친화적인 사람, 하나의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골똘히 사유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의 감각적 만족보다 역사적·정신적 가치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 직업에서 지속적인 보람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은 전공 선택 이후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학문 연구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을 포함한 장기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전공 과정에서 기른 사고력과 판단력을 다양한 영역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의 특성은 스스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며, 그만큼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맞춘 진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철학연구원/연구소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철학연구원이자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크게 연구와 교육으로 나뉩니다. 연구 측면에서는 서양 근대 철학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대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분석하는 현장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를 통해 축적한 성과를 학부 강의와 다양한 특강을 통해 학생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철학적 사고의 확장을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외의 주요 철학 원전과 연구서를 우리말로 옮기는 학술서 번역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 교육, 번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저의 업무는 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크게 학기 중의 강의 및 현장 연구와 방학 기간의 심층 연구로 구분됩니다. 학기 중에는 교육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합니다. 강의를 있는 날에는 강의 준비와 강의 진행, 그리고 강의 직후 학생들의 반응을 반영해 다음 강의를 구상하는 데 하루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합니다. 연구는 강의와 강의 사이에 비교적 여유가 있을 때 틈틈이 수행합니다.

동료들과의 그룹 스터디나 개인적인 전문 서적 탐독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발견하면, 곧바로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와 논문을 찾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주제를 점차 구체화하고, 작업 계획을 수립한 뒤 정해진 타임라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합니다. 방학 기간은 이러한 연구를 완성하는 ‘몰입의 시간’으로, 학기 중에 축적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기 연구 프로젝트나 호응이 긴 번역 작업을 차분하게 진행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책상 위에서의 연구 노력이 강의실과 현장에서 '살아 있는 지식'으로 소통될 때입니다. 이론 연구에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 자체도 큰 성취이지만, 현장 연구를 통해 만난 당사자들이 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연구의 실천적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저와 문답을 주고받는 순간은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이 직업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연구와 교육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힘들었던 일] 연구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마치 지도 없이 낯선 땅을 여행하는 것 같은 막막함을 마주할 때입니다. 철학 연구는 정해진 답이 없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복적인 텍스트 분석을 오랜 시간 혼자 감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난한 시간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은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한 연구 결과물이 논문 심사나 학술 발표 현장에서 냉정한 비판을 받을 때입니다. 연구의 부족함을 지적받고 수정 요구를 받으면 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연구가 학문적 엄밀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임을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뼈아픈 지적을 자양분 삼아 논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다시 긴 수정 과정을 거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난관을 극복하며 성장해 온 방식입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전통적으로 연구자의 역량은 오랜 시간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며 사고력을 축적하는 이른바 '도제식 훈련'을 통해 길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면서, 숙련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는 한편, 역설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 역량을 내재화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의식 설정 능력과 같은 핵심 연구 역량을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열하게 연마한 연구자가 더욱 분명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능력과 더불어 교육 능력을 탄탄히 갖춘다면 진로의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참여나 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여러 현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 당장의 실용적 이익보다 본질을 탐구하려는 학문적 호기심, 그리고 그 지난한 과정을 꾸준히 견뎌낼 수 있는 성실함과 근면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 전공은 연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 여러 강의를 통해 철학의 전 분야를 폭넓게 수학하며, 지식을 단순히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권위 있는 이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과정은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강단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저의 교육 철학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복수/부전공 등] 학부 과정에서 도덕윤리교육을 복수전공한 경험은 연구에 ‘현장성’을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철학 전공이 개념의 정립과 순수 이론의 논리적 완결성에 집중하게 했다면, 도덕윤리교육 전공은 그러한 이론이 실제 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공 배경 덕분에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붕괴나 가치관의 혼란과 같은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철학적 주제로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사유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교과 과정 외에도 저는 ‘읽고, 쓰고, 토론하는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연구자로서의 기초 체력을 다져왔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학회와 토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혼자만의 사유를 타인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검증받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초급장교로 군 복무하던 시절 직접 독서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병사들과 함께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 서양 철학 고전을 읽고, 각자가 글을 쓴 뒤 서로의 글을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쓰기 교육론을 별도로 공부하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정교하게 글로 표현하는 연습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익힌 ‘읽기-쓰기-합평’의 과정은 현재 제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연구와 논문 집필 활동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대학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 도덕윤리 교사가 되는 것을 진로로 설정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교 강의실을 찾아가 학부 수업을 청강하게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강의실에서 임용시험을 위한 지식보다 ‘철학 공부 그 자체의 재미’에 뒤늦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진로를 결정적으로 바꾼 계기는 도덕교육을 철학적으로 비판한 한 권의 책, 『도덕교육의 파시즘』을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날카로운 논리에 강하게 매료되어 며칠 동안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나도 이 저자처럼 치열하게 사유하고, 세상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글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지적 전율은, 사람을 직접 길러내는 교육자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끝없이 탐구하고 사유하는 연구자의 삶으로 저를 이끄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이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 제가 준비한 과정은 크게 박사학위 취득과 연구 과제 수주 준비라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 연구자로 활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은 박사학위 취득이며, 이는 연구자로서의 일종의 기초 면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위 취득 자체가 곧바로 연구 기회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의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한국연구재단 연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3년간 사업 계획과 공모 자료를 수집하여, 학계의 연구 트렌드와 정책적 지원 방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연구 주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제 연구 주제를 이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는 기획 단계를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획을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며 정량적인 연구 실적을 쌓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분석을 토대로 수개월에 걸쳐 완성도 높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기본 자격 요건 위에 전략적 분석과 실무적 글쓰기 역량을 더한 준비 과정이 이 직업에 입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진로는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이후 전문 연구자 또는 대학 교수로 나아가는 경로가 중심을 이룹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대학의 학과에 소속되어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전공 교수(전임교원)의 길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 사업단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어 특정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단 소속 연구교수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이나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교수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이 독창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연구비를 지원받아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도의 외국어 능력과 전공 지식을 결합해 해외 주요 학술서를 국내에 소개하는 전문 번역가로서 경력을 확장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박사학위라는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조직에 소속되어 협업하는 연구에 더 적합한지, 혹은 독자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개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강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각 경로에 맞는 연구 실적과 경력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거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근본적인 매력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학계에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현실적인 매력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놓인 본질적인 철학적 쟁점을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오랜 사유 끝에 나만의 논리와 관점을 세상에 제시할 때 느끼는 지적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을 줍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직업은 외부의 화려한 자극이나 즉각적인 반응에 민감한 사람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경험과 생각을 깊이 있게 곱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잘 어울립니다. 타인의 기준이나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며 주체적인 사유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평생을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은 철학연구원이라는 전문적인 사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단단한 기초를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 속에서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폭넓게 탐구하는 과정은, 이후 어떤 세부 주제를 연구하게 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지적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이 전공을 선택하기에 앞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냉철한 자기 이해의 과정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교사를 진로로 염두에 두었지만, 여러 경험을 거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구체적인 사람을 직접 돌보는 일보다, 텍스트 속의 추상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확장하는 작업 그 자체에서 더 큰 몰입과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사람과의 감정적 교류보다는 지식의 논리적 구조를 깊이 파고들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뛰는 편이라면 철학연구원의 길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는 시대일수록, 그 정보의 맥락을 꿰뚫고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철학적 역량은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07-01

주요

인공지능윤리전문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을 검토하여
책임 있는 인공지능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



하는 일

- 조직의 인공지능 윤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내부통제 기준 마련
- 인공지능 모델·데이터의 윤리적 위험(편향, 차별, 부정확성 등) 점검 및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기준 검토 및 수정 제안
- 인공지능 프로젝트 관련 윤리 심의, 사전검토 및 사회적 영향평가 작성
- 인공지능 관련 법, 규제, 정책 요구사항 분석 및 규제 준수 지원
- 개인정보, 보안 등 규제 준수 관련 윤리 리스크 관리
- 개발자, 실무자 대상 인공지능 윤리 교육 운영
- 내·외부 이해관계자 윤리 이슈 협의 및 조정
-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제안 활동
- 인공지능 기술, 제품, 서비스의 검·인증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 인공지능윤리전문가는 철학·윤리학 전공에서 배우는 철학개론, 논리학, 인식론, 응용윤리학 등의 교과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프라이버시와 같은 윤리 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함.
- 일부 대학에서는 철학·윤리학 또는 융합전공 안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술윤리, 데이터윤리, AI와 사회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됨.
- 타 전공 중에서는 법학과 컴퓨터공학이 관련성이 높음. 법학의 시가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지식재산권법, 기술법, 행정법총론 등은 인공지능 관련 규제와 제도 기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고, 컴퓨터공학의 인공지능개론, 머신러닝, 데이터구조, 데이터마이닝 등은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와 데이터 처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이를 통해 인공지능윤리전문가는 기술과 규범을 함께 해석하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음.

주전공



철학·윤리학

철학 개론, 논리학, 인식론,
응용윤리학(기술윤리,
인공지능 윤리, 신경윤리,
생명의료윤리) 등

타전공



법학

시가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지식재산권법,
기술법, 행정법총론 등



컴퓨터공학

인공지능개론, 머신러닝,
데이터구조, 데이터마이닝
등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https://www.ksaie.or.kr/>



(국내)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https://iaae.ai/>



(국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인공지능윤리전문가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철학·윤리학 전공에서 기른 가치 판단과 비판적 사고를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쟁점 분석으로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는 기술윤리, 정보윤리, 데이터윤리 등 관련 주제를 꾸준히 탐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 책임, 공정성, 사회적 영향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연구 주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입직 과정에서는 단순한 관심 표현보다 논문, 보고서, 학술발표, 연구과제 참여 경험과 같은 연구 실적이 중요한 준비 요소가 되며,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연구보조, 기관 자문, 인턴 경험 등은 실무 감각과 전문성을 함께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 두면, 기술과 규범을 함께 해석할 수 있는 전공자의 강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Interview

인공지능윤리전문가/연구소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철학·윤리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자이자 교육자입니다.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오류로 보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 책임, 공정성과 같은 윤리적 가치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성찰을 토대로, 실제 기술 활용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윤리적 지침과 실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기술의 발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저는 현재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요청되는 윤리교육의 방향을 연구하고 있고, 동시에 대학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상근으로 출퇴근하기보다는 연구, 강의, 기관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저의 하루는 정해진 패턴으로 반복되기보다는 연구와 교육, 학술 활동이 균형을 이루며 전개됩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에는 주로 논문이나 정책 보고서 등을 읽고 정리하면서 개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거나 글을 씁니다. 강의를 있는 날에는 수업 내용이나 토론 질문을 구성하는 등 강의 준비에 집중합니다. 때때로 연구 세미나, 자문 미팅, 학술 대회 등에 참여하여 다른 연구자나 전문가들과 논의를 나눕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과 사례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잡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 자문, 연구 논문, 교육 콘텐츠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저는 거창한 성과보다는 저의 연구나 교육 활동을 통해 누군가의 사고방식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처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히 편리하거나 두려운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난 뒤 기술이 지닌 가치와 사회적 영향을 스스로 질문하고 균형 있게 성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을 마주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힘들었던 일]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에 맞는 실천 가능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 원칙을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일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에서 '투명성'은 중요한 원칙이지만,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기술의 구조나 데이터 흐름을 충분히 공개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윤리적 이상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식을 찾는 일은 제가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철학·윤리학 전공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적 검증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전문가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윤리적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때에는, 연구·개발, 법률, 경영, 행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나오는 다른,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갈등 없이 의견을 조율해 가는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저의 대학 시절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도 몰랐기에 인공지능윤리전문가가 되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부에서는 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언어, 역사, 종교,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전공의 경계를 두지 않고 흥미 있는 교과목들을 폭넓게 수강했습니다. 이런 배움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성과 인간 삶의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고, 근대성을 비판하는 현대 윤리학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이 기술이 제가 관심을 갖고 탐구하던 인간의 가치, 행위, 책임, 삶의 조건에 대한 문제들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삶을 위한 도구로서 윤리적 인공지능에 관한 탐색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철학·윤리학적 배경은 기술이 인간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복수/부전공 등] 학부에서 사회학을 복수전공했습니다. 사회학을 배우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와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기술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기술의 혜택과 위험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 공정성, 기술로 인한 격차와 같은 문제들을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와 학과 활동, 여행 소모임 등 급급적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들이 지금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협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일상적 경험들 덕분에 사람들의 속도와 감정을 읽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함께 목표를 만들어 가는 방식도 몸에 익은 것 같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제가 이 분야로 나아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 간의 바둑 대국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인간의 능력과 역할이 기술에 의해 근본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저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남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왜 훼손될 수 없는지에 대해 윤리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제 연구 방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를 계기로 다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연구 주제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및 로봇윤리 영역으로 넓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인공지능윤리전문가라는 직업을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윤리학 연구자로서의 문제의식과 관심을 꾸준히 따라가다 보니 현재와 같은 연구 분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인공지능윤리전문가라는 직업을 목표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제 자신을 특정 직업군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철학·윤리학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들어온 경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자격증이나 실무 중심의 준비를 했다고보다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과 가치에 어떤 도전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자들과 협업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제 연구의 범위와 전문성도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일을 위해 준비해 온 것은 특정 기술이나 직무 역량이라기보다 관심과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발전시켜 온 연구 성과, 즉 그동안 발표해 온 논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개발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 윤리 분야는 최근 다양한 경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나 인공지능 윤리에 특화된 교육기관, 전문대학원, 그리고 기업·공공기관의 전담 조직 등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진출 루트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철학·윤리학을 전공해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전 읽기,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훈련,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연습 등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질 때 인공지능 윤리 연구에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력, 논증 능력, 윤리적 상상력 같은 핵심 역량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앞으로 연구자, 정책 전문가, 대학 교수, 기업 내 인공지능 거버넌스 담당자 등 다양한 경로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거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철학·윤리학에 기반한 인공지능 윤리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탐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사회 구조를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판단이 타당하려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즉 삶의 조건, 가치, 존엄성과 같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철학적 질문들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일은 가장 새로운 기술을 다루면서도, 오래된 질문들로 되돌아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독특한 탐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사유의 작업에서 큰 매력을 느낍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는 어느 한 사람의 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학자, 법학자, 개발자, 정책 전문가,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며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직업인에게는 자신만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다듬고 성찰하는 개인 연구의 시간과, 여러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협업하는 시간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적 탐구와 성찰을 즐기면서도 사회적 협력에 열린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이 직업은 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은 인간과 삶을 근본적으로 사유하고, 그 내용을 논리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전공입니다. 이 전공을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복잡한 인간과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탄탄한 사고력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와 같이 기술 변화가 빠른 환경 속에서도, 무엇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포착하고 그 의미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은 철학·윤리학 전공자의 중요한 강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전공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고의 기준을 단단히 세워 나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단기적인 유행이나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유를 축적하고 자신의 언어로 세계를 해석하는 데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 특히 잘 맞는 길입니다. 철학·윤리학을 선택한다면 조금해하지 말고, 읽기와 쓰기, 그리고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각자에게 어울리는 진로와 역할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nterview

인공지능윤리전문가/협회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인공지능 윤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윤리 관련 협회를 설립하고,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회는 국내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윤리 교육 및 인증 체계 운영, 국제 협력과 정책 개발, 연례 컨퍼런스와 포럼 개최 등이 있으며, 정부·기업·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 논의를 제도와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협회에서 저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며 별도의 인공지능 기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수도권 본부 외에도 지역 단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는 지역 조직의 운영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동향과 이슈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자문 업무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주요 업무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 인증과 컨설팅 업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사단법인 창립 초기에는 학부에서 윤리를 전공한 친구들과 함께 문제의식만을 바탕으로 다소 막연하게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조직 운영 경험이나 뚜렷한 성과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이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약 150여 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을 갖춘 전문성 있는 집단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적절히 제어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윤리적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공지능 윤리 분야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는 협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의무이자 중요한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윤리전문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공정하고 안전하며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감독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직무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고도화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공지능윤리전문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새로운 인력 수요와 직무 기회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윤리 이론 및 도덕철학,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 인식론과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 사회철학과 정치철학, 논증 구성과 학술적 글쓰기 등의 학습 내용은 현재 인공지능윤리전문가로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활동을 통해 형성된 철학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은 인공지능 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쟁점을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며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동아리 활동이나 학회 참여, 인턴십 등 교과 활동 외의 다양한 경험들이 인공지능윤리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전환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복잡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윤리적으로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분석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과 업무 속에서 기술 활용의 결과를 윤리적으로 평가하고, 나름의 판단 기준을 수립하며 책임 인식을 생활화하려는 노력이 현재의 업무 수행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취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시기에 인문계열 전공자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인문학 전공자의 역량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직업 영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과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인공지능윤리전문가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윤리전문가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전망 있는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저는 인공지능 윤리 분야에서 활동하기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작동 방식, 데이터 활용 흐름 등을 중심으로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학술 행사, 포럼, 컨퍼런스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했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가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인증, 컨설팅 등 실무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해 나갔으며, 관련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현재 인공지능 윤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 윤리 분야를 기반으로 한 진로로는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자나 대학 교수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 컨설팅 회사나 국제기구의 컨설턴트, 국내외 테크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전담 조직, 법률 및 규제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심사·자문 역할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사례를 다룰 수 있는 윤리적 전문성,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등과 관련된 법·정책 지식이 함께 요구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야 하는 특성상 의사소통 능력, 협업 역량,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관련 자격 인증 취득, 전문 단체 활동, 컨퍼런스 참여, 인턴십 경험 등은 진로 준비와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윤리전문가의 가장 큰 매력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과 같은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제도와 현장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수록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전문 영역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윤리전문가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직업은 기술 중심의 판단에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어울립니다. 또한 기술이 놓치기 쉬운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윤리적 기준을 설명하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윤리적 쟁점과 도덕적 딜레마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어떻게 다루고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판단과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은 철학·윤리학 전공자들에게 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윤리학은 인간과 사회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고력과 윤리적 통찰을 기르는 데 강점을 지닌 학문입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사유를 꾸준히 단련하고 확장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철학·윤리학을 선택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진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이러한 철학적 역량은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8

주요

생명윤리연구원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 인공수정, 생물복제 등과 같은 생명과학의 연구결과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

유사명칭

환경생태윤리연구원, 의료윤리연구원



하는 일

- 낙태, 인간복제, 동물실험, 유전학, 의료윤리, 장기기증, 안락사 등 생명 관련 윤리·도덕적 쟁점에 대한 연구기획 및 다학제적 연구 수행
- 배아, 생식세포, 줄기세포 및 유전자 분야와 관련한 생명윤리 정책 개발 및 지원
- 장기, 인체조직, 혈액, 조혈모세포 기증·이식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 연구
- 생명윤리·안전 관련 자료 조사
- 생명윤리, 의료윤리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생명윤리 관련 정보관리 및 교육 지원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말하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한다.
-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혹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 지식

-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 (심리)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
- (교육 및 훈련)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이론에 관한 지식
- (법) 생명윤리 및 안전, 장기·조직·혈액 관련 법령, 유전자 정보 활용 규제 등에 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논리학, 인식론, 응용윤리학(기술윤리, 인공지능윤리, 신경윤리, 생명의료윤리 등), 정치사회철학, 법철학, 불교철학, 도가철학 등

의생명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세포생물학, 생명과학개론, 생명정보학 등

법학

생명윤리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공학규제법 등

보건학

보건윤리, 보건정책론, 보건법규, 보건의료데이터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IRB 등 생명윤리 관련 프로그램 참여
- 학부생 연구인턴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프로젝트 관리 관련 훈련과정
- 사회조사분석 및 통계 관련 훈련과정
- 데이터 정리 등 디지털 도구 활용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철학 및 윤리학회, 생명의료윤리 학술대회 참여
- 연구기관에서 문헌조사 연구 보조 경험
- 연구기관에서 자료 분석·이슈 리서치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

• 자기 주도적 활동

- 관심 있는 생명윤리 이슈를 선정해 핵심 쟁점과 윤리 원칙 정리
- 의료·연구 분야의 실제 사례를 수집해 이해관계자별 쟁점 비교
- 팀 과제나 연구 활동에서 데이터 활용 절차를 설계하고 기본 윤리 기준을 적용 등

• 석사/박사

주전공	타전공	
 철학·윤리학	 생명과학	 보건정책학
생명·의학 관련 윤리 쟁점의 철학적 분석 및 규범 평가 연구 등	생명·의학 기술의 심층 이해 및 연구 등	의료체계, 연구윤리 제도, 정책 기반 생명윤리 연구 등

• 진출 분야

- 1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보건의료 정책 관련 부서
- 2 국책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 3 병원 및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자문 조직



관련 정보처

(국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https://nibp.kr/>



(국내) 한국생명윤리학회

<https://koreabioethics.jams.or.kr/>



(국내)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sites/kdca/index.do>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생명윤리연구원을 목표로 한다면, 과학기술과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 쟁점을 인간 존엄의 기준으로 구조화해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학에서는 생명윤리, 의료윤리, 과학기술윤리를 통해 가치 갈등과 논증 구조를 익히고, 최신 논문 및 보고서를 조사·요약·검증하는 세미나 경험을 통해 연구의 기본 흐름을 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교육이나 연구 프로젝트 참여는 문헌조사와 법령 검토, 사례 정리가 실제 지침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아·유전자·연명의료, 고령화·돌봄 위기, 의료 인공지능 등 확장되는 의제를 다루기 위해 기초 생명과학·의학 개념을 함께 학습하면 윤리 판단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쟁점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다학제 관점을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어, 위원회 검토나 기준 설정 과정에서 핵심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입직 단계에서는 관심 있는 이슈 하나를 선정해 문제 구조-가치 갈등-판단 원칙을 정리한 짧은 분석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Interview

생명윤리연구원/연구소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인간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생명윤리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신 생명윤리 연구 논문과 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임신·출산, 연명치료, 돌봄과 공동체, 의료기술 발전 등 생명윤리 현안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학술대회와 월례 세미나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논의되며, 단순한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윤리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론 연구와 함께 사회적 현실과 제도를 고려한 연구를 병행하며, 인간 생명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보통 연구과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최신 학술 논문과 정책 보고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조사하며, 생명윤리 쟁점과 연결되는 핵심 내용을 선별합니다. 이후 문헌을 단순히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구 주제에 맞게 분석하고 논리적 타당성과 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증합니다. 정리된 자료는 월례 세미나나 학술대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연구 노트와 발표 자료로 구조화하며, 다른 연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연구 방향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이론 연구가 실제 사회적·의료적 현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에 반영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과거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에서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격주의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 이후 간호사들이 신체적 처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영적 차원까지 고려하는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환자를 전인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실제 현장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확인하며, 생명윤리 연구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일] 많은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쉽게 정리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며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동안, 이 문제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조건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실감하게 되었고, 그 무게와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명윤리 연구가 추상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맥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깊이 갖게 되었으며, 이후 연구에 임하는 태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한국 사회는 고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과거보다 높아지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성 약화와 돌봄 체계의 붕괴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돌봄 체계를 회복하고, 인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명윤리 연구원의 역할과 수요는 과거보다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임신·출산·연명의료와 같은 생명 관련 이슈뿐 아니라, 공동체성과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윤리적 기준 제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 윤리, 고령화·고독사·돌봄 위기와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돌봄 공백 문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간다움과 존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윤리 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라 로봇 수술, 인공지능 기반 진단, 환자 데이터 활용 등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문제 역시 생명윤리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명윤리 연구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학부에서 철학·윤리학을 전공하며 윤리적 사고의 기본 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폭넓게 학습하면서 인간 존엄성의 근본 원리와 도덕 판단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학문적 훈련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다루지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윤리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치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논점을 정리하고 윤리적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는 능력은 현재 생명윤리 연구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수/부전공 등] 이후 생명대학원에 진학하여 생명윤리를 전공하였으며, 인격주의 윤리학을 바탕으로 배아 연구, 유전자 기술, 연명의료 결정 등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철학적 윤리 언어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철학·윤리학에서 쌓은 이론적 깊이와 생명윤리 대학원의 실천적·제도적 접근이 결합되면서, 철학, 신학, 생명과학, 의학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관점으로 생명윤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축적은 현재 생명윤리 연구원으로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학부를 졸업하고 집안 가업을 위해 늦은 나이에 다시 2년제 안경광학과에 입학하여 안경사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병원에서 검안사로 근무하며 고령의 백내장 환자를 만났는데, 청력이 좋지 않은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수술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 환자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령 환자의 의사결정이 과연 충분한 설명과 동의에 기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환자의 판단 능력과 자율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이후 생명윤리 연구에서 환자 자율성, 동의, 존엄성 문제를 실제 사례와 연결해 고민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병원에서 검안사로 근무하던 중, 병원에서 주최한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와는 전혀 다른 의료 환경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의료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마주하며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생명이 지닌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도 임신·출산, 의료 결정, 돌봄과 관련된 생명윤리 이슈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생명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현재 생명윤리연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저는 생명윤리대학원에 진학하여 생명윤리를 전공하며 관련 이론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인격주의 생명윤리, 의료윤리, 연명의료 결정 등 생명윤리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학술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제 연구 수행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 조사와 정리, 자료 분석, 세미나 준비 등을 통해 학문적 논의를 실제 연구 성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학원 수학과 연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생명윤리연구원으로 입직하는 데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되었고, 현재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생명윤리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자나 교수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소나 국가 생명윤리 정책원,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 지역 의료윤리센터 등으로 진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시절 축적한 생명윤리 전문성은 윤리지침 개발이나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분야에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의료원 의료윤리 사무국과 같은 기관에서 활동하며,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연명의료 결정 과정, 환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윤리 갈등 조정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를 위해서는 생명윤리 관련 학술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추는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명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윤리연구원은 단순히 이론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의미를 두는 사람에게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학, 철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탐구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여 복합적인 윤리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생명윤리 연구는 추상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과 사회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지침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학문과 현실을 잇는 작업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에게 잘 어울립니다. 특히 생명, 인간 존엄, 윤리적 판단과 같은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 직업에서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은 인간의 존재 가치와 도덕적 책임, 사회적 정의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전공으로,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급변하는 경제 발전과 기술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철학·윤리학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의학, 생명과학, 법학, 인공지능, 생명윤리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공을 통해 다져진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은 생명윤리연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영역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철학·윤리학이 사회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충분히 설계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09

확장

법학연구원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을 위해 법률 실태, 법의식, 사법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해
조사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자



하는 일

- 설문조사, 통계분석, 인터뷰 등을 통한 법률 실태 및 법의식 관련 조사 분석
- 사법제도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입법안 평가, 정책효과 분석 등 연구
- 법원 등 사법기관의 운영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판례분석, 양형 편차 진단 등 법률 운용 및 형량 실무 연구
- 국내외 사법제도 비교 및 연구
- 국민의 사법 이해 증진 및 신뢰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문헌조사, 자료정리, 연구기획 등 연구원 일반 업무 수행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논리적 분석)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범주화) 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물이나 행위를 분류한다.
- (문제해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한다.

• 지식

-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사회와 인류) 사회적 법 감정, 국민 법의식, 제도 운영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법철학, 정치철학, 사회철학 등

법학

민법총칙, 형법총론, 헌법, 행정법총론, 상법, 국제법, 법사회학 등

정치학

정책학개론, 정부규제론, 정치사상사, 입법과정론, 공공거버넌스 등

행정학

행정부총론, 조직이론, 공공관리론, 재무행정론, 정책분석평가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법, 정치 봉사단 활동(법정 모니터링, 배심원단 참가 등)
- 모의법정, 모의국회 등 법제 관련 프로그램 참여
- 학부생 연구인턴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프로젝트 관리 관련 훈련과정
- 사회조사분석 및 통계 관련 훈련과정
- 데이터 정리 등 디지털 도구 활용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법무법인 주관 서포터즈 및 인턴십 참여
- 연구기관에서 문헌조사·연구 보조 경험
- 연구기관에서 자료 분석·이슈 리서치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

• 자기 주도적 활동

- 관심 법률이나 제도를 선정해 규정 구조와 주요 쟁점 정리
- 판례 검색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사실관계·판시 이유 비교 분석
- 특정 법·정책 이슈를 주제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 수행 등

• 석사/박사

주전공	타전공	
 법학	 철학·윤리학	 공공정책학
헌법, 형법, 민법 등 법체계 이해를 통한 규범 구조 연구 등	규범윤리, 법철학 기반의 법적 판단과 규범 체계 분석 연구 등	법·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규범적 쟁점 연구 등

• 진출 분야

- 1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법·제도, 정책 관련 부서
- 2 국책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



(국내) 한국공법학회

<https://www.kpla.or.kr/>



(국내) 한국헌법학회

<http://www.kassl.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법학연구원은 법령 및 판례의 규범 구조와 제도적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 핵심 쟁점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핵심 역량으로 간주됩니다. 학부에서는 법철학, 윤리학, 정치철학 등을 통해 제도 형성의 원리와 가치 충돌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연구인턴·조사 프로젝트에서는 자료 수집·코딩·판례 비교·이슈 맵 작성 등을 직접 수행해 연구 실무의 흐름을 익혀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법제도 연구는 사회학, 정치학, 정책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법의식·제도 신뢰·절차적 정당성 같은 사회 지표를 해석할 수 있다면 분석의 깊이가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개념·원칙 단위로 규범 판단의 근거를 분해하고, 제도적 문제와 가치 충돌을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데 강점을 지녀, 단순 법령 요약이 아니라 “왜 이러한 개선이 정당한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원 단계에서는 관심 있는 법·정책 이슈를 선택해 쟁점 구조·가치 갈등·개선 방향을 정리한 소규모 분석 사례를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MEMO

10

확장

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

유사명칭

사회복지연구원, 사회정책연구원

관련직업

노인복지정책연구원,
장애인복지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복지정책연구원



하는 일

-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수립
- 주택, 환경, 고용, 교통, 보건 등 사회복지와 연관된 분야의 정책을 분석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 체계 설계
- 노인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장애인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주요 복지정책 모델 연구
- 지역사회맞춤형 사회서비스 연구 및 실천모델 개발
- 정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요구를 반영한 복지정책 제언 및 실행 지원
- 문헌조사, 자료정리, 연구기획 등 연구원 일반 업무 수행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 (학습전략)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윤리학, 응용윤리학(인공지능 윤리, 생명의료윤리, 신경윤리 등), 기술철학, 사회철학, 불교철학, 도가철학, 유가철학 등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등

행정학

정책학개론, 정책분석평가, 조직이론, 행정법총론, 재무행정론 등

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노동경제학, 공공경제학, 복지경제학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연구윤리 관련 프로그램 참여
- 학부생 연구인턴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프로젝트 관리 관련 훈련과정
- 사회조사분석 및 통계 관련 훈련과정
- 데이터 정리 등 디지털 도구 활용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복지기관, 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의 실무 경험
- 연구기관에서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 등 연구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사회복지사

• 자기 주도적 활동

- 사회복지 제도·사업 중 하나를 선정해 대상·지원 방식·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기초 조사
- 사회복지 관련 기본 통계를 찾아 변화 추세를 정리하고 해석 작성
- 최근 사회복지 이슈의 문제점 분석 등

• 석사/박사

주전공	타전공	
 철학·윤리학	 사회복지학	 공공정책학
사회복지 제도·정책의 윤리적 기준과 정의론적 쟁점 연구 등	사회문제·복지정책의 구조와 실천 기반 연구 등	복지정책 형성·집행·평가 과정의 정책 분석 연구 등

• 진출 분야

- 1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정책 관련 부서
- 2 연구기관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국내) 한국사회복지학회

<https://kasw.org/>



(국내) 한국사회정책학회

<http://www.kasp.re.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사회복지정책연구원을 준비할 때는 복지제도와 정책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요 변화와 제도 설계의 취지, 지원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근거 기반으로 해석하는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이 직업을 준비할 때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과 함께, 전공에서 기른 가치 판단과 해석 능력을 정책 연구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에서는 사회보장, 정책분석, 복지경제학 등을 보완적으로 익히고, 연구인턴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제도 별로 대상집단, 급여 구조, 재정 흐름, 성과 지표를 직접 정리해보는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정의, 형평성, 국가 책임,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입직 과정에서는 이러한 관심과 준비를 분석 보고서, 연구경험, 연구실적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Interview

사회복지정책연구원/연구소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도시연구원에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분석해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보조, 전세 구입자금 대출, 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 영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운영되어 시민들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러한 분절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전달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상담체계와 매뉴얼·지침의 표준화,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주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연구와 정책 설계를 진행해 왔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저의 하루 업무는 진행 중인 연구 주제와 과제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출근 후 당일 연구 일정과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분석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는 국토부나 서울시와 협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조율합니다.

또한 과제 특성에 따라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의 현장 의견을 수집하거나, 지침·매뉴얼 개발과 관련된 내부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는 보고서 작성과 검토에 집중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외부 자문회의나 내부 검토가 중심이 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가구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하여 반지하 거주 실태를 조사하고, 취약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지하 주거의 구조적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상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대규모 이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일] 힘들었던 점은 일이 많고 변수가 많아서라기보다, 주거복지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나치게 낮다는 구조적 현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주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집값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하는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주거빈곤층을 위한 지원제도, 월세 보조, 저리 대출,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정책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책이 주목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인력과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사업을 확대하거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속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결국 현장에서 그대로 체감될 수밖에 없었고,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가 분명함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힘든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직접 체감하며,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분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주거복지 분야의 연구와 정책 기획은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동화만으로는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통계 분석을 넘어, 정책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해석하는 역할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정책연구원의 핵심 업무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행정데이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분석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정량적 분석 능력과 현장 이해를 결합할 수 있는 연구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주거복지 연구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지속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직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구 역량과 함께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고민과 공공성을 향한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하다 보면, 철학·윤리학에서 다루는 존엄성, 정의, 공정한 분배와 같은 개념이 실제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취약계층 지원, 공공임대 배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더 시급한가’, ‘어떤 방식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철학·윤리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개입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정책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엇이 삶을 지탱하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시각입니다. 철학·윤리학은 이러한 인간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거복지 현장과 연구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복수/부전공 등] 저의 복수전공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영학이었습니다. 경영학을 통해 조직 운영, 자원 배분, 예산 관리 등 실무적인 사고 방식을 익힐 수 있었고, 이는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정책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대상과 사업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학에서 배운 효율성, 구조 설계, 성과 관리에 대한 관점은 정책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학부 시절 다양한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과 호프집 서빙, 학원과 과외 교사, 부인복 비즈 달기와 같은 작업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일을 경험하며 다양한 연령대와 생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회복지정책연구원으로 일하는 현재에도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다 보면 제도나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생활의 맥락과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다양한 노동 경험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활 현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책 대상자의 삶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조건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시험을 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합격하면서 이 분야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개인적 성취보다 공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과 도시의 변화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제 업무 선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입직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도시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제 나름의 분석으로 정리해 연구물 형태로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법령, 제도 해설서, 정책보고서를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정책의 배경과 쟁점, 적용 논리를 문서화하여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을 해석하는 틀과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주거복지정책 연구 분야는 도시정책, 사회정책, 주택정책과 연계된 영역이어서 연구자의 경로가 비교적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정책 부서, 도시·주거 관련 연구원, 학계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자의 경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해석하고 연구문제로 전환하는 능력과 도시계획·사회복지·주거정책 등 인접 분야의 학문적 기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쌓는 것이 향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가진 역량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직접적으로 돕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때 느끼는 보람은 연구자로서도 큰 동력이 됩니다.

이 일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냉철함을 함께 갖춘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태도와 동시에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할 때 필요한 이성적 판단력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다면 주거복지 연구 분야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경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은 사회생활 전반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전공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의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소만 입력하면 부동산 규제, 입점 선호 업종, 지역 주민들의 인식, 생활권 수요 등 19개 카테고리의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최종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비어 있는 토지에 대한 제안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총괄해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담당자가 철학과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며,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가치의 영역’을 식별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수록 오히려 철학·윤리학의 전공지식과 사고방식은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Interview

사회복지정책연구원/연구소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은 사회복지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문헌 검토와 통계 및 자료 분석, 현장조사를 통해 근거를 축적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 연구보고서, 정책 브리프 등을 작성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현장 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팀장으로서는 과제 배분과 일정 및 예산 관리를 맡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연구 초안에 피드백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외부 연구 과제 수주와 협력 관계를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저의 하루는 아침 팀 미팅으로 시작해 당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전개됩니다. 오전에는 주로 문헌과 자료를 검토하고 통계·설문 데이터를 정리·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간중간 보고서 초안이나 정책 제안서 일부를 작성하고 내부 리뷰를 거쳐 수정합니다. 오후에는 정부 담당자나 현장 실무자, 학계와의 회의나 현장 방문이 잡히는 일이 많고, 프로젝트 관리 차원에서 예산·일정 조정, 외부 협력자 섭외, 연구원 지도 같은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마감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초안 정리와 발표자료 준비에 집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날 핵심 과제를 정리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은 제가 참여 주도한 아동권리 관련 연구 결과가 지방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현장 실무자들이 개선된 결과와 사례를 전해왔을 때였습니다.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일]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였습니다. 예산·운영 방식 문제로 지자체, 현장 기관, 시민단체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던 프로젝트에서 연구자는 학문적 원칙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여러 차례 방향을 조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갈등 조정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방법과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 연구와 협업 과정에서 한층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앞으로 이 분야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평가와 수요예측의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해석 능력과 데이터 윤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동시에 복지정책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요구하므로 통계, 행정, 법률, 현장 실무 역량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 수요가 늘 것입니다. 초년 입직자는 연구의 기초가 되는 논리적 사고와 윤리적 감수성을 유지하되, 통계 툴 사용 능력과 현장 경험을 조기에 쌓아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 전공은 사회복지정책 연구에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철학적 훈련을 통해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이는 정책 문제의 핵심을 정리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윤리학에서 다루는 정의, 공정성, 존엄성과 같은 개념은 복지정책에서 자원 배분과 지원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이론적 기준이 되어 정책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복수/부전공 등] 행정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제도 운영 구조와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그 덕분에 정책 연구 결과를 실제 행정 현장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초기 적응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이처럼 철학·윤리학이 제공하는 가치 판단과 비판적 사고에 행정학적 제도 이해가 결합되면서, 연구의 완성도와 실무 활용도가 함께 높아졌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강의 이수 외에도 윤리학 세미나, 정책 토론 동아리, 학술대회 발표와 같은 비교과 활동이 연구기획과 발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정책적 언어로 설명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복지기관 인턴십, 시민단체 활동, 국책연구소 인턴 경험이 유용했습니다.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한계를 직접 보며, 연구 결과를 실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감각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취득, 통계 소프트웨어 활용, 정책평가 관련 워크숍 수료와 같은 실무 중심의 훈련은 입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철학 수업에서 다루던 정의와 공공성의 문제를 학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사회 구조와 연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며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마주하는 제약과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고, 이론적 성찰이 제도 설계로 이어질 때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의 역할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연구와 실천을 결합하는 진로로 방향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공성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창 시절과 대학원에서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입직 과정에서는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 학회 네트워크, 지도교수의 추천 등을 활용했으며, 저는 수시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선발 절차는 이력서와 연구계획서 제출을 중심으로 한 서류 전형, 사전 과제 또는 실무 역량 평가, 그리고 전문성과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면접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학위 논문을 요약해 정리하고, 학술대회 발표 자료와 정책 제안서 초안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고 통계 분석 도구 활용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교수, 학회, 동문 등을 통해 실무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추천을 받으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을 기반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 부처의 정책 담당자, 학계의 연구교수나 교수로 진출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NGO, 컨설팅 기관, 사회적기업 등으로 경로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구직으로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가 유리하며, 국제 이슈를 다루는 경우에는 영어 능력과 국제 협력 경험이 중요한 준비 요소가 됩니다. 아울러 통계와 데이터 분석 역량, 정책평가 관련 교육 이수, 복지 및 정책 현장의 인턴십 경험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결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거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높은 사회적 기여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성과가 제도 개선이나 현장 변화로 연결되면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특성상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일정 수준의 일과 삶의 균형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과제 마감 시기에는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이 직업은 공공성과 사회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글로 정리하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에게 잘 어울립니다. 또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력, 연구 설계와 자료 분석 역량, 협업과 조정 능력,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정책 대상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은 사고의 깊이와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윤리적 통찰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정책이나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 가치적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학·윤리학적 훈련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론 중심의 학문인 만큼 실무적 기술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초기 적응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행정학, 통계학과 같은 과목을 함께 공부하거나 복수전공을 통해 실무 지식을 보완하고, 인턴십이나 봉사활동, 공모전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철학적 성찰을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작은 조사나 정책 제안서를 직접 작성해보며 학문을 실천으로 연결해보는 경험을 해본다면 전공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확장

언론정책연구원



언론(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현상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언론에 관련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자



하는 일

-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 언론환경과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황 분석
- 방송통신 및 언론 관련 정책, 법·제도,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 공영방송 및 언론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연구
- 설문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언론 이슈와 정책 수요 분석
-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서비스 변화에 대한 정책 연구 및 대응방안 도출
- 문헌조사, 자료정리, 연구기획 등 연구원 일반 업무 수행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논리적 분석)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 (영어) 영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윤리학, 동양고전강독, 응용윤리학(의료윤리 등), 정치사회철학, 기술철학, 미디어와 예술철학, 유가철학, 불교철학, 도가철학 등

언론학

미디어정책론, 미디어산업론, 방송학개론, 커뮤니케이션이론 등

정치학

정책학개론, 정부규제론, 정치과정론, 공공정책학, 비교정책론 등

행정학

행정법총론, 정책분석평가, 조직이론, 공공관리론, 재무행정론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연구윤리 관련 프로그램 참여
- 학부생 연구인턴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프로젝트 관리 관련 훈련
- 사회조사분석 및 통계 관련 훈련과정
- 데이터 정리 등 디지털 도구 활용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연구기관에서 문헌조사·연구 보조 경험
- 연구기관에서 자료 분석·이슈 리서치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

• 자기 주도적 활동

- 관심 있는 언론·미디어 정책을 선정하여 제도 내용과 규제 구조 정리
- 방송, 플랫폼 이용 통계를 조사하여 특징과 변화 흐름 정리
- 최근 언론·미디어 이슈를 사례로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 등

• 석사/박사

주전공	타전공	
 언론·미디어학	 철학·윤리학	 공공정책학
미디어 구조, 뉴스 생산·유통, 언론 제도 연구 등	미디어·언론 정책의 윤리적 기준과 공공성·표현의 자유 쟁점 연구 등	언론정책의 형성·집행·규제 구조와 공공성 평가 연구 등

• 진출 분야

- 1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 정책 관련 부서
- 2 국책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관련 정보처

(국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https://www.kmcc.go.kr/user.do>



(국내)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kpf.or.kr/>



(국내) 한국미디어정책학회

<https://www.ksmps.or.kr/>



관심청년을 위한핵심 조언

언론정책연구원은 미디어 산업과 기술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규제 체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정책적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이 직업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에서 기른 가치 판단과 비판적 사고를 정책 분석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에서는 미디어정책, 산업 구조,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제도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연구 인턴십이나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이슈를 선정해 법령, 통계, 규제 사례를 연결해 문제 구조와 대안을 스스로 구성해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표현의 자유, 공공성, 규제 정당성, 정보 윤리처럼 언론정책의 근본 가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정책의 의미와 방향성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논증 및 비판적 사고 훈련 덕분에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관계자의 논리를 비교·정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지원 단계에서는 언론정책 이슈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경험과 분석 보고서, 프로젝트 결과물, 논문이나 발표 자료 등 연구 실적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교육직

12. 철학·윤리학교수

13. 인문학강사

12

주요

철학·윤리학교수



대학에서 철학·윤리학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강의하고,
동양철학, 서양철학, 윤리학, 응용철학 등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자

유사명칭

철학교수, 윤리학교수



하는 일

- 대학과 대학원에서 철학·윤리학 이론 강의
-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논문 작성 및 연구 프로젝트 지도
- 철학·윤리학 관련 강의 교재와 토론 자료 개발 및 교육과정 개선
- 학생 질문에 답변하고 학업, 진로 상담 등 개인지도 수행
- 존재론, 인식론, 도덕철학 등 근본 철학문제 및 사회철학 관련 분석 및 연구
- 동서양 철학사상의 고찰과 해석을 통한 학제적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 철학·윤리학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의미 연구 실시, 연구 결과 기반 논문 및 학술 서적 발표
- 학과 운영 관련 회의 참석, 입학 전형 등 학교 행정 업무 참여, 연구실 관리 및 예산 집행,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 철학·윤리학 관련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협력 활동 수행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학습전력)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 (가르치기)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지식

-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영어) 영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데 필요한 지식
- (교육 및 훈련)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이론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동양철학, 서양철학을 기반으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과목
(공동) 철학상담, 교직과목

정치철학

정치사상사, 정의론, 민주주의 이론, 현대정치철학, 공공철학 등

사회학

사회문제론, 사회이론, 지식사회학, 위험사회론, 사회변동론 등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사상사, 도덕교육론, 교육과정이론, 교육방법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교내 철학관련 특강 참여
- 교내·외 철학 학회, 학술대회 참여
- 학부생 연구인턴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영어 및 제2외국어 과정
- 사회조사분석 및 통계 관련 과정
- 프로젝트 관리 관련 과정 등

● 일경험

- 연구기관에서 문헌조사, 연구 보조 경험
- 연구기관에서 자료 분석, 이슈 리서치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

- **자기 주도적 활동**

- 원전 강독
- 주요 철학 이론이나 윤리 사상을 선정하여 핵심 개념과 논점 정리
- 사회·기술·정치 현안을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해석 방향 정리 등

- **석사/박사**

주전공



철학·윤리학

서양철학 및 동양철학 이론과 규범윤리·응용윤리의 학문적 연구 등

- **진출 분야**

1 국내 대학(대학, 전문대학)

2 해외 대학



관련 정보처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riss.kr/>



(국내) 한국철학회

<https://hanchul.org/>



(국내) 한국윤리학회

<https://www.kethics.com/>



관심청년을 위한핵심 조언

철학·윤리학교수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 전부터 학술 세미나나 독서 모임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자신의 사고를 말로 풀어 설명하고 타인과 토론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사과정에서는 단독 논문뿐 아니라 학회 활동, 공동연구,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태도와 성실성을 보여주는 경험이 실제 임용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개념 분석과 논증 구성,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교하게 다루는 데 강점이 있어 강의 설계, 토론 지도, 텍스트 해석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특히 정치철학, 응용윤리, 생명윤리처럼 사회적 현실과 맞닿은 주제를 함께 다룰 경우 교육과 연구의 연결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실제 교수 역할에서는 연구 성과뿐 아니라 학생 상담, 학과 운영, 학술 행사 기획 등 다양한 책임이 함께 요구되므로, 교수 임용을 준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교육·연구관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Interview

철학·윤리학 교수/대학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대학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의 핵심은 수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철학과 전공 학생과 복수전공 학생들이 학과에서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특성과 방향에 맞게 학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참여하며, 학과 구성원들이 보다 긍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은 모두 중요한 책무인데, 저는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운영에 있어서는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이 지닌 성격과 목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학부생과 석사·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각 단계에 맞는 운영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수업을 중심으로 하루의 업무가 이루어지며, 매일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학과장을 맡고 있어 학과 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 업무도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교외의 우수한 연구자들을 초청한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국내외 학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 세미나, 학술대회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가장 큰 보람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때입니다. 수업과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의 깊이를 넓혀 가는 과정을 볼 때 교육자로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철학과 전공생뿐 아니라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철학 수업을 통해 사고의 관점이 달라지는 모습을 마주하는 일도 의미가 큼니다. 이러한 교육 활동이 학과와 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느낄 때 보람은 더욱 커집니다.

[힘들었던 일] 힘든 점은 철학자가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으로 오해받을 때입니다. 철학의 가치와 역할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 학과와 학생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 답답함을 느낍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과정 또한 교육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대학교육의 방식과 체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식 전달 중심의 강의는 점차 온라인 콘텐츠나 인공지능 기반 학습 도구로 대체되고, 교수자의 역할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에서 사고를 이끌고 질문을 설계하는 교육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와 전제를 성찰하도록 돕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이나 입직자에게는 단순한 전공지식뿐 아니라 교육 설계 능력, 학생 지도 역량, 그리고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도가 점점 더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은 인간과 사회, 가치와 규범을 근본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교수로서 수행하는 강의와 연구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철학·윤리학을 전공하며 쌓은 이론적 기초와 사유 훈련은 이후 강의에서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철학적 입장과 쟁점을 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복수/부전공 등] 저는 사회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고, 이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은 철학적 논의를 현실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철학·윤리학교수로서 강의할 때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사회 문제와 연결해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대학원 시절부터 다양한 학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연구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고,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술 교류는 공동연구로 이어졌고, 연구 주제를 확장하고 연구 역량을 축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여러 재단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연구 기획부터 수행, 결과 확산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소통하는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연구자로서의 이력과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대학생 초기에 저는 철학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학과 형이상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인간과 세계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의 방식에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 시절 성폭력 상담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여성학, 법정 모니터링, 영화 비평 등 다양한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학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저는 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구교수, 학과 초빙교수, 비정년 전임교수 등 여러 직위를 거치며 교수 직무를 준비해 왔습니다. 각 자리에서 연구와 강의, 행정 업무를 맡아 수행하며 조직의 발전과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 있게 일하는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성실성, 책임감, 진정성이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연구와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공 분야의 연구를 심화해 학문적 영향력을 넓히는 연구자 경로가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중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장이나 보직교수로서 학과와 대학의 운영에 참여하며 교육 제도와 학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회 임원 활동, 학술지 편집위원, 학문 정책 자문 등 학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진출할 수 있고,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자문이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교수 이후의 경로는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학문적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고를 늘 깨어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과 연구, 학생 지도를 오가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장점입니다. 교수라는 직업은 현재에 머무르기보다 계속해서 배우고 갱신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연구에만 전념하고자 한다면 학교보다는 독립연구자로서의 삶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교수가 된다는 것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이자 운영자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학과와 교육 과정을 함께 책임지고 운영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특히 대학원생이 있는 대학에서는 지도교수로서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와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직업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전공이 요구하는 학습 방식과 태도를 충분히 이해한 뒤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윤리학은 동양철학이든 서양철학이든 원전 읽기가 학습의 핵심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은 전공 과정 전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으며 원서를 읽고 사유하는 과정 자체가 철학 공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윤리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라기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연구에 가까운 학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호기심을 갖는 태도 역시 의미는 있지만, 철학·윤리학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이 학업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래 생각하고 질문하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면, 철학·윤리학은 충분히 매력적인 전공이 될 수 있습니다.

Interview

철학·윤리학교수/대학 병원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의과대학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윤리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석·박사 학위 과정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윤리의 고전적 사례들 강의를 하고 있고, 유전상담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유전상담학 윤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관의료윤리위원회 위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의 전공의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윤리 관련 강의도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하루의 업무는 학기 중 강의 일정과 병원 위원회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학기 중에는 강의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나뉘며, 하나의 강좌를 여러 교수들이 나누어 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인문학 강좌의 경우, 제가 맡은 강의는 주로 3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되어 진행됩니다.

일반 대학과 달리 의과대학의 강의는 블록식으로 운영됩니다. 본과 2학년 의료윤리 강의는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블록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개인별 평가와 시험을 실시합니다. 의과대학의 방학은 여름과 겨울에 각각 약 2주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병원 업무로는 기관의료윤리위원회와 뇌사판정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되며, 특히 뇌사판정위원회는 주야간이나 휴일 구분 없이 개최됩니다. 연간 개최 횟수는 10회 미만입니다.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학회의 운영과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었던 때가 제게는 가장 보람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학회가 다루는 주요 윤리 쟁점들을 정리하고 학술대회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생명윤리 분야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학회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공동체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던 경험은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며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 전반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교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불안과 현장의 갈등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교육자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동시에 의료와 교육이 사회적 신뢰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동물보호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생명윤리와 의료윤리에 관한 법적 체계는 전반적으로 정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 「연명의료결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생명, 자기결정권,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보다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명윤리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될 사회 초년생이나 입직자는 단순히 법 조항을 숙지하는 데 그치지보다, 각 법률이 다루는 윤리적 쟁점과 찬반 논리의 구조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의료 현장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꾸준히 접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학부 과정에서 수강했던 서양철학사 강의는 철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사유의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강한 서양윤리학과 사회철학 강의들은 윤리적 쟁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논증하는 능력을 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에서 생명의료윤리를 전공하며 ‘죽임’과 ‘죽게 방치함’의 구분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경험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료윤리 교육과 생명윤리 관련 위원회 활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국내 한 의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문제를 실제 의료 현장과 연구 환경 속에서 다루며, 이론이 어떻게 제도와 실무에 적용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관련 학회에서 총무간사를 맡아 활동한 경험을 통해 학회 운영, 학술대회 기획, 의료윤리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문 칼럼 기고와 방송 패널 출연을 통해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쟁점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험을 쌓은 것 역시, 전문적 논의를 사회적 언어로 풀어내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철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학과에 지원하였으나, 철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업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었고 점차 이 학문을 깊이 탐구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제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교수의 길을 진로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 또한 교수직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학문을 계속하는 데 큰 제약은 없었습니다. 이후 2000년 전후로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관련 학회들이 잇따라 창립되면서 의과대학과 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국내 한 의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약 1년 남짓 근무한 경험이 입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문제를 실제 의료 현장과 연구 환경 속에서 다루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료윤리학은 학제간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철학적 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연구 경험이 실제 준비 과정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와 교육, 제도 논의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준비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대학 교육과 연구를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정책 연구나 자문을 수행하거나, 국가병원·대학의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서 윤리 자문이나 교육 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학회 운영과 공공 정책 자문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위해서는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법·의학·과학기술 등 인접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학제 간 소통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거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윤리적 가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직업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격이나 적성이 분석적이고 추론적이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한 경우에도 이 직업과 잘 맞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인간의 삶과 죽음,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해 온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직업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을 보살피는 성향을 지니고, 인간에 대한 책임과 돌봄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직업의 특성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의료윤리, 생명과학 연구윤리 분야에 꾸준한 관심이 있다면 철학·윤리학 전공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공은 관련 분야의 이론적 기초를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게 해 주며, 복잡한 윤리적 쟁점을 깊이 있게 사유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특히 인간의 삶과 죽음, 가치와 책임을 둘러싼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윤리적 질문을 오래 붙들고 사유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면, 철학·윤리학 전공은 진로 탐색의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3

확장

인문학강사



철학, 문학, 역사, 예술 등 인문학 지식을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며
교양과 사고력, 비판적 사유 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자



하는 일

- 교양, 사고력, 비판적 사유 능력 함양을 위한 철학·문학·역사·예술 인문학 강의 설계 및 진행
- 문헌 조사, 강의 자료 정리 및 연구 기반 콘텐츠 업데이트
- 인간성, 가치관 성찰 등에 대한 인문학 스토리텔링 및 사례 강의
- 영화, 여행, 일상문화, 리더십 등 융합형 인문학 콘텐츠 제작 및 강의
- 기업, 학교, 학원, 기관 대상 맞춤형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강의계획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 수강생 피드백 수렴, Q&A 진행 및 교육 효과 평가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가르치기)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 (학습전력)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 (창의력)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시간관리) 자신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관리한다

● 지식

- (교육 및 훈련)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이론에 관한 지식
- (심리)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
- (상담) 개인의 신상 및 경력 혹은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상담을 하는 절차나 방법 혹은 원리에 관한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논리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불교철학 등

국문학

고전읽기, 문학비평론, 현대문학의이해, 비교문학 등

역사학

한국사, 세계사개론, 역사방법론, 동아시아사 등

문화학

문화이론, 문화인류학, 대중문화의이해, 문화콘텐츠학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인문학 동아리 참여
- 인문학 토론대회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어학 관련 프로그램
- 인문학 기반 비즈니스 전략 관련 과정

● 일경험

- 문화기관에서 강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문교육 실무 보조 경험
- 출판사·연구소에서 자료 조사·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인문학 콘텐츠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

- **자기 주도적 활동**

- 관심 분야의 인문학 개념과 사상을 정리하여 주제별 핵심 내용 구조화
- 강의 가능 주제를 설정하고 텍스트·사례를 선별하여 강의 흐름과 토론 질문 구성
- 사회·문화 현상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강의 적용 방향 정리 등

- **진출 분야**

- | | |
|---|------------------------------|
| 1 | 학교,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
| 2 | 민간 문화센터, 인문학 아카데미, 기업교육 운영기관 |
| 3 | 비영리 교육단체, 지역사회 교육기관 |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국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nile.or.kr/>



(국내)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인문학강사는 철학, 윤리, 문학, 사상 등 인문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맞는 강의를 설계하고, 토론과 질문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인문학강사를 준비할 때는 인문학 지식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전달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학 중 스터디, 독서토론, 소규모 강의 실습 등을 통해 수업 기획과 진행 경험을 쌓고, 문화기관이나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지원 경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개념 분석력, 질문 설계 능력, 논증 구조화 역량이 강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개념을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직 과정에서는 학위보다도 강의안, 토론 질문, 수업 흐름, 실제 강의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Interview

인문학강사/교육기관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대학교, 아카데미, 공공기관 등에서 서양철학 분야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철학의 이해>, <행복에 이르는 지혜> 등 서양철학과 윤리학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 철학아카데미에서는 전공분야인 고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화, 서양 고전 읽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원, 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는 서양 철학, 그리스 신화와 문화, 서양 고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양 고대 철학 분야의 고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오전에는 강의를 준비하며 관련 텍스트와 자료를 검토하고, 강의안과 수업 내용을 정리합니다. 오후에는 몸담고 있는 철학아카데미에 출근해 수업 자료를 보완하거나 강의 운영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담당 과목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더러는, 학기에 한 번씩 있는 대학의 출석수업을 진행하고, 공공기관에서 특강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에 맞게 강의 내용을 조정해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의 내용을 수강생들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개념을 강의를 통해 차츰 받아들이고, 수업이 끝난 뒤 공감이나 흥미를 표현해 줄 때 강의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수강생 중 한 분이라도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때에는 철학적 사유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확신이 들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힘들었던 일] 강의와 연구에 대해서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왔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문학 강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수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생활 측면에서 고민이 따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과 사유를 나누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건디게 해 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 일부까지 자동화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모든 사고 영역이 기술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념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맥락을 깊이 이해하며,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섬세한 사고의 영역은 여전히 전문 지식인의 역할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오히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소수의 인문학 전공자들은 희소한 역량을 지닌 인재로 평가받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엄밀한 사고력과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철학 분야는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동서양철학사, 윤리학, 논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사회철학 등 철학과의 기본 교과목을 이수하였고,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 전공에 필요한 라틴어와 희랍어를 공부했습니다. 이 두 고전어는 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학부 시절부터 준비해 두었으며, 이러한 준비는 석사과정에 진학한 이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전어에 대한 이해는 이후 전공 연구뿐 아니라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복수/부전공 등] 학부에서 별도의 부전공을 이수하지는 않았으나,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고대 그리스 철학과 관련된 고전 문헌학 과목, 특히 필사본 연구 수업을 청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그리스 철학 문헌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전공 학문뿐 아니라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가 이후 연구와 번역 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전공 교수님과 함께 라틴어와 희랍어 원문을 꾸준히 읽었던 경험은 인문학 강사로서 텍스트를 깊이 이해하고 강의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전을 직접 읽으며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점검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철학적 개념과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 발표회와 학회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한 경험은 철학 전반에 대한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다양한 연구 주제와 접근 방식을 접하면서 텍스트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고등학교 시절 윤리 과목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입시와 무관하게 서양철학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신 경험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이후 철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학부를 졸업한 뒤 석사과정을 이수하였고, 이후 해외 유학을 목표로 외국어 시험을 준비하여 장학금 선발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고대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학위 논문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형이상학』 등 국내에 아직 출간되지 않았던 철학 고전들을 번역하여 귀국 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연구 재단에서 동서양 명저 번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현재 전문 번역가이자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는 데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인문학 강사로서 대학 강의를 지속한 이후에는 여러 방향으로 진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강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축적한 경우, 대학의 전임교원이나 연구직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 강사로서 쌓은 사고력과 글쓰기 역량,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출판·번역, 연구소 연구원, 언론·방송 관련 직무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 과목에 대한 기본 이해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세부 전공 영역에서 요구되는 전문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야 합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전공 언어 능력, 텍스트 해석 능력, 글쓰기와 강의 역량이 이후 진로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준비 요소가 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예전과 달리 철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요즘에는 인문학 가운데서도 철학이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강사는 강의와 저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함께 고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지닌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차분하고 성실하며,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강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철학 분야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동양철학의 경우 한문과 중국어, 일본어가 필요하고, 서양철학의 경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현대 언어뿐만 아니라 라틴어와 그리스어 같은 고전어에 대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기반을 갖추고 꾸준히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직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철학 전공에는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습득 능력이 중요합니다. 논리학에 흥미가 있고, 외국어를 배우는 데 비교적 수월함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철학 공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윤리학은 텍스트를 정밀하게 읽고 개념을 엄밀하게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역량이 학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졸업 후 반드시 철학을 전공해 교직의 길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번역가나 대중 강연자와 같은 진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은 특정 직업에 한정되되보다, 이후의 진로를 지탱해 주는 깊이 있는 사고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인문학강사/교육기관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대학교와 아카데미에서 철학 분야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철학 및 교양을 강의하고, 아카데미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철학을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철학이 밀바탕이 되는 교양으로부터 철학 전문 과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교양으로는 글쓰기 수업이나 논리 수업, 윤리, 인간의 제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철학적 시안과 깊이로 접근, 현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전공 과목으로는 철학적 사유의 제문제들 예컨대 형이상학적 문제들로부터 윤리, 실천적 문제들을 다루며, 서양철학사 및 정치 사회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철학아카데미에서는 한편으로는 제 전공인 프랑스 현대 철학을,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학 일반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저는 대학교 강사입니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다른 회사원처럼 매일의 출근이나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닌, 강의를 있을 때만 학교를 가고, 그 외엔 강의 준비 및 학문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시간 조율이 자유롭고, 어떤 의미에선 원하는 시간에 그렇지만 더 많은 효율을 내기 위해 다른 회사원들보다 초과하는 시간을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밤을 새울 수도 있고, 쉬지 않고 장시간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제가 강의하는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강의를 통해 형성된 인간적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때, 교사로서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수업 이후 한 명의 학생이라도 사유가 깊어진 질문을 던질 때, 강의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로 도움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힘들었던 일] 학생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개인적 기준에 따라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의 평가에서 강의 내용과 무관하게 감정적인 비난이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접했을 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강의자로서의 태도와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간은 경제적 성취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며, 삶의 의미와 가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어떤 시대에도 반복해서 제기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다루는 인문학의 역할은 단기적인 성과나 상업적 이익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앞으로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확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인문학 프로그램 증가, 온라인 강의와 콘텐츠 활용의 확산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문학 강사에게는 다양한 학습자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강의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직자는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강의 기획력, 전달력, 토론 진행 능력, 콘텐츠 활용 역량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을 강의하는 인문학강사에게 철학·윤리학 전공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문적 기반입니다. 동서양 철학사 전반은 물론 철학의 주요 쟁점, 철학적 인간학, 문화철학, 역사철학, 사회철학 등 주제별 철학 과목은 강의 내용의 핵심을 이룹니다. 또한 영미 분석철학, 독일 관념론, 실증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철학 사조에 대한 이해는 전공 강의와 교양 강의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다양한 철학 학회 활동이나 철학아카데미와 같은 철학을 위한 대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철학·윤리학 연구자이자 인문학강사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구 논문 발표와 토론, 집단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치관과 세계관에 변화가 생겼고, 이는 보다 폭넓은 연구자의 안목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나아가 해외 유학과 같은 경험을 통해 세계 석학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었던 점 역시 사유의 깊이와 지혜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고교 시절부터 질문하고 사색하는 일을 유난히 좋아했던 개인적 성향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철학이 자연스럽게 제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품었던 이러한 질문들은 대학 전공 선택과 이후의 진로로 이어졌고, 인문학 강사라는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정확한 독해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철학적 텍스트를 정밀하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논리에 기반한 철학적 창의성, 그리고 사유의 정합성을 꾸준히 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전공 서적과 논문, 저술을 읽으며 기본기를 다졌고, 토론과 논문 작성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구성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도 지속적으로 힘썼으며,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경력개발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석·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연구자나 교수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언론 분야, 출판 관련 직무, 컴퓨터 및 콘텐츠 관련 사업 등 다양한 경로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분야에서도 손해보다 이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경험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철학 전공 분야를 꼼꼼히 살펴보고 깊이 있게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철학이라는 학문을 충실히 공부하는 과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등 철학의 핵심 기능들을 충분히 익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두고, 보다 나은 사회와 행복한 미래를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을 합니다. 눈앞의 당장 드러나는 이익이나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사유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 과정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명확한 결말이나 해답이 없는 질문을 붙들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이며, 질문해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물음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을 모색해야 하며,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일이 곧 인간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문제, 행복의 실천적 의미, 존재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즐기고 사유하는 사람이라면 이 직업에 잘 어울립니다.

이 직업의 장점은 순수 학문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자기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교양이 충분히 축적된 사회일수록 인문학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높아지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보수 역시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순수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는 자기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문화와 교양이 충분히 갖춰진 사회일수록 철학과 인문학의 위상은 높아지며, 각 분야의 전문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 역시 뒤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간의 연구와 사유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고역이나 의무감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얕 그 자체를 추구하는 일은 매우 경이롭고 흥분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유하고 질문하는 즐거움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둘 수 있는 학생이라면, 철학·윤리학 전공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라.

예술·디자인·방송직

14. 소설가

15. 극작가

16. 게임시나리오작가

17. 구성작가

18. 취재기자

19. 연극연출가

20. 방송책임프로듀서

14

소설가

확장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을 구상하고 주제를 결정하여 일정 형식의 소설을 저술하는 자



하는 일

-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현장 조사, 가상 세계 검토, 취재 등을 통해 소설의 주제 및 등장인물, 배경 등 설정
-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 줄거리 구성
- 등장인물의 성격, 줄거리의 전개, 심리묘사, 역사적 배경 등 세부내용 설정 및 작품 저술
- 저술물에 대한 인세, 원고료, 저작권료 계약 진행
- SNS, 블로그, 방송매체 등을 통한 작품 홍보 및 인터뷰, 북콘서트 등 독자 소통 마케팅 활동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창의력)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 (추리력)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해 새로운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 (예술) 음악, 무용, 미술, 드라마에 관한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심리)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응용윤리학(인공지능, 신경, 생명의료윤리 등), 기술철학, 정치사회철학, 예술철학, 동양고전강독, 불교철학, 도가철학, 유가철학 등

문예창작

서사창작, 플롯과 구성, 인물창조론, 스토리텔링이론, 창작워크숍 등

국어국문학

현대문학의 이해, 문학비평론, 내러티브이론, 텍스트분석, 고전읽기 등

영어영문학

영미소설읽기, 영미문학개론, 문학번역, 창작영작, 비평적 글쓰기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글쓰기, 창작, 비평 관련 특강 참여
- 창의적 글쓰기 워크숍 참여
-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웹소설 스토리 개요 및 기획 관련 훈련과정
- 웹소설 단편 스토리 제작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웹소설·콘텐츠 제작사에서 스토리·자료 조사 지원 경험
- 출판사에서 원고 검토·편집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

• 자기 주도적 활동

- 읽은 소설의 서사 구조와 전개 방식을 분석하여 장면 구성과 흐름 정리
- 짧은 이야기 아이디어를 설정해 인물의 목표·성격·관계를 작성하고 상황별 대사·행동 구성
- 일상 관찰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단편을 작성하며 서사 전개와 문체 표현 연습 등

• 진출 분야

1 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기관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작가회의

<http://hanjak.or.kr/>



(국내) 국립한국문학관

<https://www.nmkl.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소설가는 인물과 세계를 창조하고, 사건과 갈등의 전개를 통해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는 창작자입니다. 소설가를 준비한다면 작품을 끝까지 완성해 보는 경험을 꾸준히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단편 창작, 플롯 실험, 세계관 기획을 반복하며 자신의 문체와 강점을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 연재나 공모전 참여를 통해 실제 독자 반응과 피드백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창작 포트폴리오를 축적하는 동시에, 불안정한 결과 속에서도 집필 루틴을 유지하는 훈련이 됩니다. 또한 대필, 윤문, 외주 작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경험해 보면, 요구에 맞춰 글을 조정하고 작업을 관리하는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인물의 동기와 가치 갈등, 세계관의 사상적 기반을 깊이 있게 다뤄 온 경험이 소설 창작에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철학적 분석 훈련은 복잡한 사유를 플롯과 장면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며, 논리적 사고는 이야기의 인과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윤리학적 관점은 인물의 선택과 갈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실제 창작 루틴과 결합해 간다면, 소설가로서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소설가/프리랜서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소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학 및 창작 작업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뢰를 받아 진행하며, 개인과 단체, 기업으로부터 외주 작업을 문의받습니다. 유동적인 직업 특성상 정해진 업무 분야나 범위는 없으며, 의뢰마다 작업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 작업의 경우 피드백이나 윤문·첨삭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대필, 세계관 창작, 작품 연재 등의 작업을 맡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해진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창작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대부분의 소설가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하루 작업 일정을 확인하고, 목표 작업량을 설정합니다. 이후 오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며 외주 작업 및 개인 작품 작업을 합니다. 대략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가량을 작업하는데, 필요에 따라 더 늦게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설과 같은 작품은 무조건 오래 앉아있었다고 하여 퀄리티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짧게 앉아있어도 좋은 작품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일 달라지는 컨디션과 진행 정도에 따라 유동적인 일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규칙적인 집필 루틴을 만들어, 하루에 정해진 최소 시간만큼은 작업을 한다는 규칙도 중요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소설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재미와 만족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소설은 텍스트를 통해 가장 직관적으로 전개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집필자의 역량과 창의력이 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만큼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이 비교적 분명하게 보이고, 스스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때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프리랜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했던 소설 대필 작업입니다. 당시에는 경력도 짧고 작업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제 작업물을 받아보신 뒤 예상보다 훨씬 큰 만족을 표현해 주셨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전해 주셨습니다. 가장 불안정하고 흔들리던 시기에 받았던 평가였기에, 지금까지도 오래 기억에 남는 보람 있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 소설 작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작품의 완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는 충분히 좋은 작품이라 생각되더라도,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알 수 없음'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과연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는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제대로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불안을 강하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단편 소설을 완성해 투고했을 때, 스스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탈락 통보를 받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경험을 통해 작품과 평가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고, 실패 역시 창작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글을 쓰는 속도나 자료를 검색하는 능력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가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향후 변화의 가장 큰 핵심 역시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 예를 들어 집필 속도나 검색 속도 등은 인정하되, 동시에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쉽게 다루지 못하는 비유와 묘사, 주제에 대한 섬세한 접근 등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왜 인공지능의 작품보다 인간의 작품에 더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예술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향유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결국 인간다움에 대한 탐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인공지능과 기술들이 등장하겠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은 생겨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릴스나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가 인간의 사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문학이 다시 주목받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은 단단한 뿌리를 가진 영역으로, 일시적인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을 통해 기른 사고의 깊이와 인간, 사회, 가치에 대한 감수성은 소설 속 인물과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특히 인간의 선택과 갈등, 옳고 그름의 경계, 삶의 의미와 같은 주제들은 철학·윤리학에서 다루는 질문들과 맞닿아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야기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공 자체가 창작 기술을 직접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야와 질문의 수준을 한 단계 넓혀 주는 역할을 했다고 느낍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고교 시절 영상 공모전에 참여해 단편 영화와 연극 무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지금의 창작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촬영 현장에서 보조 감독이자 작가로 참여하며, 하나의 대본과 이야기 전개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작품을 두고도 다양한 시선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고, 그 경험을 계기로 정형화된 답보다는 다층적인 해석을 허용하는 예술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현장 일용 근무, 외식업 주방 보조, 체육시설 관리, 요리 교육 분야 강의, 숙박시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여러 삶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접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배경과 고민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인물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행을 즐기며 낯선 지역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간 머무르는 생활을 반복해 왔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감각과 소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경험하고, 그 순간에 깊이 몰입해 느끼려 했던 태도와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상황까지도 피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지금의 창작 활동에 중요한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책과 글자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전학을 가게 되면서 친구가 없어졌고, 그로 인해 도서관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기부터 소설에 빠져들게 되었고,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주최하는 백일장 공모전이나 글쓰기 공모전에 참여하여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 공부보다는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꿈이 소설가로 굳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글을 쓰고 읽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제가 쓴 작품을 독자들이 여러 시선에서 바라보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영화 및 연극을 만들어보며, 비단 소설가가 아니더라도 문학과 예술을 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은 다른 전공으로 진학했지만, 별도로 글쓰기를 이어가며 프리랜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 그 덕분에 처음 꿈꿨던 창작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책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어떤 책이든 읽어보려 했던 태도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글을 읽고 쓰는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미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작품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러한 개인 작품들을 다시 다듬어 공개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러 공모전과 대회에 참여하면서 글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노출했고, 이를 통해 제 필체와 스타일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차 외주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주로 작업한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온 개인 작품과 그 결과물들이 프리랜서 작가로 입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였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개발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소설가는 비교적 진출할 수 있는 직업 경로가 다양한 편입니다. 글쓰기를 기반으로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나 연출, 대본 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 전문 연재 작가로서 한 장르에 집중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론가로 활동하거나, 저처럼 프리랜서 작가로 외주 작업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글쓰기 자체를 주제로 강연을 하거나, 개인 과외나 교육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가라는 직업은 본인이 어느 방향에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확장은 개인의 꾸준한 준비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그 준비 과정이 반드시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을 지속적으로 쓰고, 읽고, 스스로의 글을 다듬는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소설가의 본질은 결국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본질에 충실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 브랜딩, 다시 말해 자신의 활동과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가는 활동 반경이 상대적으로 좁은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작업과 이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으면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과와 활동을 꾸준히 정리하고 알린다면, 진로 확장의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거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소설가는 잘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하는 것을 즐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과정을 좋아한다면 더없이 잘 맞는 직업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속하기 어려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상하고 표현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소설가라는 직업에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직업이며, 흔히 말하는 덕업일치가 가능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자유로움을 들 수 있습니다. 소설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만 잘 해낸다면, 다른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이 직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은데, 아무래도 흔하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역량으로는 상상력과 응용력, 기획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평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 오래 버틸 수 있는 끈기와 체력, 집중력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더라도,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한다면 소설가라는 직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소설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철학·윤리학 전공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향유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는 철학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작품이든 그 안에는 삶, 가치, 선택, 윤리와 같은 철학적 질문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으며, 이러한 질문을 깊이 있게 다룰수록 작품의 울림도 커진다고 느꼈습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사유의 깊이를 기르고 사고의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인물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설은 결국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밀도가 달라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학·윤리학 전공은 소설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값진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Interview

소설가/프리랜서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소설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는 자신이 인식하고 경험한 세계의 모습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개인이 바라본 세계와 삶의 의미를 이야기로 구성하여 독자와 공유하는 것이 이 직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활동은 출판사를 통해 신인 작가로 등단하여 문예지에 소설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작품을 집필한 뒤 출판 계약을 맺어 작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본격적인 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창작이라는 활동의 특성상 정해진 업무 시간이나 고정된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작업량이나 최소 작업 시간을 스스로 정해두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는 최소 8시간 이상, 평일에는 최소 4시간 이상 창작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창작 활동을 단일한 직업으로만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직업 활동과 병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창작을 유일한 생업으로 삼게 되면 하루의 일상이 창작에 과도하게 매몰되거나, 반대로 작업 리듬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직업과 병행할 경우 생활 리듬이 보다 규칙적으로 유지되고, 이러한 일상의 균형이 창작에 필요한 에너지와 생기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처음부터 병행하기보다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창작에 집중하여 충분히 몰입해 본 이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출판 담당자분께 원고를 보낸 지 불과 두 시간 만에 원고 전체를 읽으신 뒤,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다”는 말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고독한 작업이기에, 내 글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작품을 접해본 출판 담당자로부터 진심 어린 반응을 들었을 때, 큰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아마도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일] 집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파고드는 작업입니다. 특히 저는 어두운 감정을 구조화하고 재해석하는 글을 주로 쓰다 보니, 작업 과정에서 종종 내면이 소진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탈진 상태가 반복될 때는 분명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작품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익히며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집필 작업 역시 인공지능 창작과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간이 글을 쓰는 속도는 인공지능이 넘어선 지 오래이며,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단편 소설 정도의 글은 충분히 잘 써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후에는 장편 소설, 더 시간이 지나면 대하소설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분한 내재적 동력을 지니지 못한 창작자들은 자연스럽게 창작 활동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방향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하나의 자격을 가르는 거름망처럼 작동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을 문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창작자들이 또 어떤 문장들을 써낼지에 대해서도 궁금함을 느낍니다. 이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관련해, SNS에서 보았던 “작가는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어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다”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를 조금 확장하자면,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가장 적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옮기려는 작업을 기꺼이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기본적으로 문예 창작은 문예 창작 ‘기술’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테크닉적인 요소가 매우 많은 영역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부분은 반복적인 연습과 교육, 조연을 통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작품의 내포, 즉 작품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한다고 해서 무한히 성장하는 부분은 아니며, 창작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창작자가 세상을 어느 정도 깊이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의 세계관과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작품의 깊이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철학의 인식론, 현상학, 언어철학, 분석철학, 윤리학은 문예 창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철학을 통해 다양한 사상과 관점을 논의의 참여자로서 해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곧 창작자의 의식 수준을 다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사람들의 독서 감상과 반응을 살펴보는 경험이 제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품이 독자에게 어떻게 읽히는지, 어떤 지점에서 공감하거나 이탈하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글이 작가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주 느꼈습니다.

특히 일반 독자의 시선에서 작품을 해석한 감상문이나 서평을 접하면서, 독자의 무의식이 서사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요구와 공명하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글을 쓸 때 독자의 반응을 보다 의식하고, 서사가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점검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대학교에 산업공학도로 진학한 뒤, 저는 체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계 속에서 소외되는 인간들의 이야기에 강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처음에는 사회학 수업을 들었지만, 사회학만으로는 제가 가진 호기심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윤리학을 접하며 한 가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리학은 진실을 말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만 하는 '건전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철학과 윤리학을 다시 바라보니, 논리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치밀한 논증이 아니라, 오히려 엉성하더라도 서사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현재 많은 출판사에서 신인 작가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만 5천 자 내외 분량의 단편소설 두 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 작가 공모전 외에도 장편소설 공모전이나 다양한 형태의 소설 공모전이 수시로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공모전을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도 비교적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단 작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먼저 출판사별로 발간되는 문예지를 꾸준히 읽으며 각 출판사의 성향과 경향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자신의 글의 성격과 잘 맞는 출판사를 목표로 공모전에 도전하거나, 반대로 특정 출판사의 성향에 맞추어 글을 조정해 공모전에 참가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작가들 중 다수는 문학과 관련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며 집필 활동을 함께 이어가는 방식이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는 작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판 편집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출판 실무 전반을 다루는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는 원고 검토, 편집 기획, 교정·교열 등 출판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일부 과정의 경우 선발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난이도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준비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출판 관련 실무를 익히는 과정은 작가로서 글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작품을 완성도 있게 다듬는 데에도 의미 있는 자산이 됩니다. 글쓰기와 문학을 중심에 두되, 이를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경로를 함께 고민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작가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이 바라본 세계와 생각을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글에 공감한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은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 만큼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을 지닌 사람, 혹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작가라는 직업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가 지닌 힘을 깊이 고민하고, 글을 통해 세상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글쓰기에 도전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긴 글이 아니어도 괜찮고, 짧은 글이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술과 철학을 각각 전공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철학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좇아야 하는지를 묻고,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불편함조차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에 의미가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식과 의식, 실존과 윤리, 그리고 삶의 가치를 다루는 철학은 결코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학은 인간을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며 ‘생활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철학·윤리학은 충분히 가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차분히 공부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5

극작가

확장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 주제에 맞는 대본(극본, 희곡)을 창작하거나
기존 문학작품을 연극 형식으로 각색하는 자

유사명칭

희곡작가, 희극작가



하는 일

- 연극 및 문학 작품, 역사적 사건, 개인 경험, 문화예술 등 조사를 통한 주제 발굴 및 선정
- 작품 주제 설정, 전체 줄거리 구상, 연극 전개에 따른 막(Act)·장(Scene) 구성
- 연극 전개에 필요한 인물·사건·배경 기획, 무대장치·인물·배경 설명 해설 작성
- 대화·독백·방백 등 등장인물 대사 창작, 배경·효과·조명·행동·표정·심리 지문 작성
- 인물 표정·음향·조명 등 표현 요소에 대한 연출가 협의, 각본 연출 참여 및 지원
- 소설·에세이 등 기존 작품의 연극 각색 작업
- 작성한 각본의 연출 참여 및 지원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창의력)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 (추리력)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해 새로운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 (예술) 음악, 무용, 미술, 드라마에 관한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심리)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응용윤리학(인공지능, 신경, 생명의료윤리 등), 기술철학, 정치사회철학, 예술철학, 동양고전강독, 불교철학, 도가철학, 유가철학 등

문예창작

창작글쓰기, 스토리텔링입문, 극작법, 서사창작 등

공연예술

희곡분석, 연극개론, 공연기획, 연극사, 연극연출론 등

영화학

시나리오작법, 영상서사론, 드라마극본, 영화스토리텔링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글쓰기, 창작, 비평 관련 특강 참여
- 글쓰기 워크숍 및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 희곡, 단막극, 시나리오 등 관련 공모전 참가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웹소설 스토리 개요 및 기획 관련 훈련과정
- 웹소설 단편 스토리 제작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극단, 공연제작사에서 대본 개발·리서치 지원 경험
- 문화·콘텐츠 기관에서 스토리 구성, 스크립트 보조 경험 등

● 자기 주도적 활동

- 공연, 대본을 분석해 서사 구조와 갈등 전개 방식 정리
- 간단한 인물 설정과 대사를 구성해 짧은 상황극 작성
- 관찰한 장면을 바탕으로 짧은 장면 구성과 전개 흐름 실습 등

• 진출 분야

1 공연예술 창작단체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국내) 영화진흥위원회

<https://www.kofic.or.kr/>



(국내)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극작가는 무대 위에서 구현될 이야기를 구상하고,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사건의 전개를 희곡이라는 형식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극작가를 준비할 때는 완성된 희곡과 창작 과정이 드러나는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극단, 공연제작사에서 리서치나 대본 개발 보조를 경험하고, 짧은 상황극, 단편 희곡을 여러 편 완성해 두면 실무 이해도와 창작 역량을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연을 볼 때도 인물 동선, 장면 전환, 갈등 구조를 분석해 기록해 두면 자신의 구성 능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가치 충돌, 도덕적 딜레마, 인물의 동기 해석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서사 깊이를 만드는 데 매우 유리하며, 논리적 사고력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공 기반의 분석력에 창작 실습을 결합해, 씬 구성표·초고·수정 기록 등으로 정리된 포트폴리오를 갖추면 극작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16

확장

게임시나리오작가



게임 개발을 위하여 게임 세계관과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구상하여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스크립트를 제작하는 자

유사명칭

게임스토리작가

관련직업

게임기획자, 게임기획전문가,
게임콘텐츠작가, 콘텐츠기획자,
웹소설/웹툰 스토리작가



하는 일

- 게임의 방향성과 기획 의도에 따른 전체적인 게임 세계관, 시스템, 월드 구조 분석 및 스토리텔링 콘셉트 설계
- 스토리 플로우 기반 캐릭터, 배경 등 주요 스토리 구성, 캐릭터 설정, 주제설정, 소재탐구, 게임벤치마킹 등 게임의 전반적인 기획 수행
- 전체 게임 시간, 게임 주제, 게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스토리보드 및 콘티 구성
- 스토리보드 기반 세부 스토리·대사·대화 등 창작 및 게임 적용 스크립트 제작
- 퀘스트 목표, 보상, 진행대사, 컷신(cut-scene) 대본 및 카메라 연출 시나리오 요소 작성
- 캐릭터 동선, 화면 구성, 카메라 움직임, 연기 등을 시각화한 게임 시나리오의 구조 및 제작 방법 표현
- 라이브 서비스(운영) 단계에서 이벤트 스토리, 업데이트용 시나리오 작성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창의력)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 (추리력)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해 새로운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 (범주화) 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물이나 행위를 분류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예술) 음악, 무용, 미술, 드라마에 관한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디자인) 밑그림, 제도와 같이 디자인에 필요한 기법 및 도구에 관한 지식
-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동양고전철학, 기술철학, 예술철학, 불교철학, 도가철학, 유가철학 등

문예창작

극작법, 서사창작, 인물창조론, 플롯과 구성 등

영화학

시나리오작법, 영화스토리텔링, 드라마극본, 영상서사론 등

게임학

게임시나리오기획, 게임세계관디자인, 인터랙티브서사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스토리 제작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 실감미디어융합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게임기획 전문가 양성 훈련과정
- 웹툰 스토리 제작 관련 훈련과정
- 콘티 제작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게임 회사에서 시나리오·세계관 구성 지원 경험
- 콘텐츠 제작사에서 스토리·자료 조사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게임기획전문가

• 자기 주도적 활동

- 즐겨 하는 게임의 세계관과 서사 구조를 분석하여 장르별 전개 방식과 특징 정리
- 짧은 상황을 설정해 캐릭터 설정·성격·목표를 작성하고 간단한 대사와 관계도 구성
- 생성형 인공지능 API 활용 등을 통해 게임 개발하기 등

• 진출 분야

- 1 게임 개발사(PC, 모바일, 콘솔 등), 애니메이션 제작사
- 2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콘텐츠 기업, AI·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업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게임산업협회

<http://www.kgames.or.kr>



(국내)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http://www.scenario.or.kr>



(국내)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게임시나리오작가는 게임의 세계관과 캐릭터, 사건의 흐름을 설계하고 이를 퀘스트, 대사, 연출 등 게임 요소에 맞게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게임시나리오작가를 준비할 때는 전공에서 기른 개념 분석력, 논리적 사고, 인간의 선택과 갈등에 대한 이해를 게임 서사와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라도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거나 게임 공모전, 게임잼, 학내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 이야기와 시스템의 연결을 경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나리오 문서, 기획서, 대본을 직접 작성해 보고, 최신 게임의 스토리 전달 방식과 연출을 분석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캐릭터의 동기와 갈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세계관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데 강점을 지닐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Interview

게임시나리오작가/게임기업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게임시나리오작가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형태로 게이머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텍스트를 활용한 대사나 설명 항목뿐 아니라, 스토리와 설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출이나 사운드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 기획서와 대본을 작성하며,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텍스트를 데이터 테이블에 직접 입력하는 작업도 수행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게임 속에서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는 역할입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하루는 정해진 루틴 없이 유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날은 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하고, 어떤 날은 거의 글을 쓰지 않고 회의와 협업에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업무의 상당 부분은 회의로 이루어지며, 시나리오 작업 역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팀 단위로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한 글은 시나리오 파트장이나 팀장의 검토를 거친 뒤 수정·보완되며, 이후 그래픽 팀이나 프로그램 팀과 함께 해당 내용을 어떻게 연출하고 구현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제가 개발에 참여한 게임을 플레이한 이용자로부터 게임 속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누군가의 시간과 감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콘텐츠와 창작물이 그렇듯, 게임 역시 누군가의 삶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작업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 게임 시나리오 작업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이나 기획 의도, 시스템적 요구에 맞춰 타인을 위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창작욕이 강한 사람에게는 처음에 예상했던 일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설계하고 전달할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훈련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협업과 기획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과거에는 게임시나리오작가, 시나리오기획자, 시나리오라이터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글을 전담하는 사람, 이를 데이터화 해 게임에 적용하는 사람, 그래픽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출과 전달을 담당하는 사람이 각각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역할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시나리오를 쓰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게임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표현되는지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는 직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이나 입직자라면 기본적인 게임 개발 흐름과 기술, 그래픽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이 취업과 업무 수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 전공은 인간의 선택과 갈등, 선과 악, 책임과 자유 같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데 강점을 지닙니다. 이러한 전공 배경은 캐릭터의 동기와 행동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게임 속 서사가 단순한 설정 설명을 넘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철학·윤리학에서 훈련되는 논리적 사고와 개념 정리 능력은 복잡한 세계관과 설정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플레이어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야기 중심의 게임이나 윤리적 선택이 중요한 게임일수록 철학·윤리학 전공이 지닌 사고 방식이 시나리오 작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제 경험상 게임 회사에서는 전공이나 이론보다도 실제로 게임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간단한 게임이라도 직접 개발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면, 게임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 역시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기획과 구현의 관점에서 게임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이러한 경험이었습니니다.

요즘은 개발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개인이 혼자서도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만약 혼자 작업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동기 부여가 어렵다면, 게임 공모전이나 게임잼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과 협업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경험은 게임 시나리오 작업뿐 아니라 게임 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에 제가 가졌던 꿈은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많아 창밖의 놀이터를 바라보며, 창문에 손가락을 대고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손가락은 제게 대신 놀아주는 환상의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락실이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화면 속에 수많은 '손가락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게임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게임 개발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모든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입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구현되는지를 고려해 문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게임 시스템과 연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최신 게임을 의식적으로 많이 플레이하며, 스토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텍스트와 연출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를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예전 게임에 대한 애정도 있었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최근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입직 이후 업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게임시나리오작가는 다른 게임기획자와 유사한 경로를 따라 경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시나리오 파트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파트장이나 팀장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하나의 게임 개발을 총괄하는 디렉터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디렉터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기획, 그래픽, 프로그램, 서버 등 게임 개발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를 위해 별도로 정해진 준비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개발 경험을 현장에서 꾸준히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개발에 참여하다 보면 시나리오와 게임 기획뿐 아니라 그래픽과 프로그램 등 다른 직군의 업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게임시나리오작가로서 이후 경로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게임 제작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타 직군과의 협업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 회사는 야근이 많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보다 스스로 작업에 몰입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창작한 내용이 게임에 반영되고, 그 결과물을 수십만 명의 유저가 즐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미 완료한 작업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 만들고 싶어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곳은 자신의 작업물에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에 대한 흥미 없이 단순히 직업으로만 접근한다면 이러한 특성은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직업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첫째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게임 시나리오 작업은 조용히 혼자 글만 쓰는 일이 아니라, 기획, 그래픽, 프로그램 등 여러 직군과 협업하며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로 작성한 글도 UI(User Interface Designer) 디자이너를 통해서만 유저에게 전달되므로, 다른 직군과의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전공이 특정 직업에만 한정되는 전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공 안에서 직업을 위해 무엇을 익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철학·윤리학 전공을 통해 쌓은 사고방식과 문제의식을 이후 선택하게 될 직업 안에서 어떻게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윤리학 전공은 진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각자의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전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EMO

17

구성작가

확장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오락프로그램, 교양물 등
비드라마용 방송프로그램의 진행 원고를 작성하는 자

유사명칭

방송작가





하는 일

- 방송 트렌드, 타사 프로그램·시청자 반응 분석을 통한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 교양, 예능, 라디오 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구성 방향 협의
- 제작 자료(문헌, 영상, 사례 등) 및 시청자 채널 모니터링을 통한 사연 수집·정리
- 프로그램 제작 형식 기획 및 구성안 검토
- 프로그램 성격 및 연출 방향에 맞춘 원고, 대본 작성
- 출연진, 전문가, 시민패널 등 섭외 협의 및 제작 정보 제공
- 프로그램 회차별 구성안, 큐시트, 콘티 작성 보조
- 촬영, 녹음, 방송 중 진행자 지원 및 실시간 원고, 대본 수정·보완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창의력)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 (범주화) 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물이나 행위를 분류한다.

● 지식

-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 (예술) 음악, 무용, 미술, 드라마에 관한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의사소통과 미디어) 방송 구조, 미디어 문법, 프로그램 포맷 등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응용윤리학(인공지능, 신경, 생명의료윤리 등), 기술철학, 예술철학, 동양고전강독, 불교철학, 도가철학, 유가철학 등

국어국문학

문학비평론, 서사론, 내러티브이론, 텍스트해석, 현대문학의 이해 등

문예창작

창작글쓰기, 스토리텔링입문, 극작법, 서사창작 등

언론미디어학

방송학개론, 방송제작실습, 콘텐츠기획, 설득커뮤니케이션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글쓰기 워크숍 참여
-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 교내 홍보대사 및 콘텐츠 제작 부서·동아리 활동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방송콘텐츠 관련 훈련과정
- 영상제작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방송·프로덕션에서 구성안 작성·자료 조사 보조 경험
- 콘텐츠 제작사에서 리서치·스토리 구성 지원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

• 자기 주도적 활동

- 다양한 방송 영상 콘텐츠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구성 흐름 정리
- 관심 주제를 선정해 자료조사와 인터뷰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며 정보 구성 방식 정리
- 촬영·편집 방식을 참고해 장면 배열과 내레이션 흐름을 구성한 간단한 구성안 작성 등

• 진출 분야

- | | |
|---|--------------------------------|
| 1 | 방송사, 프로덕션, 드라마 및 웹콘텐츠 제작사 |
| 2 | 광고·홍보·마케팅 대행사 |
| 2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 홍보 콘텐츠 관련 부서 |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방송작가협회

<https://www.ktrwa.or.kr/>



(국내) 한국방송협회

<http://www.kba.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구성작가는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기획하고 자료를 조사해 방송 문법에 맞게 정리하며, 대본과 큐시트, 인터뷰 질문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흐름과 메시지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성작가를 준비할 때는 아이템을 어떻게 조사하고 정리해 방송 문법에 맞게 재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학 재학 중에는 실제 프로그램 포맷을 참고해 구성안, 큐시트, 인터뷰 질문 리스트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기획, 자료조사, 대본 작성과 검수의 전 과정을 경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내 행사나 유튜브, 팟캐스트 제작 경험 역시 실무 이해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정리하면 현장 적응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복잡한 정보를 구조화하는 능력, 사회와 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력, 다양한 관점 속에서 핵심을 선별하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구성작가 업무와 높은 적합성을 보입니다. 특히 교양, 시사, 인문 분야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역량이 아이템 맥락화, 인터뷰 질문 설계, 프로그램 메시지의 방향성 설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방송 트렌드 분석과 대본 수정 작업을 병행하면 콘텐츠 제작 흐름을 이해하는 지원자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구성작가/방송국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구성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성작가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계하고, 청취자에게 전달될 내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해 직접 집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생방송 기반으로, 교통·생활 정보, 지역 소식, 청취자 참여 코너, 기획 코너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루 방송을 위해 아이템을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자료조사와 구성안 작성을 진행합니다. 이후 진행자와 사전 미팅을 통해 방송의 톤과 매너를 조율하고, 원고와 멘트 흐름을 세밀하게 다듬어 생방송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지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매일 진행되는 각 코너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대본 작성, 전화 연결 조율, 사연 검토와 선별 작업도 함께 수행합니다.

구성작가는 단순히 원고를 작성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청취자의 반응과 지역 현장의 분위기를 읽어 프로그램의 방향을 잡는 일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흐름을 설계하는 기획력뿐 아니라,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청취자에게 보다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구성작가는 업무 특성상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당일의 기상 상황, 날짜, 지역 행사, 주요 이슈 등을 확인하며 방송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합니다. 이후 관련 뉴스와 자료를 조사해 그날 방송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외부 출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와 인터뷰 내용을 조율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외부 출연자의 원고를 검토하고, 프로그램 형식에 맞게 방송용 원고로 정리합니다.

방송 시간 약 3~4시간 전까지는 담당 PD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오프닝부터 브릿지, 각 코너, 클로징까지 전체 원고를 집필하고 보완·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맡은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5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저는 보통 생방송 약 2시간 전에 방송국에 출근합니다. 출근 후에는 당일 원고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뉴스나 날씨처럼 방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합니다. 이후 PD와 진행자와의 회의를 통해 최종 송출 내용과 진행 방식을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원고에 반영합니다.

생방송 중에는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하여 교통 상황, 사고 제보, 긴급 공지 등 실시간 정보를 수집합니다. 동시에 청취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며 방송에 반영할 내용을 선별하고, 상황에 따라 진행자에게 즉각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합니다.

생방송이 끝난 후에는 담당 PD와 함께 다음 날 또는 이후 방송 아이টে에 대해 논의하고, 출연자 섭외와 일정 관리, 청취자 참여 선물 선정, 청취자 민원이나 외부 기관 협조 요청에 대한 응대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루의 업무는 당일 방송을 마무리한 뒤, 다음 방송을 위한 아이টে를 구상하며 정리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라디오 프로그램은 시각 자료 없이 오직 청각만으로 청취자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매체입니다. 특히 교통·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취자분들로부터 “방송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퇴근길에 큰 도움이 됐다”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평일 저녁 생방송 시간대에는 많은 청취자들이 하루 동안의 일상과 감정을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그 사연을 소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라디오가 누군가의 저녁 시간을 지탱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퇴근길이 외롭지 않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하루가 잘 마무리된다”는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구성작가로서 방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취자의 삶에 스며드는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일] 매일 생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아이টে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생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편성 방향, 방송국의 정책, 부서 간 협의, 담당자와 결정권자의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아이টে’이라는 이유만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현안이나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싶어도 내부 정책상 방송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때는 출연자, 담당 PD, 진행자, 내부 부서 등 여러 주체의 의견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한 원고를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심리적·실무적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방송 제작이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협업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업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구성작가로서 더욱 유연하게 사고하고, 책임감 있게 판단하며,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방송 제작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반복적인 업무나 자료 조사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보조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이는 오히려 구성작가가 기획과 판단, 창의적 구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결국 변화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도 빠른 판단력, 유연한 소통 능력, 집필의 정확성과 속도, 시의성에 대한 감각을 고루 갖춘 구성작가는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은 특정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그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며,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송은 공적 성격을 가진 매체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어떤 언어로 다루어야 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윤리적 감수성은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거나 지역·사회 이슈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실제로 주변의 방송작가 중에는 철학과·윤리학·사회학 전공자도 많은데, 이들은 주제 선정 과정에서 뛰어난 문제의식과 분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복수/부전공 등] 미디어영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사진, 영화, 스토리텔링, 매체사 등을 공부한 경험 역시 구성작가의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송은 시각·음성·내러티브가 결합된 복합 매체이기 때문에, 영상 문법과 매체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은 라디오뿐 아니라 TV 교양물이나 시사 프로그램 구성에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미디어 수업에서 배운 콘티 구성, 화면 설계, 편집 개념 등은 프로그램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주변의 많은 구성작가들도 미디어 관련 복수전공 경험을 현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말을 듣고, 성향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구성작가는 청취자 사연부터 외부 기관 협업까지 폭넓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방송 현장에서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안팎에서 참여했던 공공기관 SNS 기자단, 서포터즈 활동은 실무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경험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료조사, 인터뷰 구성, 기관 담당자와의 소통 방식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고, 방송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외부 출연자를 섭외할 때 해당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구성작가는 기관 보도자료, 행정문서, 홍보 자료 등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기자단 활동 경험이 이 과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성작가 업무는 사람과 기관, 다양한 현장 사이를 잇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과 사람을 깊이 경험해 본 활동들, 그리고 대외활동을 통해 습득한 조사·기획·협업 경험이 실무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라디오를 자주 들었습니다. 화면 없이 목소리와 말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청취자들의 일상과 감정을 이어주는 라디오 특유의 매력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에는 라디오를 통해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을 얻었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라디오라는 매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기 진로는 소설 창작이었습니다. 현재도 소설가로 활동하며 문학적 성취를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을 하다 보니, 문학적 서사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 지점에서 라디오는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생방송이라는 시간성과 청취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소설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생명력을 지닌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소설을 쓰며 발달한 서사 구성 능력, 인물 이해, 문장감각은 라디오 구성작가 업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방송의 흐름을 설계하고, 청취자의 감정에 닿는 문장을 만들며, 다양한 이야기를 프로그램 안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문학적 창작 역량이 큰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라디오에 대한 개인적 애정과 문학 창작 경험이 결합되면서, 지금의 구성작가라는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소설이 '내 안의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면, 라디오는 '지금 이곳의 사람들과 살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라는 점에서, 저에게는 두 작업이 서로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저는 오랜 기간 라디오 애청자로 지내며 자연스럽게 라디오 매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이후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방송 제작 과정과 라디오 내부의 운영 방식 등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구성작가 직무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직 과정은 방송사의 공개 모집에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문예창작학 전공, 소설가로서의 창작 경험, 고정 출연을 통한 방송 참여 경험 등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상세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대외활동을 통해 쌓은 소통 능력, 자료조사 경험, 콘텐츠 기획 역량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면접에서는 구성작가로서의 경력이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히는 대신, 라디오를 오래 청취한 경험에서 나온 방송 문법 이해도,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며 쌓은 프로그램 흐름에 대한 실질적 이해, 소설 창작 활동을 통해 길러온 아이디어 발굴력과 집필력,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 경험을 통해 얻은 소통 능력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디오에 대한 애정과 방송 경험,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경력 없이도 입직할 수 있었습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구성작가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실력 중심의 평가 구조입니다. 방송업계는 경력보다는 실제 기획력, 집필력, 소통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노력과 성장이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 프로그램 내에서 구성작가는 방송 흐름을 설계하고 전체적인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무 현장에서 가지는 영향력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보수나 일과 삶의 균형은 방송사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프리랜서라는 특성상 일정 조절이 가능하며, 개인의 선택과 역량에 따라 일의 강도와 일정 폭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함도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방송작가 직군에 대한 전문성, 기획력, 문해력이 높게 평가되면서, 방송계뿐 아니라 외부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작가 경력을 가진 인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의 특징으로는, 먼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시사·생활·문화·지역 정보 등 여러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성향이 큰 장점이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기보다는, PD, 진행자, 출연자, 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해 방송에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함과 협업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구성작가는 글쓰기와 기획이 중심인 만큼 명확한 전달력, 상황 판단력, 그리고 청취자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화면 없이 말과 글로만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정보를 정리하는 기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섬세함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종합하면, 구성작가는 창의력과 기획 능력을 기반으로 사람과 이야기를 연결하는 직업으로, 도전적이면서도 협업을 즐기는 사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의 감정과 경험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회적 맥락, 공동체가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방송의 메시지가 명확해지고, 공공의 매체로서 책임감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구성작가처럼 사람과 이야기,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직업에서는 오히려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학적 사고를 통해 얻는 논리적 구성력, 문제 분석 능력, 다각도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방송 아이টে를 기획하거나 시의성을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윤리학적 관점은 공적 메시지를 다루는 방송의 특성상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철학·윤리학이 단순히 ‘이론 중심의 학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이 단단할수록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8

취재기자

확장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및 정보를 텔레비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하는 자

유사명칭

보도기자

관련직업

방송기자, 신문기자, 인터넷기자, 잡지기자,
생활정보기자, 특파원



하는 일

- 범죄·화재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현장, 운동경기,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
- 편집(보도)국장과 상의하여 취재기획서를 작성하고 현장 취재 수행
- 취재 관련 인물, 전문가, 일반 시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
- 수집한 자료와 취재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기사 작성 및 편집실 전송
- TV, 신문,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 특성에 맞춘 내용 보완 및 편집업무 지원
- 방송 출연을 통한 녹화, 녹음, 현장 생방송 중계
- 새로운 취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특집·기획 기사 작성
-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및 논평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말하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한다.
-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혹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 지식

-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 (의사소통과 미디어) 말, 글, 그림 등을 이메일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에 관한 지식
-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 (영어) 영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데 필요한 지식
- (심리)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응용윤리학(인공지능, 신경, 생명의료윤리 등), 기술철학, 정치사회철학, 예술철학, 철학상담, 동양고전강독, 불교철학, 도가철학, 유가철학 등

언론미디어학

취재보도론, 저널리즘이론, 미디어비평, 언론윤리, 디지털저널리즘 등

정치외교학

정치학개론, 정치과정론, 비교정치론, 국제관계론, 정치사상사 등

사회학

사회문제론, 사회조사방법론, 사회통계, 현대사회이론, 위험사회론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대학 방송국 및 학보사 활동 참여
- 방송콘텐츠 기획 및 촬영편집 관련 특강
- 탐사보도 및 인터뷰 기술 워크숍 등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취재기자 미디어 에디터 양성 관련 직업훈련과정
- 언론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법규 이해 관련 교육과정 등

● 일경험

- 대학 신문사 및 방송국 학생기자 활동
- 언론사 인턴십을 통한 취재 및 인터뷰, 자료조사 보조 경험
- 현장 취재 관련 업무 지원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민간 자격 등

• 자기 주도적 활동

- 인터뷰 및 취재 기사 샘플 작성 및 저널, 블로그 등 운영
- 관심 분야의 이슈에 대한 뉴스 트렌드 및 사례 연구
- 교내·지역 행사 등에서 대상자 선정 및 인터뷰 진행 등

• 진출 분야

- | | |
|---|---------------------------|
| 1 | 신문·잡지·온라인 미디어 |
| 2 | 방송·디지털 콘텐츠·뉴스플랫폼 |
| 2 | 정책·산업 전문 매체 및 기타 언론 관련 기관 |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



(국내)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kpf.or.kr>



(국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http://www.editor.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취재기자는 사건과 이슈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인물과 자료를 통해 사실을 수집·검증해 기사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취재기자를 준비할 때는 전공에서 익힌 사고방식을 실제 취재 경험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언론사 활동이나 교내외 행사 취재는 기사 구조를 짜고,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며,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신문이나 온라인 매체 인턴십을 통해 편집국의 업무 흐름과 마감 환경, 멀티미디어 활용 방식을 경험해두면 입직 초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여러 층위에서 해석하고, 쟁점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기사 기획, 질문 설계, 해설과 분석 기사 작성에서 설득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직 단계에서는 취재 경험과 기사 작성 결과물, 인터뷰 경험, 데이터 리서치와 디지털 편집 역량을 함께 갖추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terview

취재기자/지역신문사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지역 언론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기자로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 등 크고 작은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로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신문이라는 특성상 사무실 운영, 협동조합 업무, 타 지역신문과의 연대 등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주 업무가 취재기자이다 보니 하루의 업무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잡혀 있는 인터뷰 일정이나 기자회견, 현장 방문 일정에 따라 하루 중 약 3분의 2는 외부 취재 활동을 하고, 남은 시간에 취재 내용을 정리해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편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관공서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기자라는 직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사 내부의 편집회의와 같은 공식 일정은 가장 우선에 두고, 이를 기준으로 취재 일정을 조정하며 업무를 진행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취재를 통해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나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실제 제도나 관행이 개선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기사 이후 정책이 보완되거나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때, 기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개인이나 집단의 사정이 기사로 알려져 공론화되고, 그 결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 큰 의미를 느낍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취재 노동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힘들었던 일] 사건·사고의 취재 대상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거나, 지인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었을 때에는 기자로서의 역할과 개인적인 관계 사이에서 큰 갈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인간적인 감정이 충돌하면서 윤리관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의 과정은 기자로서 스스로의 기준과 태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취재에 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취재기자는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기자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사건과 사고의 현장에 직접 서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취재기자는 보도의 순간마다 자신의 판단 속에서 진실과 왜곡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 윤리적 성찰과 도덕적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며,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취재기자는 앞으로도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초년생이나 입직자에게는 비판적 사고 능력, 사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야, 상황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표현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취재기자에게 특히 강조되는 것은 ‘언론윤리’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태도는 취재기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철학·윤리학을 통해 ‘이 기사가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바람직한가’, ‘진실성과 정의,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나의 기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깊이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사고는 면접 상황뿐 아니라, 실제 취재 현장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에도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었으며, 보다 책임 있는 취재기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교과 활동 이외에도 교내 학보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학보사 활동을 통해 교내 사안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대학의 환경과 이슈를 외부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저의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취재 대상에 대한 존중과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체감함으로써, 언론인의 윤리의식을 실제 활동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마주한 여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사고해왔으며, 진학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소하는 방향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저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교내 학보사 활동을 계기로 언론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흐른 뒤 접하게 된 세월호 참사와 그 당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인 보도가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언론이 사회에 지니는 윤리적 책임의 무게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정책적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평소 뉴스와 신문을 꾸준히 접해 왔습니다. 단순히 사회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이러한 변화가 왜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구조는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꾸준히 읽으며 비판적 사고력과 해석 능력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넘어서,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가리지 않고 함께 접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사회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담론을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사내에서 승진을 통해 고위 직책에 오르거나, 정치권으로 진출하거나, 혹은 대기업 홍보실 등으로 이직할 때 경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적 선택을 넘어, 공적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윤리적 직무라는 점에서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누리집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언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과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취재기자로서 필요한 실무 역량뿐 아니라, 언론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기자라는 직업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다보니, 일반인에 비해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결과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사람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나이를 넘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단체,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단원고 한 학생이 기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양심과 신념을 저버린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고 단 하나만 떠올렸습니다. “너와 같은 아이가 기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주길 바란다.” 저는 기성 언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동시에 윤리적 신념과 언론윤리 의식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합하게 취재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취재기자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업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언론의 책임은 더욱 커지며, 취재기자의 판단은 단순한 직업적 선택을 넘어 명확한 도덕적 기준에 기반한 윤리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내가 작성한 기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인권은 침해되지 않았는가?”, “진실에 충실한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당시, 사건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언론사 중 하나는 뉴욕타임즈였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속보 경쟁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사실 검증을 우선하며 보도의 신중함을 선택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여론을 선점하려는 흐름 속에서도, 진실성과 인간의 존엄,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적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는 공익을 고려한 공리주의적 판단이자, 진실 보도를 의무로 삼는 의무론적 태도, 그리고 절제와 신중함을 중시하는 덕윤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선택이 바로 뉴욕타임즈가 오랜 시간 신뢰받는 언론으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재기자의 핵심 역량을 가장 탄탄하게 길러주는 학문이 바로 철학·윤리학이라고 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글쓰기 능력이나 정보 정리는 점차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게 되겠지만,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성찰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단순한 취재 기술 습득을 넘어, 철학·윤리학을 통해 인간과 사회, 진실과 책임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다면, 철학·윤리학 전공은 취재기자로서의 길을 준비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Interview

취재기자/언론사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인터넷 신문, 주간 및 월간 잡지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에서 뉴스 경제부 기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경제 파트 중에서 증권과 카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일 중요한 단신 기사를 작성하며 일주일에 한 개씩 기획 기사를 취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기자수첩을 취재해서 작성하고, 당직일 때는 문학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기사도 한 개씩 취재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일주일 중 월요일 오전에는 이번 주에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편집국 기획회의를 합니다. 다른 날 오전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증권, 카드, 공기업, 교육 기업 등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단신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일주일에 한 개씩 쓰는 기획 기사 아이템과 관련해서 자료 조사와 현장, 전화 취재, 아이템 발굴 등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천천히 경제 분야 기획 기사 한 개와 문학·문화 기사 한 개씩을 작성합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당직 근무를 하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문화 기사를 꾸준히 작성해 왔습니다. 그중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이자 소설가의 책을 다루고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해당 인물이 노근리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취재를 통해 한 작가의 작품과 문제의식을 사회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문화와 문학을 다룬 기사가 사회적 의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감한 사례였습니다.

[힘들었던 일] 대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어떤 관점에서 취재하고 기사로 구성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표현의 균형, 윤리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취재기자로서의 균형 감각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터넷 신문과 주간·월간 잡지 시장은 경제적 규모가 크지 않고, 전반적인 성장 전망도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처럼 국제학술지급 건축 잡지 등 전문성을 갖춘 매체의 경우, 산업과 학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 환경은 단순한 고발이나 비판 중심의 보도에서 나아가, 문제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이나 입직자에게는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의 미래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부와 경험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서양철학사와 동양철학사, 플라톤의 『국가』, 질 들뢰즈와 버트란트 러셀 등 현대 철학자들의 저작을 통해 법률 체계와 국가, 개인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사유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 경험은 여러 매체에 진출해 경제·정치·문화 분야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안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수/부전공 등] 국어국문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국문학사, 문학 비평, 창작 관련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 작품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고,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함께 넓힐 수 있었습니다. 졸업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경제·정치 분야뿐 아니라 문화 분야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데에도 이러한 전공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내러티브 기사나 르포 기사처럼 미학적 완성도가 요구되는 글을 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여러 매체에서 학생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영화 평론 형식의 글을 시민 기자로 기고하며 문화 콘텐츠를 비평하는 경험을 쌓았고, 교내에서는 철학과 학과 잡지의 편집장을 맡아 기획·집필·편집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학내 인터넷 신문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취재 방향 설정과 기사 편집, 구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기사로 풀어내는 방식과 매체별 글쓰기의 차이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선배와 친구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거나 농촌 봉사활동을 다니며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한 경험은 이후 취재와 기사 작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널리즘 관련 교육 과정의 강의를 수강하며 기사 작성 원칙과 취재 윤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점도 기자로서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 수필을 써서 교내외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을 쓰는 일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꼈고,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을 다루는 언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언론계에 몸담았던 어른들과 교류하며 기자라는 직업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 선배 기자가 강연에서,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막지 못했던 경험을 후회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기자의 역할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온라인 언론 커뮤니티를 통해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테디를 구성해 논술과 작문 연습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기사 작성의 기본 틀과 논리 전개 방식을 익혔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기자 일을 희망하는 동료들과 별도의 스테디를 만들어 토론과 모의 취재를 진행했으며, 실제 취재 상황을 가정해 질문을 구성하고 답변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기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아나운서 발음으로 말하는 연습을 병행하며, 정확하고 명료한 언어 사용에 신경 썼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인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서사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했고,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역시 기사 작성과 문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취직 이전에 학생 기자로 활동하며 작성했던 기사들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해 제출했고,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건문을 났던 점도 실제 기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기자로서 축적한 취재 경험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책을 출판하는 작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저널리즘 논픽션일 수도 있고, 저널리즘적 시선을 바탕으로 한 소설 창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문화 콘텐츠를 사업가로 진로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자로 일하며 경제·정치 분야에 대한 이해를 쌓았다면 국회나 관련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취재와 글쓰기 경험을 살려 기업이나 기관의 홍보 직무로 진출하거나, 논술 교사, 대학 교수 등 교육·연구 분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직무에 맞는 전문성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로서의 기본 역량인 글쓰기, 분석력, 사회적 시야를 유지하면서 관심 분야를 분명히 하고, 출판·언어·정책·교육 등 각 진로에 맞는 경험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향후 진출 가능성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기자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사회의 여러 단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글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그 내용을 기사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기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과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점도 함께 조명할 수 있으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자라는 직업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명감이 강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잘 어울립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존중하며 사회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매체를 만나게 된다면 과도한 취재 경쟁이나 업무 부담에 시달리기보다는, 충분한 숙의와 고민을 거쳐 기사를 작성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이 직업의 중요한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의 장점은 사회를 법률·행정적 체계뿐 아니라 가치와 규범의 관점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준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철학의 논리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과목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법과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철학·윤리학을 바탕으로 인류학, 경제학, 과학 등 인접 학문을 함께 공부한다면,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맥락과 의미를 짚어내는 깊이 있는 기사와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는 철학·윤리학이 작품과 현상을 해석하는 강력한 비평 도구가 되어, 예술성과 사유가 살아 있는 기사와 글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철학·윤리학 전공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탄탄한 사유의 기반을 제공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9

확장

연극연출가



연극을 연출하기 위해 선정된 작품을 해석하고 연극배우들의 연기와 공연을 지휘하는 자

유사명칭

연극PD, 무대연출가, 오페라연출가,
뮤지컬연출가



하는 일

- 공연 희곡 선정 또는 선정 작품의 구성요소 분석 및 해석
- 연극제작자, 극작가와의 협의를 통한 대본 수정 및 극 전개 계획
- 작품 검토 및 제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오디션 또는 직접 캐스팅을 통해 주요 배역 선정
- 음향, 소품, 조명 등 무대기술진 구성
- 무대감독, 음향, 조명, 의상, 안무, 예산 및 일정 등 관련 스태프와의 제작 계획 협의
- 무대제작, 기술 요소를 포함한 전체 공연 제작 조정
- 연기 지도 및 연습, 리허설 총괄
- 본 공연 감독 및 공연 후 관객 피드백 수집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공간지각력)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다른 대상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지 안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 (문제해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한다.
- (창의력)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예술) 음악, 무용, 미술, 드라마에 관한 지식
-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 (심리)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개론,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응용윤리학(인공지능, 신경, 생명의료윤리 등), 기술철학, 정치사회철학, 예술철학, 철학상담, 동양고전강독, 불교철학, 도가철학, 유가철학 등

공연예술

연극연출론, 희곡분석, 연극개론, 공연미학, 무대미술개론 등

문예창작

극작법, 희곡창작, 플롯과 구성, 인물창조론, 창작워크숍 등

영화학

시나리오작법, 영상스토리텔링, 캐릭터아크 분석, 영화미학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공연소모임 활동 참여
- 공연기획 및 연출 프로젝트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공연콘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 작가 양성과정
- 프로젝트 관리 관련 과정

● 일경험

- 극단·공연제작사에서 연습 진행·대본 정리·연출팀 보조 경험
- 공연예술기관에서 리허설·무대 운영 지원 등 제작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기 주도적 활동

- 희곡이나 공연 영상을 분석하여 장면별 갈등·주제·연출 의도 정리
- 연극 기획안 등을 구상하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공모
- 동아리 활동에서 배우와 역할 해석을 논의하고 연출 방향 제시 등

● 진출 분야

1 공공 및 국공립 공연 예술 기관

2 민간 전문 극단 및 제작사



관련 정보처

(국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국내) 국립극단

<https://www.ntck.or.kr/>



(국내)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철학·윤리학 전공자가 연극연출가를 준비할 때는 전공에서 기른 해석력과 비판적 사고를 실제 창작 경험으로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공연 동아리, 단편 연출 프로젝트, 극단 조연출이나 인턴십 등을 통해 배우와의 작업, 동선 구성, 리허설 운영, 스태프와의 협업을 직접 경험해두면 입직 과정에서 실무 이해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작품의 주제와 갈등, 인물의 동기와 세계관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강점이 있으므로, 이를 연출 콘셉트와 장면 해석으로 구체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희곡 분석, 공연 비평, 연출 메모 정리 경험은 자신의 해석을 언어로 설명하고 팀과 공유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입직 단계에서는 장면 구성표, 리허설 노트, 콘셉트 시트 등 실제 작업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Interview

연극연출가/예술단체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연극연출가로 활동하며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기반으로 하되, 다원예술, 거리예술, 사운드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운영을 위해 공연 기획과 행정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창작 활동과 더불어 예술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 방식은 기존 희곡을 무대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동창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작품의 주제와 형식을 구상한 뒤 이를 토대로 지원사업 기획서를 작성하고, 창작팀을 구성합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배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작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작 단계에서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작품의 전반적인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세부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출가로서 배우와 스태프, 기술 인력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후 배우들과의 연습을 통해 장면을 구체화하고, 최종적으로 관객과 만나는 공연을 완성하는 것이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극연출가의 일과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창작 프로덕션 기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연습실에 가기 전, 그날의 연습 목표를 먼저 설정합니다. 배우들과 함께 진행할 워크숍이나 장면 연습의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나 참고문헌도 미리 준비합니다.

동시에 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공연장과의 연락을 비롯해, 행정·홍보와 관련된 소통도 병행합니다. 또한 무대, 조명, 음향 등 각 분야의 디자이너 및 스태프들과 회의를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작품의 전체 콘셉트가 하나의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조율합니다.

연습실에서는 배우들과 함께 장면을 만들어가거나, 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수정이 이루어지며, 작품의 구조와 흐름이 점차 구체화됩니다.

연습이 끝난 이후에는 그날 연습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수정된 공연 텍스트를 정리하고, 연습 영상 자료를 업로드해 창작팀과 공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하루의 기본적인 업무 흐름입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제가 연출한 공연을 관객들이 관람한 뒤 남긴 후기를 읽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라온 리뷰를 보거나, 동료 예술가들이 작품에 대해 전해주는 세밀한 피드백을 접하면, 작품의 평가와는 별개로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 공연을 보고 자신의 언어로 반응을 남겨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만든 작업이 누군가의 하루와 감정에 닿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 사회에 아주 작은 흔적 하나를 남겼다는 감각이 들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일] 공연은 여러 사람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연출가로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작업의 방향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예기치 않게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들이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또한 예술 노동의 불안정성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이 언제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고, 창작 기간에는 잠과 식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작품에 쏟게 되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항상 따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협업을 조율하는 법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연출가로서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현재 인공지능이 연출가의 핵심적인 영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작업이나 자료 정리, 요약 등에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보조 도구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작품의 주제나 콘셉트, 연출 방식에 대해 인공지능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방대한 조사 자료를 창작 과정에 활용하는 사례와 논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생성한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인공지능이 동일한 아이디어를 여러 사용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그 책임과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같은 윤리적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연출가에게는 인공지능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의존하기보다는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제게 철학 전공은 연출가로서 필요한 시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연출은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자신의 예술 언어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연출적 통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철학 공부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철학은 세상을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사고를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훈련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동서양 고대철학과 윤리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도가철학과 고대 그리스철학의 사유는 제 예술관의 토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된 것은 서양 현대철학입니다. 현상학, 몸철학, 수행성, 포스트휴머니즘 등의 개념은 작품을 구성할 때 저만의 관점을 형성해주었고, 연출 방법론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수/부전공 등] 연극과를 부전공하면서 연극사, 연출론, 연기 등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품고 있던 철학적 질문을 어떻게 연극이라는 언어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학과 내 연극동아리 활동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극에 관심 있는 동기와 선배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졸업할 때까지 매년 공연을 올렸던 경험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 강점과 부족한 점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조율해야 하는지도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연출가로서 현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극장 안내원 아르바이트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연출가는 다양한 작품을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내원으로 일하며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장르와 형식의 공연들을 꾸준히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공연을 관객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감각을 기를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연출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극장에서 맺은 인연들 역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주말이면 친구들과 동네 극장에 연극을 보러 가거나, 부모님과 함께 대학로나 지역 소극장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연극을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연극 동아리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학교 축제 때 연극을 준비하며 연출을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연극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진로는 다른 방향을 고민하며 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연극 관련 활동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연극을 공부하고 작업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연극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던 시기에, 한 동기가 “당연히 너는 연출가가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해준 순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제 마음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 연출가의 길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조연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연출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인을 통해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인 편입니다. 또한 연극계는 한 극단에 소속되어 위계적으로 조연출에서 연출로 승진하는 구조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단체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각종 축제나 지원사업 공고를 꾸준히 살펴보던 중, 직접 해보고 싶은 작업이 생기면서 연출가로서 첫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서 작성, 팀 구성, 예산 계획 등 창작 외적인 준비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이후 작업을 이어가며 제 연출 방향과 예술적 관심사가 점차 분명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체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프리랜서 연출가로서 다른 단체와 협업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연출가는 창작 활동만으로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출가들이 학원, 예술중·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강의를 병행하거나, 예술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출 외에도 다른 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을 함께 하거나, 예술과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출가를 진로로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업과 병행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할 것인지, 재정적인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 경험은 매우 중요한 준비 요소입니다. 축제 자원봉사단, 공연 스태프, 극장 안내원 등의 활동을 통해 공연 제작의 구조와 현장의 시스템,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 방식을 이해하는 경험은 이후 연출 작업에 큰 자산이 됩니다. 동시에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공연을 꾸준히 관람하면서, 자신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방향의 연출가가 되고 싶은지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진, 영상, 작업 기록 등으로 정리해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학원 진학은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제 경우에는 대학원에서의 공부가 연출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동료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학업과 현장 경험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향후 진로를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연출가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공연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비교적 일정 운용이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작품에 몰입할 때는 집중적으로 시간을 쓰고, 그 외의 시기에는 스스로 리듬을 조절하며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품의 주제와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며 공동으로 창작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매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가 확장되고, 예술적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반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입 구조가 일정하지 않고, 일이 언제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 직업이 지닌 특성이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계속하고 싶다는 확고한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출가는 혼자 작업하는 직업이 아니라, 배우, 스태프, 기획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뿐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소통 역량이 중요합니다. 예술에 대한 애정과 함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철학과를 전공한 연출가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철학과 연극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각자의 방식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연출이 동시대의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의 해석으로 무대 위에 구현하는 작업이라면, 철학은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질문의 방향과 시각을 단단하게 훈련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을 선택한다면,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기보다는 4년 동안 동서양의 다양한 사유를 폭넓게 접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각 철학자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질문이 탄생한 당시의 철학적, 과학적, 정치적, 사회적, 예술적 배경을 함께 살펴본다면 훨씬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고의 깊이와 관점을 동시에 확장시켜 줍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훈련은 특정 직업을 넘어서, 창작과 해석, 비판과 선택이 요구되는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철학·윤리학은 빠르게 답을 내리는 학문이 아니라, 오래 질문하고 스스로 사유하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입니다. 만약 질문하는 삶, 의미를 탐구하는 삶에 끌린다면, 철학·윤리학 전공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든든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연극연출가/예술단체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대학에서 철학과 연기를 전공했고, 십수 년간 배우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극본을 쓰고, 연출, 기획, 제작 등 공연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극연출은 작품의 주제와 방향을 정하고, 이를 무대 위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구상하는 일입니다. 또한 배우의 연기를 지도하고, 장면의 흐름을 구성하며, 공연의 메시지가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전체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제 공연의 목적은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소재는 주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가장 감동적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이 한 편의 연극을 재미있게 보면서도, 언론 보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와 맥락을 함께 접하고, 공감과 성찰의 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작업의 성격상 하루 단위로 나누어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을 계획하면 대개 1, 2년 전에 대본 작업을 시작하고, 급하게 진행할 때는 6개월 전에 대본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획 작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극장 대관, 배우 캐스팅, 스태프 구성, 홍보 전략, 마케팅 등이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인하며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는 연습 과정에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장면을 만들고, 공연이 임박하면 무대, 조명, 음악, 분장 등 공연의 여러 요소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극연출가의 업무는 하루 단위로 나누어 정리하기는 어렵고, 한 편의 공연이 준비되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연출 의도가 관객에게 적중해 희로애락의 반응이 나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작품에서 저는 진상 규명과 함께 할머니들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으면서 관객이 몰입해 볼 수 있도록 공연을 구성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5년간 전국 순회공연을 했고,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어 고맙다거나, 이런 사실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큰절을 하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일] 공연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는 제작비 마련이 여의치 않을 때입니다. 예산의 한계로 인해 무대나 의상, 연출 요소를 처음 구상했던 모습 그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생각한 채 공연을 올려야 할 때 아쉬움이 크게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오히려 다른 방식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조건 속에서 무엇이 작품의 본질인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배우의 연기와 이야기의 힘에 더욱 집중하는 연출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외형보다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작업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쏟아져 나오는 변화무쌍하고 화려한 콘텐츠들과 비교하면 이 직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극이라는 매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다면 순수 연극을 목표로 행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연극의 마력에 빠져 보는 낭만이 없다면, 다른 장르와 병행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면서 도전하길 권유합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연극 연출·극작 활동은 철학·윤리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철학적 탐구와 윤리적 감수성이 작품 세계 전반에 간접적으로 깊게 스며드는 직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사람들의 진실을 다루는 작업은 인간, 사회, 역사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작품의 주제를 선택하고 사건과 인물을 해석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이런 주제 의식은 철학·윤리학이 다루는 정의, 인권, 기억, 책임, 타자성과 같은 핵심 개념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복수/부전공 등] 연극론, 희곡론, 무대미술, 분장 등의 수업을 들었지만, 당시에 배우를 지망하고 있었기에 연기를 할 수 있는 무대에 전념했고, 지금 연출을 하며 배우를 지도하는 데 있어 좋은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철학·윤리학 전공을 통해 기른 해석과 사유의 방식이 더해져 인물과 장면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번역극 위주의 학교 연극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연극을 고민하게 해준 동아리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동아리에서는 기존의 서구 희곡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역사와 현실, 집단적 기억을 어떻게 무대 위에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실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극이 단순한 재현 예술이 아니라, 동시대 사회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을 준비하며 자료 조사, 토론, 공동 창작을 반복하는 경험은 이후 연출과 극작, 기획 전반에 걸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극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지금의 작업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연극반에서 중학생 단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국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연극과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드라마센터 무대에 올라 직접 연기를 경험한 이후, 연극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로 활동하며 점차 '내가 정말 무대 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정작 마음에 드는 대본을 찾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극작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연출과 기획, 제작까지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연극연출가라는 선택은 배우로서의 출발에서 비롯된 고민과 문제의식이 확장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지도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일반 극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현장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오디션을 거쳐 국립극단에 입단하여 보다 체계적인 제작 환경 속에서 연기와 공연 제작 전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극 현장의 구조와 제작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는, 기존 작품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정체성을 담은 공연을 만들고자 대본 쓰기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이 과정은 연출과 극작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연극을 보다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완성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력개발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학에서 교수로 진출하여 연극 이론과 실기를 함께 가르치는 길도 있으며, 연극 현장에서 다져진 연기·연출 역량을 바탕으로 방송이나 영화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극은 배우와 연출가에게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장르로, 다른 매체로 이동했을 때도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는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연극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안목과 감각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은 스스로 꿈꾸는 세계를 무대 위에 구현하고 관객이 그 세계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출가는 단순히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관점을 예술적 언어로 구조화해 관객과 공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예술적 감각과 함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수학적·치밀함도 요구됩니다. 또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관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즐겁게 고민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직업은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 전공을 선택하는 길은 화려한 명예나 즉각적인 실리를 약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일 경로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공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세우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지켜져야 하는가를 끝까지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인간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삶과 사건의 의미를 질문하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연극처럼 사람과 사회를 다루는 예술 분야에도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지금과는 다른 세계’, ‘조금 더 아름답고 인간다운 사회’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철학·윤리학은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게 해주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생각을 정련하고, 윤리학은 그 생각이 향해야 할 방향을 묻습니다. 그 사유의 깊이는 예술이든, 연극이든, 글이든, 교육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철학·윤리학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한 사람의 삶과 세계관을 오래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전공입니다. 그 힘을 믿고 선택한다면, 비록 느린 길일지라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MEMO

20

확장

방송책임프로듀서



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관련 종사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자

유사명칭

방송연출가, CP(Chief Producer),
EP(Executive Producer), 수석프로듀서,
프로덕션매니저

관련직업

드라마 프로듀서, 스포츠 프로듀서,
쇼 프로듀서, 뉴스 프로듀서



하는 일

- 방송 편성회의 참여 및 방송사 중장기 전략·프로그램 편성방향 협의
- 시나리오작가 선정 및 대본 검토, 프로그램 기획
- 제작기획서 검토 및 경영진 협의를 통한 작가, 연기자, MC, 외부 연출가 선정
- 담당 프로그램의 기획, 예산, 편집, 홍보 등 전 과정 총괄 관리
- 방송 관련 의상, 무대배경, 음악, 카메라, 시간 등에 대한 제작진 협의
- 촬영 일정 결정, 장소, 소품, 장비, 준비 등 촬영 및 녹화 총 지휘
- 시사본 시청 후 제작진·경영진과 수정 보완 사항 결정 및 최종 편집
- 방송 송출 후 시청자 피드백, 시청률 분석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 사항 도출



필요 역량

• 업무수행능력

- (창의력)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 (판단과 의사결정) 이득과 손실을 평가해서 결정을 내린다.
- (모니터링(Monitoring)) 타인 혹은 조직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 지식

-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 (예술) 음악, 무용, 미술, 드라마에 관한 지식
- (사회와 인류) 집단행동, 사회적 영향, 인류의 기원 및 이동, 인종, 문화에 관한 지식
- (의사소통과 미디어) 방송 제작 구조, 송출 시스템, 미디어플랫폼 특성 등 매체 이해에 필요한 지식



경력 준비방법

● 대학 내 관련 전공 및 교과목

철학·윤리학

철학의 문제들, 동양고전강독, 정치사회철학, 기술철학, 예술철학, 철학상담, 노장철학, 불교철학 등

언론미디어학

방송학개론, 방송제작론, 방송편성론, 방송경영, 미디어산업론 등

커뮤니케이션학

커뮤니케이션이론, 설득커뮤니케이션, 미디어글쓰기 등

영상콘텐츠

영상제작기초, 영상미학, 시나리오작법, 다큐멘터리제작 등

●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 교내 홍보 부서·동아리 활동(학교 홍보 콘텐츠 제작)
-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참여
- 문화콘텐츠 기획 프로그램 참여 등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 방송아카데미 과정
- 멀티미디어 제작 관련 훈련과정
- 영상편집 관련 훈련과정 등

● 일경험

- 방송국·프로덕션에서 프로그램 기획·편성 자료 조사 및 제작팀 보조 경험
- 콘텐츠 제작사에서 촬영 운영·편집 지원 등 제작 실무 보조 경험 등

• 자격증

- ✓ 필수: -
- ✓ 선택: -

• 자기 주도적 활동

- 즐겨보는 방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비교해 편성 의도와 제작 흐름 정리
- 흥미 있는 주제를 선정해 프로그램 콘셉트·구성 아이디어, 출연자 구성 작성
- 동아리 영상 제작에서 일정 관리·역할 조율·촬영 진행을 총괄하며 운영 과정 경험 축적 등

• 진출 분야

- 1 방송국, 케이블, 독립 프로덕션
- 2 엔터테인먼트사, 라이브커머스 제작팀
- 3 OTT,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 운영사



관련 정보처

(국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https://www.kcc.go.kr/>



(국내)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



(국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http://kobetaa.or.kr/>



관심 청년을 위한 핵심 조언

방송책임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제작, 편성, 송출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메시지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송책임프로듀서를 희망하는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이러한 제작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철학·윤리학 전공자는 사안의 핵심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어,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설계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의도, 구성 방식, 연출 전략, 전달 메시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획서나 콘셉트 노트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송국, 프로덕션, 교내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제작 과정과 협업 방식을 직접 경험해 보면 방송책임프로듀서에게 필요한 기획·운영 역량을 기르는 데 유익합니다.

Interview

방송책임프로듀서/방송국



직업의 이해

Q. 귀하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지역 교통과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이며,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특별 방송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참여가 가능한 공개방송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하루 중 이루어지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오전에는 주로 오후 프로그램을 위한 원고를 검토하고 큐시트를 작성하는 등 방송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더불어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합니다. 오후에는 방송 제작을 위해 진행자와 작가와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거나 지역 유관기관들과 업무 미팅을 하거나 출장을 나가며, 이 밖에도 방송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보람있던 일]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주제로 기획한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어질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한 정보가 단순히 방송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안전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제작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힘들었던 일] 매일 생방송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상 아이টে를 꾸준히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시의성을 갖추면서도 청취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 하루하루 새로운 주제를 고민해야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대체해야 하는 부담도 따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긴장감과 시간적 압박은 분명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빠른 판단력과 유연한 사고가 자연스럽게 길러졌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역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 이 직업과 관련하여 사회 초년생, 혹은 입직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라디오 방송 환경은 앞으로 더욱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동화 시스템, 음성 합성 기술, 날씨나 계절에 맞춘 선곡 추천 기능 등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PD, 작가, 진행자의 단순·반복 업무는 상당 부분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입직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에도 영향을 미쳐 기술 활용 능력이나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방송 제작은 정보 전달뿐 아니라 청취자의 감정과 경험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 고유의 감성과 창의성까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앞으로의 방송 제작자는 인공지능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감성적 기획력과 소통 능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전공과의 연계성과 직업 준비

Q. 귀하의 직업은 (전문)대학의 ‘철학·윤리학’ 전공 혹은 다른 전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철학·윤리학]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공 수업들이 기본적인 신념과 개념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과과정에서 예술철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논리학, 철학입문과 같은 과목을 들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배운 사고 방식이 프로그램의 주제를 정하거나 메시지를 구성할 때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단순히 표면적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맥락이나 의미를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데 전공에서 배운 내용들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례를 봐도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방송 제작 일을 할 때 전공에서 익힌 논리적 사고력이나 비판적 시각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윤리학 전공은 방송 제작과 직접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조직하고 주제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교과 활동 이외에도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인턴생활을 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홍보실에서 근무하며 사내잡지 제작과 사내방송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직접 접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지금의 방송 제작 업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특히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조직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을 미리 경험해 본 것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할 때 큰 밑바탕이 되었고, 방송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감각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처럼 매체가 다양하지 않았고 SNS나 유튜브가 성황이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시간에 자연스럽게 라디오를 접하고 했습니다. 저 역시 라디오라는 매체를 일상적으로 듣고 자라면서, 누군가의 하루에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주는 목소리와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직업을 목표로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와 음악이 가지는 힘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이 매체를 만드는 쪽에 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그 관심이 직업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가 가진 따뜻함과 소통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것이 지금의 일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Q. 귀하가 이 직업에 입직 시 실제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입직 과정은 공공기관 공채 준비를 통해 시험과 면접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공단의 업무 특성상 시험문제에 교통과 관련된 적성 평가나 시사 이해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면허시험 교재를 중심으로 기초 지식을 다시 익히고, 시사 상식과 교통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며 준비했습니다. 특히 교통 정책이나 사고 예방 캠페인 등 공단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를 미리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면접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력개발 및 조언

Q.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 경로는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다양한 진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방송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매체의 콘텐츠 제작이나 기획 분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라디오에서 쌓은 구성·연출 역량을 TV나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 뒤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연구자로 진출해 교수가 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방송을 통해 얻은 소통 능력과 메시지 구성 경험을 활용해 정치 분야로 진출하거나 기업 홍보실에서 콘텐츠 기획, 홍보 전략 수립 등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실무 경험을 꾸준히 쌓으며, 필요할 경우 자격 취득이나 추가 학위 과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직업의 장점과 매력은 전문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경험이 쌓이면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 현장에서 축적되는 지식과 감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루틴 업무가 있지만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고, 취재나 섭외를 위해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일의 역동성과 활력이 유지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이 의도한 메시지와 콘텐츠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송 제작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획력이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관련 조언

Q. 마지막으로 ‘철학·윤리학’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철학·윤리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줍니다. 라디오라는 매체는 특성상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어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청취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윤리학을 전공하며 익히는 사고의 깊이와 가치 판단의 기준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기본이 되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철학은 보편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메시지를 구성할 때 자신만의 관점과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는 단순히 진로와 직업으로만 연결하지 말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MEMO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전공기반 진출 직업		인터뷰 수록 페이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	경영·사무· 금융·보험직	01	관리직(임원·부서장)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공공갈등조정사	33
				022	경영·인사 전문가	2	노무사	43
						3	인사사무원	53, 59
						4	노무사무원	71
						5	총무사무원	81
						6	준법감시원	91
		03	금융·보험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7	철학연구원	103, 107
						7-1	인공지능윤리전문가	115, 120
						8	생명윤리연구원	129
						9	법학연구원	
						10	사회복지정책연구원	145, 150
						11	언론정책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	교육·법률· 사회복지· 경찰·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12	철학·윤리학교수	165, 170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13	인문학강사	179, 183
		22	법률직					
		23	사회복지·종교직					
		24	경찰·소방·교도직					
		25	군인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전공기반 진출 직업		인터뷰 수록 페이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	예술·디자인· 방송· 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14	소설가	193, 198	
				15	극작가		
				16	게임시나리오작가	211	
				17	구성작가	221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18	취재기자	231, 236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19	연극연출가	244, 249
		20			방송책임프로듀서	259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5	미용·여행· 숙박·음식· 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3	음식 서비스직				
		54	경호경비직				
		55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6	영업·판매· 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2	운전운송직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8	설치·정비· 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6	섬유·의복 생산직				
		87	식품 가공·생산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89	제조 단순직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 1) 대학 전공별 진출 직업의 직업 분류는 전공 특성에 기반하여 직업을 분류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상의 세부 직업 분류와 차이가 있음
 2) 인터뷰 수록 페이지가 공란인 경우, 해당 직업에 대한 인터뷰가 없음을 의미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발행일	2025.12.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발행인	이창수
기획	한국고용정보원 이주현, 김종진, 이민주, 유지아, 김유경
개발	(주)에듀레브
도움주신 분	서울교육대학교 장현진, 인덕대학교 주홍석
디자인·인쇄	더생각(www.thethink.kr) ·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ISBN	979-11-7073-246-4

※ 저작권에 의해 허락없이 이 책의 내용을 발췌 및 발행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철학·윤리학

PHILOSOPHY AND ETHICS

